

인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박문수·고대영·구진경·이경희

2013. 12.

머 리 말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 중 하나는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에서 2017년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구구성 형태 역시 소득의 증가, 평균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 증가 등으로 인해 급격히 변화하고 있으며, 특히 전통적인 4인가구는 급속히 줄어드는 반면 1인가구는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맞벌이 가구, 부부 가구 역시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특히, 가계의 소비지출 패턴변화와 같은 수요측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정책은 주로 공급측면에서 받게 되는 영향을 해결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온 반면, 수요와 관련된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어져 왔습니다.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는 것은 단순히 가구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의 확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변수로서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와 같은 수요측면에 대한 통계 및 실증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인식하에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구조 변화의 행태에 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품목별 소비에 어떤 특성(차이)이 있는지,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가구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기반으로 가구의 소비지출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가상코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소비지출이 연령별, 세대별로 어떠한 변화행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습니다.

본 보고서는 산업연구원 서비스산업실 박문수 연구위원의 책임하에 고대영 부연구위원, 구진경 부연구위원과 노동연구원 이경희 부연구위원이 공동으로 집필한 것입니다. 본 보고서의 제안단계에서부터 많은 조언을 해주신 산업연구원의 김원규 박사, 김동수 박사, 박정수 박사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본 보고서의 초안을 읽고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삼성경제연구소의 김화년 박사, 건국대학교 오인하 교수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보고서가 우리나라의 빠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유용한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본 보고서의 내용과 주장은 필자들의 견해이며 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님을 밝혀둡니다.

2013년 12월

산업연구원장 김도훈

차 례

머리말.....	3
요약	13
제1장 서론.....	35
1. 연구 필요성	35
2. 연구목적 및 방법.....	37
제2장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및 선행연구	42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42
2.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	53
제3장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구조 변화	61
1. 가계지출구조 변화 동향	61
2.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66
3. 가구 형태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77
제4장 우리나라 가계의 서비스 소비지출 패턴 분석	83
1. 연구의 배경	83
2. 분석모형 및 자료.....	85
3. 분석결과	96
제5장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수요 변화 분석	150
1. 연령 변화와 소비지출 변화 추이	150
2. 품목별 생애 소비지출 추이	157
3. 가계 서비스 소비지출에 대한 연령-세대-연도효과 분석 ...	176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197
1. 우리나라 가계의 서비스 소비지출 구조	198
2.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변화	201
3. 종합적 시사점	205
참고문헌	207
부 록	213
Abstract	227

표 차례

〈표 1-1〉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비목별 항목·····	40
〈표 2-1〉 주요 선진국과 BRICs 국가들의 고령화율·····	43
〈표 2-2〉 노년인구의 퇴직 후 총소비 변화에 관한 주요 연구·····	58
〈표 3-1〉 기간별 가계 소비지출 비중 및 변동 기여율·····	65
〈표 3-2〉 2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67
〈표 3-3〉 3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68
〈표 3-4〉 4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70
〈표 3-5〉 5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72
〈표 3-6〉 6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73
〈표 3-7〉 7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74
〈표 3-8〉 노인가구주 가구 가계 소비지출 구조·····	79
〈표 3-9〉 맞벌이가구 가계 소비지출 구조·····	80
〈표 3-10〉 여성가구주 가구 가계 소비지출 구조·····	81
〈표 4-1〉 인구통계변수 설정 및 기초 통계량·····	97
〈표 4-2〉 추정결과: α_i (상수항), β_i (deflated income의 평균영향)·····	100
〈표 4-3〉 추정결과: γ_{ij} ($\sum_{j=1}^n \gamma_{ij} \ln p_j$ 에서 각 품목 가격들의 영향)·····	102
〈표 4-4〉 추정결과: p (income deflator의 계수)·····	106
〈표 4-5〉 추정결과: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108
〈표 4-6〉 추정결과: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109
〈표 4-7〉 추정결과: η_{ik} (인구통계변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111
〈표 4-8〉 추정결과: η_{ik} (인구통계변수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112
〈표 4-9〉 추정결과: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114
〈표 4-10〉 추정결과: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117
〈표 4-11〉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	119
〈표 4-12〉 각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보상 자체-교차가격탄력성··	123

〈표 4-13〉 각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비보상 자기-교차가격탄력성	124
〈표 4-14〉 가구주 연령별 소득탄력성	126
〈표 4-15〉 가구주 세대(출생연도)별 소득탄력성	130
〈표 4-1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132
〈표 4-17〉 연도별 소득탄력성	135
〈표 4-18〉 가구 특성별 연령 분포	138
〈표 4-19〉 가구구성원 수 및 학령구성원 수별 소득탄력성	139
〈표 4-20〉 가구주 성별 및 맞벌이가구 여부별 소득탄력성	146
〈표 5-1〉 출생 및 연령 코호트별 연령구분	152
〈표 5-2〉 가구주 연령별 소비 및 소득 변화	153
〈표 5-3〉 가구주 출생연도별 코호트 더미 및 연령더미	179
〈표 5-4〉 Tobit 모형 추정결과	187
〈표 5-5〉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188
〈표 5-6〉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189
〈표 5-7〉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190
〈표 5-8〉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191

그림 차례

〈그림 2-1〉 국가별 1인 가구 증가 추세·····	44
〈그림 2-2〉 가구 및 인구 증가(2001~2035) ·····	45
〈그림 2-3〉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변화·····	46
〈그림 2-4〉 장래 가구구조 변화 추이·····	47
〈그림 2-5〉 성별, 연령별 가구 추이 ·····	49
〈그림 2-6〉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2012)·····	50
〈그림 2-7〉 가구유형별 가구·····	51
〈그림 2-8〉 연령별 월평균 가계소득 및 지출(2012) ·····	52
〈그림 2-9〉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2010) ·····	54
〈그림 2-10〉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개인의 소비와 저축 ·····	56
〈그림 3-1〉 가구주 연령별 비중 변화 추이 ·····	61
〈그림 3-2〉 전체 가구의 지출항목별 구성비(명목 기준) ·····	62
〈그림 3-3〉 전 가구의 지출항목별 구성비 ·····	64
〈그림 3-4〉 비서비스부문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 현황(종합) ·····	75
〈그림 3-5〉 서비스부문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 현황(종합)·····	76
〈그림 3-6〉 가구 형태별 비중 변화 추이 ·····	78
〈그림 4-1〉 품목별 소득탄력성 비교·····	120
〈그림 4-2〉 보상자기가격탄력성 ·····	122
〈그림 4-3〉 보상-비보상 자기가격탄력성 차이 ·····	125
〈그림 4-4〉 비서비스 품목 연령별 소득탄력성 추이·····	127
〈그림 4-5〉 서비스 품목 연령별 소득탄력성 추이·····	128
〈그림 4-6〉 비서비스 품목 세대별 소득탄력성 추이·····	129
〈그림 4-7〉 서비스 품목 세대별 소득탄력성 추이·····	131
〈그림 4-8〉 비서비스 품목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133
〈그림 4-9〉 서비스 품목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	133
〈그림 4-10〉 비서비스 품목 연도별 소득탄력성 추이·····	136

〈그림 4-11〉 서비스 품목 연도별 소득탄력성 추이	136
〈그림 4-12〉 가구구성원 수별 비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141
〈그림 4-13〉 가구구성원 수별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142
〈그림 4-14〉 학령구성원 수별 비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143
〈그림 4-15〉 학령구성원 수별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144
〈그림 4-16〉 가구주 성별 비서비스 및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147
〈그림 4-17〉 맞벌이가구 여부별 비서비스 및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148
〈그림 5-1〉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 변화.....	154
〈그림 5-2〉 연령 코호트별 총소득 추이	156
〈그림 5-3〉 연령 코호트별 총소비지출 추이	157
〈그림 5-4〉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58
〈그림 5-5〉 주류 및 담배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60
〈그림 5-6〉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61
〈그림 5-7〉 주거 및 수도·광열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63
〈그림 5-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64
〈그림 5-9〉 보건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66
〈그림 5-10〉 교통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68
〈그림 5-11〉 통신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69
〈그림 5-12〉 오락·문화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71
〈그림 5-13〉 교육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72
〈그림 5-14〉 음식·숙박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73
〈그림 5-15〉 기타상품 및 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75
〈그림 5-16〉 연령별 가계소비지출 추이	182
〈그림 5-17〉 가계 총소비지출의 연령-세대-연도효과 분해.....	183
〈그림 5-18〉 서비스부문 연령-세대-연도효과 분해	185

요약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최근 세계 주요 국가들의 관심사는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이다. 저출산·고령화는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국가의 성장 잠재력과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경제활동 인구 감소는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와 노인인구 연금 및 보건의료 비용 증가로 이어져 국가 재정 부담을 가중시킨다. 뿐만 아니라 저출산·고령화는 수요 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쳐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서도 과거와는 다른 구매패턴의 변화를 야기했다.

이런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야기될 수 있는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예측하는 것은 해당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의 확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

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변수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와 같은 수요측면에 대한 실증적 검증을 통한 깊이 있는 고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요해짐에 따라 인구구조에 따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보고 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연구들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연구들은 인구구조 변화가 요소의 투입 규모 혹은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총량적 수준에서의 소비, 저축, 재정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공급측면에 미치는 효과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공급측면 뿐만 아니라 수요측면, 즉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현상학적 요인들의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수요의 변화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구조 변화의 행태에 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및 가계 소비구조 특징 분석, 가구 특성별 소비지출패턴 분석,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지출패턴 변화 분석을 실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미치는 영

향 및 특정 서비스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야기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지출품목에 대한 개별적 수요분석 대신 가계의 지출구조를 포괄적인 시스템 속에서 분석하는 수요시스템(demand syste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기반으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대별 소비패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수행되어 오지 않았던 코호트(cohort)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가계소비 관련 연구가 가구 구성원의 특성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대 간 소비패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한계점을 보완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 소비지출패턴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12개 가계 지출 품목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 5개 지출품목은 비서비스 지출로,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 7개 지출은 서비스 지출품목으로 구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패턴 변화를 살펴본다.

제2장 인구구조 변화와 선행연구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

전 세계적으로 가장 주목할 만한 인구구조 변화는 고령화와 1인가

구의 증가이다. 이러한 경향은 선진국에서 더욱 강하게 일어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진행과 1인가구 증가 속도면에서 주요 선진국을 앞지르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에서 2017년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에 진입한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1인가구 증가율에서도 1990년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인데 반해 2010년에는 24%로 늘어났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2)에 따르면, 국내 가구원수별 가구 수 비중이 1990년대 4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높은 반면, 2010년에는 2인가구, 1인가구, 4인가구, 3인가구 순으로 나타났으며, 2035년에는 1인, 2인가구 비중이 더욱 증가하여 전체 가구의 68.3%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됐다.

뿐만 아니라 가구주 연령과 성별에 있어서도 여성가구주 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가구주 연령 또한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은 향후 더욱 가속화되어 2035년의 여성가구주 가구의 비중은 2010년에 비해 9.5% 증가하여 35.1%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으며, 가구주 연령에 있어서도 2010년에 40대 가구주의 비중이 가장 높았지만 2035년에는 가구주 연령 60대 가구가 전체의 22.5%를 차지하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이 또한 고령화로 인한 변화라 할 수 있다.

2.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인구구조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생애

주기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가설은 가구의 시기별 생애 주기가 가계소비 행태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가족 생애주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의 형성과 소멸까지에 이르는 가족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며, 가족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의 규모, 가계 소비 지출 규모 및 항목, 주거형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변한다. 일반적으로 가족 생애주기는 형성기(formation), 확장기(extension), 수축기(contraction), 소멸기(dissolution)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일생동안 평탄한 소비를 영위하고 싶어하며, 소득이 발생하는 중·장년기에 노년기를 대비하여 저축을 하기 때문에 노년기에도 일정한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된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은퇴 이후 노년가구의 소비가 줄어든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노년인구의 가계소비지출 구조를 예측하는데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생애주기가설을 기반으로 하여 가구의 소비지출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가상코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제3장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구조 변화

1. 가계지출구조 변화 동향

우리나라는 1990년대와 2000년대 가구주 연령별 가구 구성에 뚜렷한 변화를 겪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가구주 연령별 가계지출의 구조변화를 살펴보았다. 우리나

라 전체 가구 총소비지출은 비서비스부문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지출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했다.¹⁾ 1990년의 비서비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지출비중은 각각 55.4%와 31.6%로 나타났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서비스부문의 지출비중이 비서비스부문을 추월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가계소비지출 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비중의 크기는 점차 줄어들고 있다. 이 외에도 음식·숙박, 교통,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연도별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을 살펴보면, 1990년에 30.6%를 차지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비중은 2012년에는 17.6%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 엥겔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012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음식·숙박(12.7%), 교통(11.6%)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여행 및 외식의 증가와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로 인한 차량구입비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비용 등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예상된다. 그 외에 통신의 지출비중은 2012년 6.7%로 1990년 대비 2.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보건,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역시 1990년 대비 2012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계의 서비스 지출비중이 1990년대 51.9%에서 2000년대

1) 본 연구에서 분류한 비서비스부문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 5개 품목이며, 서비스부문은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 7개 품목이다.

61.8%로 증가함에 있어 통신, 교통, 음식·숙박부문의 기여율은 각각 40.1%, 22.5%, 2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보건, 오락·문화부문은 상대적으로 기여율이 작거나 음(-)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2.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생애주기가설에 의하면 가구주 연령에 따라 가족 생애주기가 변하게 되고 이로 인해 가계소비지출이 변한다. 우리나라의 가구주 연령별로 품목별 가계지출비중을 보면, 가구주 연령 20대 가계는 비서비스부문에서는 의류 및 신발, 서비스부문에서는 음식·숙박, 교통, 통신, 오락·문화부문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대 가구주 서비스 가계소비지출을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90년대 전체 가구 평균의 0.4%를 상회하는 데 반해 2000년대에는 전체 가구 서비스지출비중 대비 1.7%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 20대 가구의 서비스부문 가계지출비중이 다른 연령대 가구주 가계지출보다 늘어난 것을 알 수 있다.

2000년대 30대 가구주 가계의 서비스부문 평균 지출비중은 가계소비지출의 64.3%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90년대와 비교해 13% 상승한 수치이다. 30대 가구주의 가계소비지출은 20대 가구와 마찬가지로 비서비스부문에서는 의류 및 신발, 주요 서비스부문에서는 음식·숙박, 교통, 통신, 오락·문화부문의 가계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 가계지출패턴 중 특징적인 사항은 교육부문에 대한 비중이 20대 가구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가구주 연령 40대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내 서비스부문 비중은 90년대 53.8%에서 2000년대 65.9%로 12.1% 포인트 상승하였다. 품목별로 40대 가구주 가계지출은 서비스부문과 비서비스부문 대부분에서 전체 가구 평균지출 수준보다 낮지만, 교육비 지출비중은 전체 가구에 비해 4.1%나 높았다. 즉 가구주 연령 40대 가구는 다른 품목에 대한 지출을 줄여 교육비에 사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가구주 연령 50대 가구의 전체 가구지출 중 서비스부문 지출비중은 90년대 53.2%에서 2000년대 61.9%로 8.7% 포인트 상승했다. 50대 가구주 품목별 가계지출 비중은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지출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가구주 연령 60대 이상의 가구는 전체 가구지출 중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90년대 45.9%에서 2000년대 52.8%로 6.9%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다른 연령대에 비해 서비스부문 지출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건관련 지출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은 특성을 보였다.

3. 가구 형태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가구형태를 기준으로 노인가구, 맞벌이가구, 여성가구주 가구의 가구 형태별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살펴보았다. 그 결과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노인가구주 가구의 서비스부문의 가계지출은 전체 가계지출의 44.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전체 가구와 비교해 17.5% 포인트 낮은 수준이며, 90년대 노인가구주 가구의 서비스부문 가계지출과 비교해 1%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전체 가구지출과 비교해 품목별로 비서비스부문에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12.6%)와 주거 및

수도·광역비(6.3%)의 지출비중이 높았으며, 서비스부문에서는 보건비(9.4%)가 전체 가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가구 지출비중에 비해 높았다.

맞벌이가구 가계소비지출의 경우, 서비스부문이 전체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6.4%로 전 가구와 비교해 3.6% 포인트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 90년대 맞벌이가구와 비교해 가계소비 내 서비스부문의 지출은 약 3.2% 포인트 증가하였다. 품목별로는 교육,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이 높았으며, 전 가구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의 가계소비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가사노동의 일부를 외부 서비스를 통해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계지출 내 서비스부문 가계지출비중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2000년대 가계소비지출에서 서비스부문이 차지하는 비중은 59.8%로 전체 가구 대비 2.1% 포인트 낮았다. 90년대와 비교해 3.0% 포인트 증가한 수치이다. 품목별로는 교통비와 음식·숙박비 지출 비중이 높은 편이다.

제4장 우리나라 가계의 서비스 소비지출패턴 분석

1. 연구의 배경

본 장에서는 Price-Scaling AIDS 모형을 이용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품목별 소비 특성 차이와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2000~2012년까지의 13년

간의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2. 분석모형 및 자료

(1) 기본적인 AIDS 모형

합리적 소비자 행동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AIDS 모형은 이론적 견고함뿐만 아니라 대표적 소비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간 총합을 허용하는 선호의 부류로부터 도출된 수요체계이다. 따라서 AIDS 모형은 소비자최적화 이론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와 단순히 단일방정식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보완해 줄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의 형태를 따른다. 이런 AIDS 모형의 기본 모형은 다음과 같다.

$$\begin{aligned}
 w_i &= \alpha_i + \sum_{j=1}^n \gamma_{ij} \ln p_j + \beta_i (\ln y - \ln P) \\
 P &= \alpha_0 + \sum_{i=1}^n \alpha_i \ln p_i + \frac{1}{2} \sum_{j=1}^n \sum_{i=1}^n \gamma_{ij} \ln p_i \ln p_j
 \end{aligned} \tag{1}$$

식(1)에서 w_i 는 i 품목의 지출 비중, p_i 는 i 품목의 가격, y 는 총지출액(소득액), P 는 가격지수를 의미하며, $(\ln y - \ln P) = \ln \frac{y}{P}$ 는 총지출액을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deflate)시킨 실질 지출액 혹은 실질 소득이다.

(2) Price-Scaling Almost Ideal Demand System(PS-AIDS)

소비지출의 상품별 구성은 연령, 세대, 소득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

계학적(demographic) 특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이 각 상품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모형에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ice-Scaling 방식을 따르는 AIDS 모형(이하 PS-AIDS)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이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w_i = \alpha_i + \sum_{j=1}^n \gamma_{ij} \ln p_j + (\beta_i + \boldsymbol{\eta}'_i \mathbf{z}) \ln \left\{ \frac{y}{m_0(\mathbf{z}) a(\mathbf{p})} \right\} \quad (2)$$

(3)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분석을 위하여 5개의 비서비스(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와 7개의 서비스(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품목을 고려하였다. 가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mathbf{z})으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가구구성원 수, 학령구성원 수, 가구주 성별, 맞벌이가구 여부, 가구주 자영업자 여부, 가구주 무직 여부, 가구주 연령, 가구주 출생연도(세대)를 포함하였다.

3. 분석결과

PS-AIDS 탄력성 추정결과 분석된 주요 연구 결과를 서비스 지출품목별 탄력성 추정치를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은 모든 품목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려된 모든 품목이 정상재(normal good)임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품목들이 비서비스 품목들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변화에 보다 민감하며, 앞으로 소득 증가 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다. 가격탄력성의 경우에는 주거 및 수도광열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의 자체 가격탄력성 값이 음(-)의 값을 가져 이론과 부합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보건, 통신,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교육에 대한 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임이 확인되었다.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소득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보면, 첫째, 연령대별 소득탄력성의 경우 비서비스 품목들이 대부분 연령별 소득탄력성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과 달리, 서비스 품목들은 연령별 소득탄력성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비서비스 품목들에 비해 전체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의 경우 가구주 3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품목 중에서 가장 큰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탄력성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세대별 소득탄력성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비서비스 품목들의 세대별 소득탄력성 변화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과 달리, 서비스 품목들의 세대별 소득탄력성은 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과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품목들의 세대별 소득탄력성은 대부분 1 이상으로 나타나 소득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과 교육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연령대별로 뚜렷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

는 취학 자녀를 둔 30대 후반에서 50대 가구주 가구의 지출구조는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상당부분을 여타 품목에 대한 지출을 유보한 채 교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유보 지출 중 보건에 대한 지출 유보의 정도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소득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즉 소득 1분위에서 소득 5분위로 갈수록 소득탄력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목들은 보건과 통신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교육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매우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져 소득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가구구성원 수별로 보면 서비스 품목의 탄력성이 비서비스 품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서비스와 서비스 품목 모두에서 가구구성원 수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령구성원 수의 경우에도 가구구성원 수에서의 소득탄력성의 변화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탄력성은 구성원 수가 늘수록 그 크기는 증가하여 3명 이상인 경우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통,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의 소득탄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추가소득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에 쓰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섯째, 가구주 성별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소득의 크기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소득탄력성의 크기의 차이가 비서비스 품목과 서비스 품목 모두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

다. 즉,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탄력성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신 음식·숙박의 탄력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 맞벌이가구와 남성가구의 경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가계지출 품목별 지출비중의 변화에 대한 양상을 분석한 결과, 가구구조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특성들은 가계지출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구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연령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의한 맞벌이 및 여성가구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변화는 의·식·주와 관련된 비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가계지출구조에서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소비지출의 구조변화는 가구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이 서비스 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는 관련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한 자녀 수 감소, 이로 인한 전형적인 4인가구에서 2인가구로의 빠른 전환, 이혼율 및 독신인구 증가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 등으로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외식관련 서비스, 오락·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

악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한 공급 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제5장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수요 변화 분석

1. 연령변화와 소비지출 변화 추이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코호트(Cohort) 분석을 이용하여 연령대별 소비패턴 분석을 수행하였다. 미시 서베이 소비지출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활용하여 소비변화를 분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생애주기(life cycle) 소비모형을 사용하였다.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대별 소비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미시 서베이 소비지출자료의 소비 수준을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이러한 생애주기(life cycle) 소비모형을 바탕으로 실증모형을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장기간의 패널자료가 요구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순수한 패널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개별가구의 시계열적 특성을 반영한 패널분석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코호트(cohort) 분석을 이용한 가상패널자료(pseudo-panel data) 구축과정이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1990~2012년의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연령, 성별, 교육수준 등 다양한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23년간 가상패널자료(pseudo-panel data)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가상패널자료를 바탕으로 소득 및 소비지출 변화 추이를 살펴보면, 30세 이하 청년기에는 소득과 소비지출이 상대적으로 적지만 연령이 늘어날수록 증가하다 55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은퇴한 노년층(60세 이상)이 되면 지출이 감소하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였다. 은퇴시점이 빨라지고 있는 2000년대에는 소득이 최대가 되는 연령과 소비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1990년대에 비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2. 품목별 생애 소비지출 추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연령별 소비구조의 특징을 12개 지출 품목별로 살펴보았다. 그 결과 식품 및 비주류음료는 1990년대와 비교해 2000년대 전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 들었다. 다만 60대 이상의 노년가구 가계지출에서만 20% 이상의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주류 및 담배가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과거에 비해 줄어들고 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주 가계까지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다가 50대 가구주 가구부터 전체 가계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어나는 양상을 보였다. 의류 및 신발의 가계 소비지출 내 지출비중은 1990년대와 2000년대 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다만 의류 및 신발은 연령대별로 차이를 보였는데, 30대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40대 들어 줄어들었다가 50대 가구주 가구에서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40대 가구의 교육비 부담이 증가하면서 의류 및 신발 지출 비중이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필수재 성격이 강한 주거 및 수도·광열비는 30세 이하 연령층 가구

와 55세 이상 고령층 가구 내 지출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보건서비스 가계지출 비중의 경우, 30세 이하 가구와 50대 이후 가구에서 높은 가계소비지출 비중을 차지하여 전체적으로 가구주 연령별로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교통서비스와 통신서비스 지출의 경우 전 연령에서 과거에 비해 가계소비지출 내 비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교육서비스 지출의 경우 40대 연령대 가구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었다. 음식·숙박 서비스 지출의 경우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들어와 지출비중이 증가했으며, 연령별로는 40대 가구의 가구 내 지출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가계 서비스소비지출에 대한 연령-세대-연도 효과분석

(1) 가계소비지출 분해

특정 한해의 횡단면 가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계소비지출의 연령 코호트별 패턴에는 연령의 차이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와 연도효과(year effec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연령별 소비패턴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가계 지출의 연령 코호트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대효과와 연도효과를 제거해야 순수한 연령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때문에 순수한 연령별 가계소비지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연령-세대-연도 효과를 분해하여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연령효과(age effect), 세대효과 혹은 출생집단효과(generation effect or cohort effect), 연도효과(year effect)로 분해하여 가계지출의 패턴

이 연령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EX_{i,t} = \beta_0 + A_j\beta_1 + C_k\beta_2 + Y_t\beta_3 + \epsilon \quad (3)$$

$EX_{i,t}$ 는 t 년도 i 번째 가구의 품목별 지출액, A_j 는 j 번째 연령대 더미(8개), C_k 는 k 번째 코호트(세대) 더미(10개), Y_t 는 t 연도 더미(23개)를 의미한다.

식(3)은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로부터 도출되는 가구 소비지출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일정 세대별 선호, 연령별 선호 그리고 경기변동이나 소득 및 가격 등의 경제적 변수 등의 연도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모형이다. 위의 식 추정에는 조사연도와 가구주 연령을 알게 될 경우 가구주 출생 연도(세대 코호트)를 자동으로 알게 됨에 따라 각 더미변수에서 1개씩을 제외할 경우엔 추정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Deaton(1997)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 연령 및 출생연도(세대) 더미는 1개씩을 제외(30세 이하, 1940년 이전 세대)하고, 연도 더미 생성에 있어서는 첫해와 두 번째 해에 대응하는 더미변수는 제외한 후 나머지 연도 더미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더미생성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²⁾했다.

$$D_t = d_t - (t-1)d_2 - (t-2)d_1 \quad (4)$$

가구단위 소비지출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2) 여기서 d_1, d_2 는 첫해와 두 번째 연도에 대응하는 더미.

가구원 수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아래와 같은 균등화지수를 이용하여 조정된 등가소비지출액(E_i)을 산출하였다.

$$E_i = \frac{x_i}{(S)^\theta} \quad (5)$$

여기서 x_i 는 i 번째 가구의 품목별 지출액, S 는 가구원 수, θ 는 균등화지수, $\theta=1$ 은 가구원 1인당 지출, $\theta=0$ 은 가구당 지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heta=0.5$ 를 대입하여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균등화하였다. 식(5)의 계산 시 품목별로는 가구 소비지출액이 0인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하였다.

(2) 분석결과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가구의 총지출모형을 추정한 결과 연령-세대-연도효과가 가계지출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효과 또는 연령효과에 의한 가계소비지출패턴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연도효과의 그것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비스부문별 연령효과는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50대 후반 연령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품목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역 U자형 패턴이 확인되었다.

셋째, 세대효과의 경우 또한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세대가 젊을수록 품목별 소비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효과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서비스지출 품목에서 55~59세 연령대까지는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지출의 변화는 소득 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연도효과는 전체적인 가구소득 증가로 1990, 1991년 대비 가구의 서비스부분의 소비지출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연령별로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특정 연령대의 가계에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특히 40대 가구의 교육비 비중과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보건서비스(의료비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연령대별 특수성에 기반을 둔 정책방향 설정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먼저, 40대 가계의 경우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여타 지출의 여력이 줄어든 상황에서 교육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말 기준 40대 가구주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19.3%로 전체 가구 평균인 12.3%에 비해 7.1%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의 비중은 전체 가계소비지출의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의 8.8%에 비해 무려 5%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중 공교육비는 6.3%에서 5.5%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40대 가구주 가계의 소비

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과다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학원비 책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행에 중점을 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60대 고령층에서의 보건서비스 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중심의 의료정책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의료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의료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보건의료비 지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 관련 질병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요자 간 진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건 및 의료관련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여 의사와 환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내수시장의 양적 성장은 인구증가를 담보로 한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 나라의 소비시장 증가율을 둔화시키며 결국에는 경제 규모 자체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지속된다면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체질개선, 이와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우리나라는 급격한 저출산·고령화를 겪고 있지만 여타의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선진국들과 비교해 정책적 준비가 상대적으로 미흡해 추후 경제성장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체질개선과 관련 정책의 재검토가 신중히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분야가 서비스부문 지출이라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서비스부문에 대한 시장 확대는 내수시장 축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상쇄시킬 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의 확대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 부담률과 고용 창출 능력이 월등히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소비주체인 가계소득과 직접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 확보의 계기를 만들 것이다. 따라서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 확장성을 담보하는 요인을 식별하여 그에 걸맞는 대응 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할 것이다.

제1장

서론

1. 연구 필요성

최근 세계 주요 국가의 관심사는 인구구조 변화가 유발하는 다양한 사회적 또는 경제적 문제에 대처하는 것에 모아지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사회·경제 전반에 미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저출산과 고령화는 여성의 사회진출과 늦은 결혼, 가족에 대한 가치관 변화로 인한 출산을 저하와 의학의 발달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인한 기대수명 연장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이러한 저출산·고령화 경향은 단순히 인구구조 변화로의 의미뿐만 아니라 경제적 측면에서 볼 때 한 나라의 성장잠재력과 국가 재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즉, 저출산·고령화는 경제활동 인구의 감소로 이어져 장기적인 성장잠재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아울러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의 증가는 연금 및 보건의료 등에 대한 국가 재정지출의 증가와 조세

및 사회보장기금을 부담하는 청장년층 인구 감소와 맞물려 국가의 재정 부담을 가중시켜 장기적으로 경제성장을 저해하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저출산·고령화는 수요측면에서도 영향을 미쳐 재화와 서비스 구매에 있어서도 과거와는 다른 구매패턴의 변화를 초래한다. 이러한 소비지출 패턴의 변화는 산업별 미래 성장성과 잠재적 시장의 확장가능성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여기서 우려할 만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가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에서 2017년 14%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독일이나 일본의 경우와 비교해도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우리나라의 가구구성 형태 역시 소득의 증가, 평균적인 교육수준의 향상,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의 증가 등으로 인하여 급격히 변화하고 있다. 특히, 가구구성원 수에 있어 전통적인 4인가구는 급속히 줄어드는 대신 1인가구의 증가가 눈에 띄게 늘어나고 있다.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1990년에는 9%에 그쳤으나 2010년에는 24%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으며, 맞벌이가구, 부부가구의 증가 역시 최근에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³⁾

이와 같은 인구구조의 빠른 변화는 우리나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전방위에 걸쳐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히, 가계의 소비지출패턴 변화와 같은 수요측면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인구관련 정책은 공급측면에서 받게 되는 영향을 해결하는

3) 보다 자세한 가구구조 변화에 대한 사항은 다음 장을 참조.

데에 중점을 두고 이뤄져 왔으며 수요측면에서의 정책은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뤄져 왔다. 그러나 인구구조의 급속한 변화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가계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예측하는 것은 단순히 가구수준(household level)에 미치는 영향을 판별하는 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의 확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중요한 정책변수로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와 같은 수요측면에 대한 통계 및 실증 분석을 통한 심층적인 연구에 대한 필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다 하겠다.

2. 연구목적 및 방법

최근의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가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대응 방안을 제시한 기존 연구들은 인구구조 변화가 요소의 투입 규모 혹은 증가율에 미치는 영향, 총량적 수준에서의 소비, 저축, 재정 등의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과 같은 공급측면에 미치는 효과에 주된 관심을 두고 있다. 하지만 인구구조의 변화는 공급측면뿐만 아니라 수요측면, 즉 가구의 소비지출 행태에도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일반적으로 가구별 소비지출패턴은 가구구성 형태 및 연령과 같은 인구·통계학적 변화에 따라 상당히 차별적으로 나타나게 되며, 이는 곧 전체 가구의 소비지출 품목의 구성비의 변화를 유발시킨다. 예를 들어,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급격한 감소는 기존의 교육서비스

수요에 변화를 가져오며, 고령화로 인한 노인인구 증가는 보건 및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킬 가능성이 높아지는 등 과거와는 다른 수요구조 형태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같은 수요측면에서의 변화는 결국 산업 전반에 걸친 영향으로 확산되게 된다. 이처럼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된 현상학적 요인들의 변화가 뚜렷이 관찰되고 있지만 인구구조 변화가 소비수요의 변화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구조 변화의 행태에 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크게 다음의 세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 ①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및 가계 소비구조 특징 분석
- ② 가구 특성별 소비지출패턴 분석
- ③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지출패턴 변화 분석

본 연구에서는 가구구조 변화가 가계의 소비지출패턴에 미치는 영향 및 특정 서비스 수요에 어떠한 영향을 야기하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특정 지출품목에 대한 개별적 수요분석 대신 가계의 지출구조를 포괄적인 시스템 속에서 분석하는 수요시스템(demand system) 방법을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검토한다. 특히, 가계소비지출함수 추정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수를 고려한 모형을 이용하여 연령별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지출구조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구구성원 수 및 학령구성원 수의 변화, 여성가구주 및 맞벌이가구의 증가와 같은 수요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을 동시에 고려한다.

또한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기반으로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연령대별 소비패턴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는 거의 수행되어 오지 않았던 코호트(cohort) 분석기법을 이용한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기존의 가계소비 관련 연구가 가구구성원의 특성 변화에 초점을 두고 있어 세대 간 소비패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이 어려운 한계점을 보완하게 된다.

본 연구는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발표하고 있는 12개 가계지출 품목을 대상으로 한다. 「가계동향조사」는 매월 전국의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되는 대표적인 가구소득조사로 전국의 9천여 가구를 조사대상으로 하여 가구주의 특성, 가구의 수입 및 지출, 가구구성 및 주거의 특성을 조사한다.

가계조사의 소득과 소비 항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구소득은 경상소득과 비경상소득으로 구성되며, 경상소득은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으로 구성된다. 가계지출은 소비지출과 비소비지출로 구성되며, 소비지출은 식료품 및 비주류, 주류·담배,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의류·신발, 보건, 교육, 오락·문화, 교통, 통신, 음식·숙박, 기타상품·서비스 등의 12개 소비지출 항목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12개 소비지출 항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 주류·담배, 의류·신발, 주거·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 5

개 지출품목은 비서비스 지출로,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 7개 지출은 서비스 지출품목으로 구분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지출패턴 변화를 살펴본다. 보다 구체적인 소비지출 비목별 항목들은 <표 1-1>에 제시되어 있다.

〈표 1-1〉 「가계동향조사」 소비지출 비목별 항목

	세부 항목
식료품·비주류 음료	곡물, 곡물가공품, 빵 및 떡류, 육류, 육류가공품, 신선수산물, 연건수산물, 기타수산물가공, 유제품 및 알, 유지류, 과일 및 과일가공품, 채소 및 채소가공품, 해조 및 해조가공품, 당류 및 과자류, 조미식품, 기타식품, 커피 및 차, 주스 및 기타음료
주류·담배	주류, 담배
의류·신발	직물 및 의의, 내의, 기타의복, 의복관련서비스, 신발, 신발서비스
주거·수도· 광열	주거비, 주택유지 및 수선, 상하수도 및 폐기물처리, 기타주거관련서비스, 연료비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 및 조명, 실내장식, 가구·조명 및 장식서비스, 가정용 섬유, 가전 및 가정용기기, 가전관련서비스, 주방용품, 가정용공구 및 기타 가사소모품, 가사서비스
보건	의약품, 의료용 소모품, 보건의료용품 및 기구, 외래의료서비스, 치과서비스, 기타의료서비스, 입원서비스
교통	자동차구입, 기타운송기구구입, 운송기구유지 및 수리, 운송기구 연료비, 기타개인교통서비스, 철도운송, 육상운송, 기타운송, 기타교통관련서비스
통신	우편서비스, 통신장비, 통신서비스
오락·문화	영상음향기기, 사진광학장비, 정보처리장치, 기록매체, 영상음향 및 정보기기수리, 오락문화 내구재, 악기기구, 오락문화내구재 유지 및 수리, 장난감 및 취미용품, 캠핑 및 운동관련용품, 화훼관련용품, 애완동물관련용품, 화훼 및 애완동물서비스, 운동 및 오락서비스, 문화서비스, 복권, 서적, 기타인쇄물, 단체여행비
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학원 및 보습교육, 성인학원교육, 기타교육
음식·숙박	식사비, 숙박비
기타상품 및 서비스	이미용서비스, 이미용 기기, 위생 및 이미용용품, 시계 및 장신구, 기타개인용품, 사회복지, 보험, 기타금융, 기타서비스

본 보고서는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제1장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전망에 관해 살펴보고 더불어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한다. 제3장에서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연령별, 가구형태별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 구조 변화 추이를 점검한다. 이어지는 제4장에서는 가구구조 변화에 따른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을 분석하기 위해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한 가계소비지출함수를 추정하여 연령별, 가구 특성별로 비서비스와 서비스 지출 품목들의 가격 및 소득탄력성을 도출한다. 제5장에서는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가계지출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항상소득가설에 기반한 코호트(cohort) 자료를 구축하여 생애주기별 소득 및 소비지출의 변화 패턴을 검토하며, 더불어 품목별 생애소비지출을 연령-세대-연도효과로 분해하여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제6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 및 정책 방안을 제시한다.

제2장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및 선행연구

1.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 및 전망

인구구조는 집단이 갖고 있는 성별, 연령, 가족관계와 같이 타고난 특성뿐만 아니라 직업, 결혼, 소득 수준과 같은 사회, 경제학적 변수들을 포함한다. 최근 인구구조 변화 중 가장 주목할 만한 변화는 단연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가구원 수 축소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현상이 더욱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UN의 '2013 세계인구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 여성 1인당 세계 평균 출산율은 2010~2015년 연평균 2.5명으로 추산됐지만 한국은 1.3명으로 세계 평균과 비교해 절반 수준을 나타냈다. 반면 기대수명은 여성의 경우 85세(세계 3위), 남성의 경우 78세(세계 15위)를 나타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고령화는 다른 국가들과 비교해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0년 7%에서 2017년 14%를 차지할 것

으로 전망된다. 이는 빠른 속도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독일이나 일본과 비교해도 매우 빠른 수준이다.⁴⁾

고령화율에 있어서도 주요 선진국 및 BRICs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1990년 낮은 고령화 수준에서 급격한 속도로 고령화율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2-1〉 참조). 2030년 우리나라의 고령화율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의 고령화율을 나타냈던 중국을 훨씬 앞지를 것이며,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주요 선진국을 앞지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고령화와 함께 1인가구의 증가는 전 세계적인 메가트렌드로 꼽히고 있다. 2011년 현재 전 세계 1인가구 수는 약 2억 8000만 가구에 이르고 있으며 2001년 대비 30.1% 증가했다. 전 세계 1인가구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2020년에는 전 세계 가구의 15.7%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표 2-1〉 주요 선진국과 BRICs 국가들의 고령화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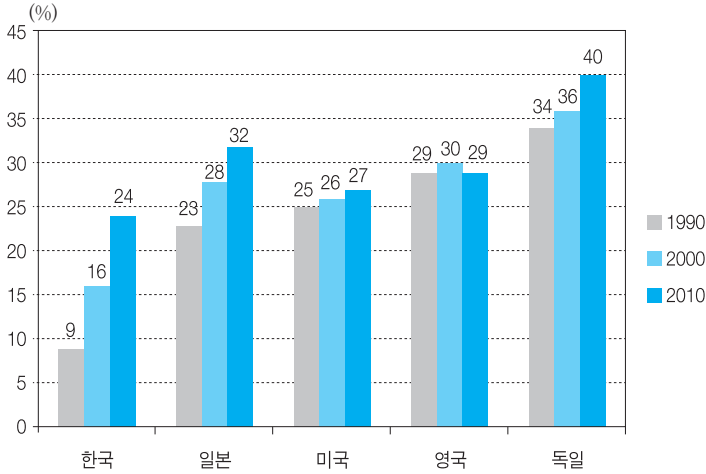
단위 : %

	한국	미국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	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1990	5.1	12.5	14.1	15.7	15.0	11.9	4.5	10.2	3.9	5.8
2000	7.2	12.4	16.1	15.8	16.3	17.2	5.5	12.4	4.4	6.9
2010	11.0	13.1	16.8	16.6	20.8	23.0	6.9	13.1	5.1	8.4
2020	15.7	16.1	20.3	18.9	23.1	28.6	9.5	14.8	6.3	11.7
2030	24.3	20.1	23.2	21.7	28.2	30.7	13.6	18.1	8.2	16.2

자료 : UN(2012), 세계인구전망 2012년판, 통계청(2011), 장래인구추계: 2010~2060.

4) 독일이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데 40년, 프랑스는 115년, 이탈리아가 61년이 소요되었다.

〈그림 2-1〉 국가별 1인가구 증가 추세



자료 : 통계청, Euromonitor, 산업연구원.

한편, 1인가구 증가 현상은 선진국일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다. 1인가구 숫자가 가장 많은 미국의 경우 1950년대 9%에 불과했던 1인가구 비중이 2013년 전체 가구의 28%를 차지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2010년 기준 전체 가구의 32%가 1인가구이며, 독일의 경우는 전체 인구의 40%가 1인가구에 육박하고 있다(〈그림 2-1〉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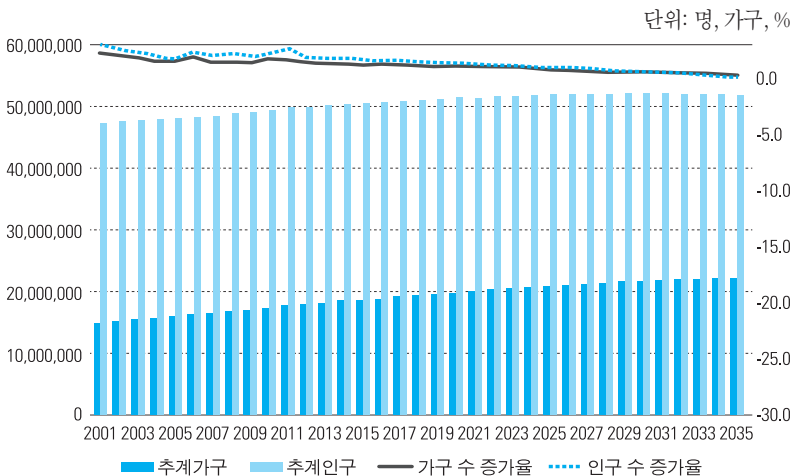
우리나라도 1인가구 증가율면에 있어 가장 빠른 국가 중에 하나로 확인되고 있다. 1990년 우리나라 전체 가구 중 1인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9%인데 반해 2010년에는 24%로 급격하게 늘어났다. 영국의 경우 동기간 증가율이 0%, 미국의 경우 2%, 일본의 경우 9%, 독일의 경우 6%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1인가구 비중은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전

체적으로 인구 수와 가구 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증가율은 둔화되고 있는 추세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꾸준히 증가하던 가구 수의 경우 2030년을 기점으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 인구구조 변화의 전 세계적인 특징인 인구 고령화와 가구원 수 축소로 인한 1인가구 증가는 우리나라의 가구구조 변화에도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과거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유형이었던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4인가구는 더 이상 우리나라 가구형태를 대표하는 유형의 위치를 상실하고 있다. 셋째, 여성의 높아진 교육수준과 활발한 사회진출,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한 여성 가구주의 증가 또한 주목할 만한 인구구조 변화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국내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을 살펴보기 위해 먼저 전체적인 총인구 수와 가구 수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2000

〈그림 2-2〉 가구 및 인구 증가(2001~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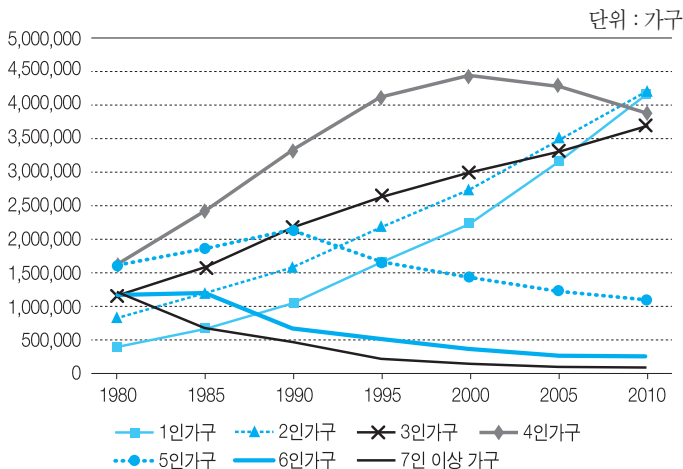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인구·가구추계(2013).

년 총추계인구는 47,008,111명에서 2012년 50,004,441명으로 5.99% 증가했다. 하지만 인구 증가율은 점차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어 2035년 국내 총인구는 51,888,486명으로 2012년 대비 3.63% 증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총가구와 가구증가율에 있어서는 2000년의 총가구는 14,507,010가구에서 2012년 17,950,675가구로 19.2% 증가하였으며, 2035년 국내 총가구 수는 22,260,603가구로 2012년 대비 19.4%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가구 수는 2012~2030년까지 꾸준히 증가하다가 2030년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그림 2-2〉 참조).

비록 국내 전체 가구 수는 줄어든 전망이지만 가구원 수별 가구구성에서 1인가구와 2인가구 수는 꾸준히 증가해왔으며, 이러한 증가추세는 앞으로 더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도별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변화를 보면, 꾸준히 증가하던 4인가구 수는 2000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그림 2-3〉 참조). 반면에 1인가구와 2인가구는 현

〈그림 2-3〉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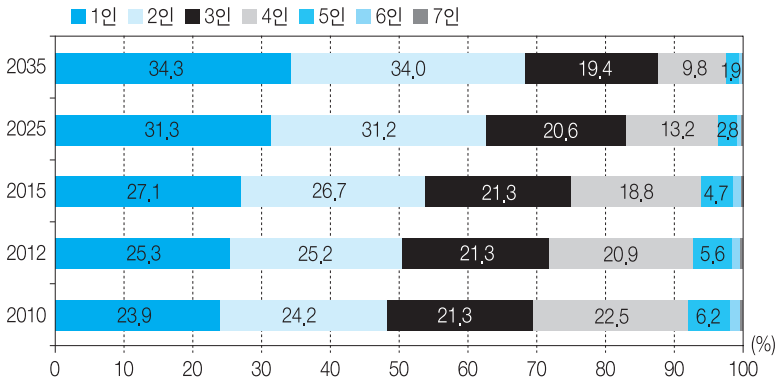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각 연도.

재까지도 꾸준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1·2인가구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가구형태가 되었다.

통계청의 장래가구추계(2012)에 따르면 가구원 수별 가구 수 비중은 2010년의 경우 2인가구 24.2%, 1인가구 23.9%, 4인가구 22.5%, 3인가구 21.3%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3인 이하 가구는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4.3%, 2인가구 34.0%로 전체 가구의 68.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즉, 가구원 수별 가구 구성비는 2010년에는 2인가구의 비중이 가장 높고 1인가구, 4인가구, 3인가구 순이던 것이, 2012년 이후에는 1인가구 비중이 가장 높고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순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2035년까지는 1인가구는 연평균 13만 9,000가구, 2인가구는 연평균 13만 5,000가구가 증가하여 가장 많이 증가한 가구유형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림 2-4〉 장래 가구구조 변화 추이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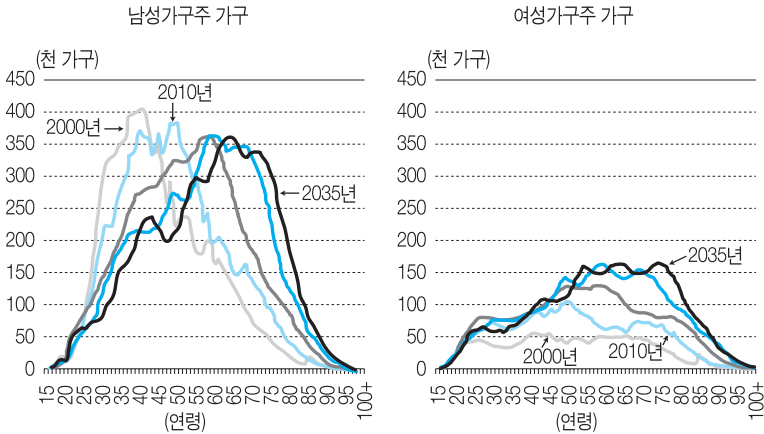
반면, 4인가구는 6만 9,000가구, 5인 이상 가구는 3만 4,000가구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를 대표하던 가구형태가 4인가구에서 1인가구로 변화하게 되는 경향은 더욱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우리나라 가구주 성별 및 연령 변화를 살펴보면, 남성 30~50대가 전체 가구주의 53.2%를 차지하고 있으며, 여성의 경우 연령대별로 4% 내외로 고르게 분포하고 있다. 특히 여성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체 가구주 중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에는 25.7%인데 반해 2035년에는 35.1%로 9.5%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여성의 교육수준 향상과 가치관 변화로 인한 여성 독신자 가구증가와 남성보다 높은 기대수명으로 인한 여성 독거노인 증가로 인해 이러한 경향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2010년 남성 가구주의 경우, 전체 남성가구주 가구 중 유배우 가구인 경우가 81.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반면, 여성가구주의 경우 사별 38.1%, 유배우 23.4%, 미혼 22.4%, 이혼 16.0%로 나타나 남성에 비해 노년 이후 홀로된 여성인구와 미혼으로 인한 여성가구주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연령대별로는 2010년 40대가 전체 가구주 중 25.6%를 차지하여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2035년에는 인구 고령화와 만혼으로 인해 가구주 연령층이 점차 고령화되어 60대가 22.5%로 연령대별 가구주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뿐만 아니라 가구주 중위연령 또한 2010년 48.8세에서 2035년 60.9세로 증가할 전망이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의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를 함께 살펴보면, 가구주 연령이 30세 이하인 가구의 경우 1인가구가 가장 높은 비중을

〈그림 2-5〉 성별, 연령별 가구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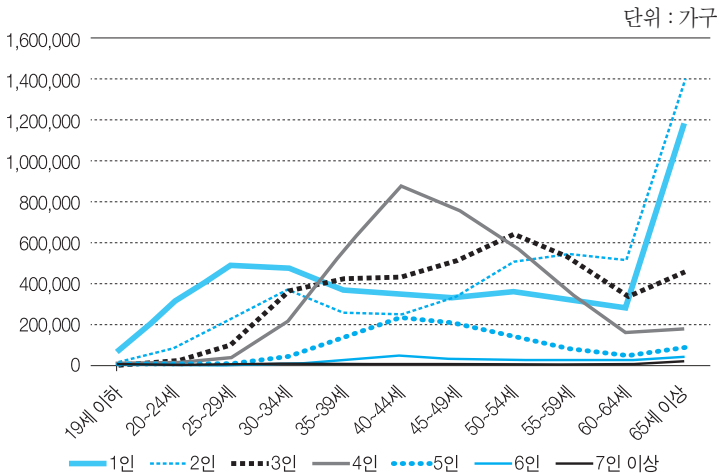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2).

차지한다. 이는 가치관의 변화로 만혼과 독신가구의 증가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2011년 평균 결혼(초혼) 연령은 남성이 31.9세, 여성이 29.1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이 40~49세 가구 경우, 4인가구의 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족 생애주기상 가족 형성기에 가구원 수가 급격히 증가하여 40~49세 사이의 확장기에 자녀 출산과 양육으로 인해 가족 구성원의 수가 정점을 이루기 때문이다. 연도별로 비교해 보면, 평균 가구원 수 감소의 영향으로 이 시기의 가구원 수가 1990년 4.4명에서 2010년에는 3.4명으로 줄어들었다(인구주택총조사, 2010). 가구주 연령이 50~54세인 가구에서는 2인가구와 3인가구가 가장 많은 수를 차지했다. 이들 가구의 경우 가족 생애주기상 수축기로 자녀의 독립으로 인한 가족 구성원 수가 줄어든 결과로 볼 수 있다.

〈그림 2-6〉 가구주 연령 및 가구원 수별 가구 수(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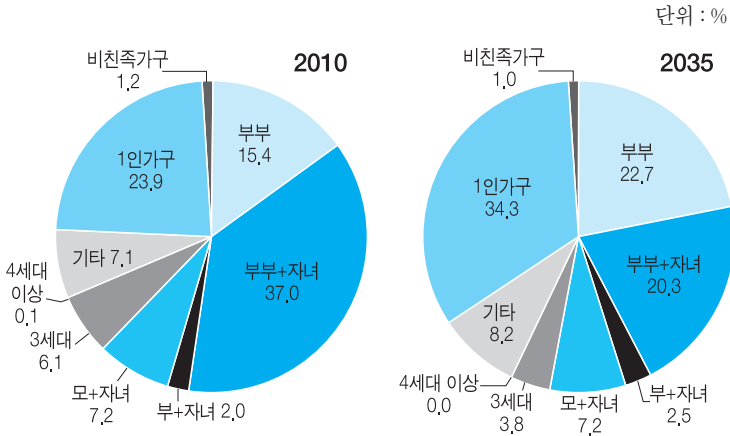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3).

가구주 연령별 가구원 수 비교를 통해 1인가구와 2인가구는 30세 이하 가구주 가구와 65세 이상 고령가구주 가구에서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만혼으로 인한 독신자 가구 증가와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가 1인가구 증가의 주요한 원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인구구조의 고령화로 인해 1인가구가 전체 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나라의 가구유형별 가구구조 변화를 살펴보면, 2010년 부부와 그들의 자녀로 이루어진 가구가 전체 가구의 37.0%로 가장 많고, 1인가구 23.9%, 부부가구가 15.4%의 순이었다. 그러나 2035년에는 1인가구가 전체의 34.3%, 부부가구가 22.7%, 부부와 자녀가구가 20.3%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특히, 1인가구는 전체 가구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가 예상되고 있다. 2010년 23.9%이었던 1인가구는 2012

〈그림 2-7〉 가구유형별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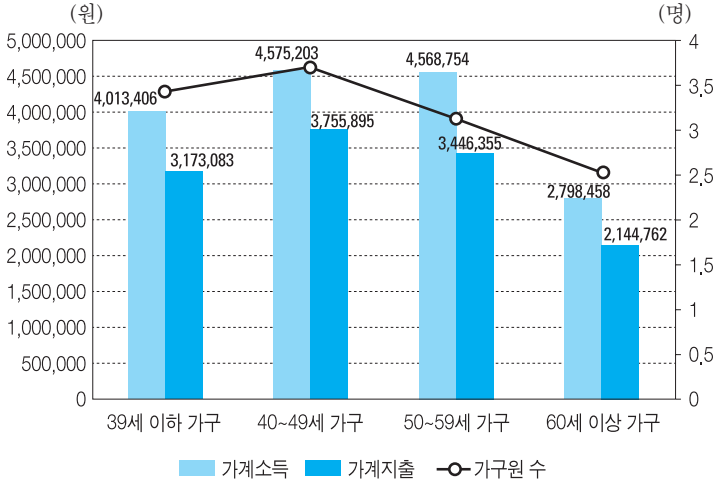


자료 : 통계청, 장래가구추계(2012).

년에는 전체 가구 유형의 1/4을 차지하는 25.2%로 증가하였으며, 2035년에는 10.3% 증가한 7,628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뿐만 아니라 이들 1인가구들 중에는 60세 이상 노년층의 1인가구 수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2035년에는 70대의 1인가구 수가 1,515만 3천 가구로 전체 1인가구의 19.8%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됐다.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 의하면 2012년 가계소득은 전년대비 5.8% 증가한 407만 6,876원으로 집계됐다. 가구주 연령별로는 40~49세 가구의 소득이 457만 5,203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50~59세 가구, 39세 이하 가구, 60세 이상 가구 순으로 높은 소득을 나타내었다. 전년대비 소득 증가율은 50~59세 가구가 7.8%로 가장 높은 소득 증가율을 나타내었으며, 40~49세 가구가 전년대비 6.3%의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40~59세 가구주는 소득의 증가율만큼 가계지출 증가율도 높게 나타났다. 40~4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전년대비 3.5% 가계지출 증가

〈그림 2-8〉 연령별 월평균 가계소득 및 지출(2012)



자료 : 통계청, 「가계동향조사」(2013).

를 나타내었으며, 50~59세 가구주 가구의 경우 4.5% 가계지출 증가가 나타났다. 가족 생애주기상 확장기에 해당하는 가구주 연령 40~49세 가구에서 소득과 지출이 모두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살펴본 우리나라 인구구조 변화와 전망을 종합해 보면 국내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가구원 수 축소 경향은 앞으로도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인구구조 변화는 전술한 바와 같이 가계 생애주기의 변화를 가져오게 되고, 가계 생애주기 변화는 가계의 전반적인 지출규모의 변화를 초래한다. 뿐만 아니라 이런 인구구조 변화들은 가계지출의 세부 품목의 변화를 유발한다. 다음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인 지출항목별로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구조 변화를 살펴본다.

2. 인구구조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선행연구

인구구조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생애주기가설에 기반을 두고 있다. 생애주기가설(life cycle hypothesis)을 바탕으로 한 가족 생애주기는 가족의 시기별 생애주기가 가계소비 규모 및 행태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하고 있다. 특히 가족 생애주기가설에 관한 많은 연구들은 은퇴 이후 노년가구의 소비와 저축, 구체적인 소비 품목 변화에 대해 검증하고 있어서,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고령가구의 가계소비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다.

가족 생애주기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가족의 형성과 소멸까지에 이르는 가족생활의 변화를 의미하며, 가족 생애주기에 따라 가족의 규모, 가계 소비지출 규모 및 항목, 주거형태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변한다. 일반적으로 가족 생애주기는 형성기(formation), 확장기(extension), 수축기(contraction), 소멸기(dissolution) 등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형성기는 결혼으로 부부가 가족을 형성하는 단계이며, 가족 확장기는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가족의 규모가 확대되는 시기이다. 수축기는 자녀의 독립으로 두 부부만 남아 가족이 축소되는 시기이며, 소멸기는 부부 중 한 명의 사망으로 가족이 소멸되는 시기를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가족 생애주기는 가구주의 연령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나(Seek, 1983), 최근 만혼과 기대수명 연장으로 인해 가족 생애주기가 조금씩 늦추어지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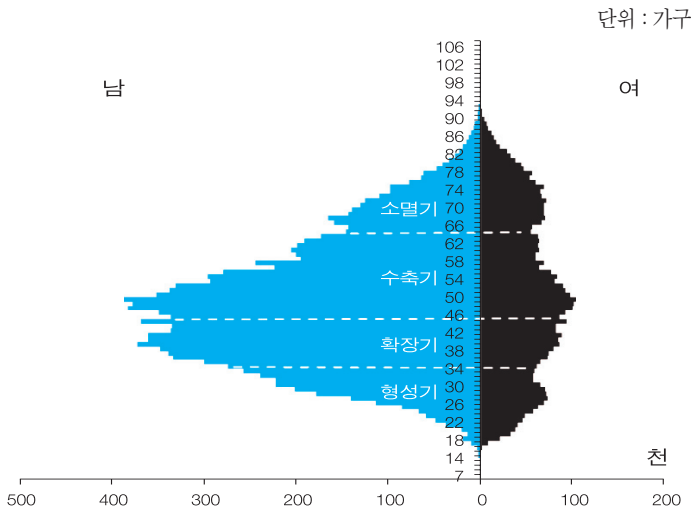
통계청 발표(2013)에 의하면 초혼연령과 첫 출산연령을 고려한 우리나라 가구의 가족 생애주기는 일반적으로 가구주 연령이 25~34세의 시기를 결혼하여 가족을 형성하는 형성기로 보고 있으며, 가구주

연령이 35~44세 사이인 시기에 자녀의 출산과 양육으로 가족이 확장된다. 가구주 연령이 45~64세 사이에 자녀의 독립으로 수축기를 맞게 된다. 그리로 65세 이후 배우자의 사망으로 소멸기를 맞게 된다.

이 발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족 생애주기별 가구 규모는 형성기(가구주 연령 34세 이하) 가구가 전체 가구의 16.2%를 차지하고 있으며, 확장기 가구(가구주 연령 35~44세) 23.8%, 수축기 가구(가구주 연령 45~64세) 42.2%, 소멸기 가구(가구주 연령 65세 이상) 17.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 생애주기 단계별로 가구들은 가계소득의 변화뿐만 아니라 가계지출의 변화를 겪게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전체 가계지출 규모뿐만 아니라 품목별 가계 지출 비중에도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고

〈그림 2-9〉 가족 생애주기 피라미드(2010)



자료 : 통계청 보도자료(2012) 재인용.

주 : 가구주 연령별 성별 가구 수, 인구주택총조사(2010) 10% 표본자료.

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처럼 가계지출 내 교육비 비중이 높은 경우, 자녀의 본격적인 교육이 시작되는 가족 확장기에 해당하는 시기에 다른 시기와 비교해 가장 높은 가계지출을 보인다. 통계청(2013) 발표에 따르면,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무렵부터 학원과 같은 사교육비 비중이 대폭 증가하여 교육비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전체 가계소비가 늘어나게 된다. 특히, 인구구조의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가족 생애주기 가설을 통한 고령인구의 가계소비 행동에 대한 연구들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생애주기 가설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노년인구의 가계소비와 저축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 있어서 노년가구의 가계소비를 잘 설명하고 있다.

생애주기가설은 개인의 소비와 저축행태가 개인의 소득뿐만 아니라 미래에 대한 예상이나 기대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 생애주기가설에 따르면 개인은 일생동안 평탄한 소비(smoothing consumption)를 영위하고 싶어한다. 따라서 소득이 없는 청년기에는 거의 저축을 하지 못하지만, 소득이 발생하는 중·장년기에 소득이 없는 노년기를 대비해 저축을 하게 되고, 은퇴 후에는 은퇴 전에 저축해 놓은 예금을 인출하며 소비수준을 유지하게 된다(그림 2-10) 참조).

생애주기가설은 최근까지도 다양한 데이터들을 이용해 꾸준히 검증되어 왔다. 그러나 실증분석 결과들을 보면 고령인구의 총소비 수준의 변화가 기존의 생애주기가설과 상반되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는 연구들 또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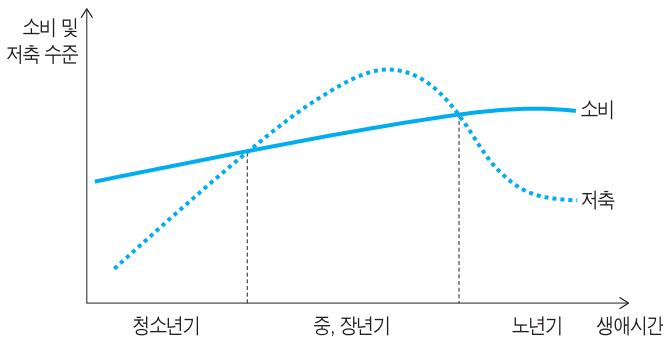
Luhrmann(2005), Erlandsen & Nymoen(2008)의 연구 등에서는 생애주기 가설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일반적으로 은퇴 이후 부의 수준

이 감소하게 되어 저축이 줄어들게 된다. 하지만 총소비에 있어서는 은퇴 이전이나 비노년층과 비교해 차이를 보이지 않게 된다. 이를 생애주기 지속 효과(life-cycle consistent effect)라 한다.

그러나 많은 연구들(Danziger *et al.* 1983; Bank, Blundell & Tanner 1998; Berheim, Skinner & Weinberg 2001; Hurd & Rohwedder 2003)에서 생애주기가설의 주장과는 반대로 은퇴 후 불연속적 소비 변화가 일어났다. 이 연구들에서는 이런 현상을 '퇴직-소비 퍼즐(retirement-consumption puzzle)'이라 지칭하며 이러한 현상에 대해 다양한 해석을 제시하였다.

Bank, Blundell & Tanner(1998)의 연구에서는 영국의 은퇴 후 가구들이 소비 지출액을 줄이는 것을 보여주고,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이유가 은퇴 시 발생한 예상치 못한 충격(unexpected shocks)의 결과라고 해석했다. 즉, 은퇴 후 갑작스러운 부의 감소를 경험한 가구들이 소비 지출을 줄이는 것이다. Berheim, Skinner & Weinberg(2001)의

〈그림 2-10〉 생애주기가설에 따른 개인의 소비와 저축



연구에서도 가계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을 제안하고 은퇴 후 총소비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여기서는 개인들의 미래 예측의 비합리성과 이로 인한 비계획적 자산 축적 경향 때문에 은퇴 후 소비감소가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Danziger, Gaag, Smolensky and Taussing(1983)의 연구에서는 생애주기가설을 바탕으로 비노인과 노인인구의 저축과 소비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소득이 일정할 때 노인들의 한계소비성향은 비노인에 비해 낮고 저축은 오히려 증가한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 Danziger 등은 표본의 편중(selection bias)의 가능성과 노년인구가 더 합리적인 소비를 하기 때문에 소비성향이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제시했다. Smith(2006)는 은퇴자의 20%는 비자발적 은퇴자이며 이런 비자발적 은퇴자의 식료품비가 7~11% 감소한 것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은퇴 후 소비 감소는 은퇴 후를 대비한 저축을 충분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일 수 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노년가구의 소비규모에 대한 상반된 결과들은 국가별 최근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한 분석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1년 미국의 CES(Consumer Expenditure Survey) 자료의 결과에서는 25~54세 비교적 젊은 층의 평균소비가 소폭 감소한 반면 고령층의 소비는 완만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생애주기가설과 유사한 방향성을 나타냈다. 그러나 2011년 우리나라의 「가계동향조사」에서는 가구주의 나이가 50대와 60세 이상인 가계의 경우 소득이 증가해도 소비지출은 오히려 축소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40대 이하의 가계의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과는 대비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결과들을 통해 인구고령화가 진행된다고 해서 반드시 노

년가구의 소비 규모가 생애주기가설의 예측대로 유지된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오히려 노년가구의 소비 규모 변화 못지않게 미시적인 소비 행태의 변화 양상을 살펴봄으로써 노년가구의 가계지출에 대한 구체적인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고령화는 가계의 소비규모 뿐만 아니라 품목별 가계소비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생애주기 가설과 같이 은퇴 이후 가계 총소비 규모가 일정하다고 주장하는 연구들에서도 품목별로는 수요 변화가 은퇴 이전과 다르게 발생하는 것을 보여준다. Luhrmann(2005)의 연구에서도 독일의 노년층의 총소비 규모는 은퇴 전과 큰 변화가 없지만, 구체적인 소비행

〈표 2-2〉 노년인구의 퇴직 후 총소비 변화에 관한 주요 연구

총소비 일정		총소비 변화	
연구	주요 결과	연구	주요 결과
Ando & Modigliani(1963)	생애주기 동안 소비 평활화 (consumption smoothing) 발생	Bank, Blundell & Tanner(1998)	은퇴 후 실제 총소비 3% 감소
Melanie Luhrmann(2005)	총수요 변화에는 차이가 없음	Berheim, Skinner & Weinberg(2001)	은퇴 후 소비수준 평균 14% 감소
Hurd & Rohwedder (2008)	은퇴 전후의 소비간의 유의한 차이 없음	Danziger, Gaag, Smolensky & Taussing(1983)	노년층이 비노년층 보다 한계소비성향이 낮음
Erlandsen & Nymoen(2008)	총소비에서 생애주기 일관성 효과 나타남	Hurd & Rohwedder(2003)	소비 12~17% 감소, 기대와 실제 소비 감소 거의 일치
		Haider & Stephens(2004)	은퇴 시 총소비 7~11% 감소
		Laitner & Silverman(2005)	은퇴 후 소비 16% 까지 감소

태를 살펴보면 재화와 서비스의 품목별로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변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식·음료와 에너지에 대한 수요는 감소하는 반면 보건, 의료 및 여가 부분의 소비 지출은 오히려 증가하였다. Hurd & Rohwedder(2008)의 연구에서도 은퇴 전·후의 총소비의 변화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은퇴 후 음식과 비내구재의 소비는 0.5~3.6%까지 감소하였다. Hurst(2008)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노년층의 가계 소비를 분석해 보면 식료품, 교육비, 피복비의 소비는 감소하지만 문화비와 의료비의 소비는 은퇴 이전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윤재호와 김현정(2011)의 연구에서는 은퇴 후 가계소비지출이 약 9% 정도 감소하며, 소비품목별로 대중교통비, 피복비 등 기타소비(14.1%)와 차량유지비(21%) 지출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직업을 유지하기 위한 지출 감소가 은퇴 후 소비감소의 주요인인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진면 외(2012)의 연구에서는 고령화에 따라 식·음료의 소비지출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서비스 부분의 수요가 증가할 것을 전망했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들을 통해 인구 고령화가 가속화될수록 기존의 식·음료, 에너지와 같은 필수재의 가계소비 지출이 줄어들고, 보건, 의료 및 레저 서비스에 대한 가계소비지출 비중이 늘어날 것을 전망할 수 있다.

생애주기가설이 연령에 따른 가계소비의 반응을 설명하고 있다면, 가구형태나 특성이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연구들은 1인 가구 증가나 맞벌이가구 증가 가구 형태의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고 있다. 가령, 황수경(2012)의 연구에서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지고 1인가구가 증가함으로써 기존에 가계생산이 시장화(marketization of household production)되어 가사 서비스, 의

료비, 교육훈련비 수요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Kalwij & Salverda(2007)의 연구에서는 맞벌이부부가 증가하고, 어린 자녀를 가진 여성의 사회진출이 활발해짐에 따라 식·음료품 소비가 줄어들고, 가사, 육아 돌봄 서비스, 개인 건강관리 서비스, 오락비가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아직 국내·외 많은 연구들에서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서비스 수요 변화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연구는 많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 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한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고령화나 성별과 같이 단일 차원에서 논의되었던 인구구조의 변화를 연령, 가구 특성, 가구 수입 등의 다양한 변인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상학적 설명력을 높일 뿐만 아니라 인구구조가 수요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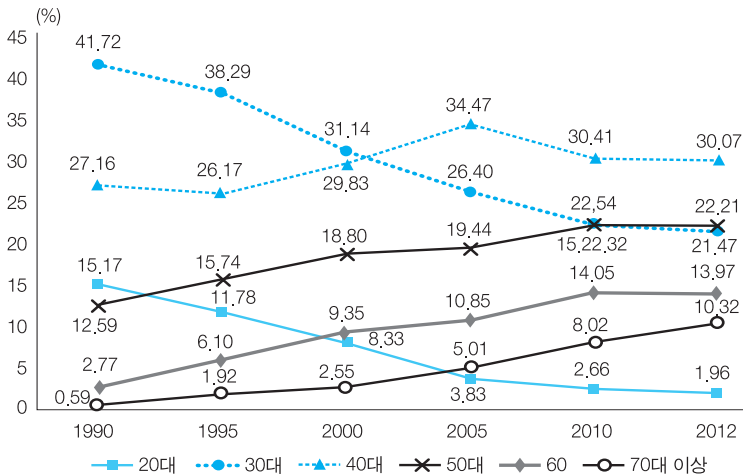
제3장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구조 변화

1. 가계지출구조 변화 동향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연령별 구성비를 살펴보면, 1990년에 41.7%를 차지하여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 30대는 점차 감소하여 2012년에는 21.5%로 감소하였다. 반

〈그림 3-1〉 가구주 연령별 비중 변화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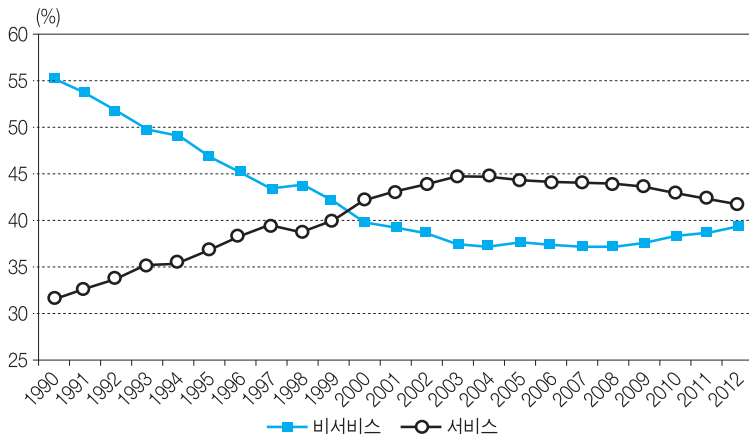


면, 60대 이상의 고령가구 비중은 1990년에 약 3.4%에서 점차 증가하여 2012년에는 2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상대적으로 젊은 가구층의 감소와 고령가구의 증가 현상은 가계 지출구조의 변화를 수반하게 된다. 따라서 이후의 절에서는 연령구조의 변화가 가계지출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1990년대와 2000년대로 구분하여 연령별 지출구조를 검토하고자 한다.

가계의 소득수준이 증가할수록 의·식·주 등의 필수소비재에 대한 지출비중은 낮아지며 삶의 질과 관련된 서비스부문의 지출비중이 늘어나는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나라 역시 가계의 총소비지출에서 서비스부문의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⁵⁾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볼 때 1990년의

〈그림 3-2〉 전체 가구의 지출항목별 구성비(명목 기준)



자료: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5) 본 연구에서 분류한 비서비스부문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 5개 품목이며, 서비스부문은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 7개 품목이다.

비서비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지출 비중은 각각 55.4%와 31.6%로 나타났다으나 2000년을 기점으로 서비스부문의 지출 비중이 비서비스부문을 추월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우리나라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필수 소비재인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비중은 전 기간에 걸쳐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총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3-3 참조). 반면 음식·숙박, 교통, 교육에 대한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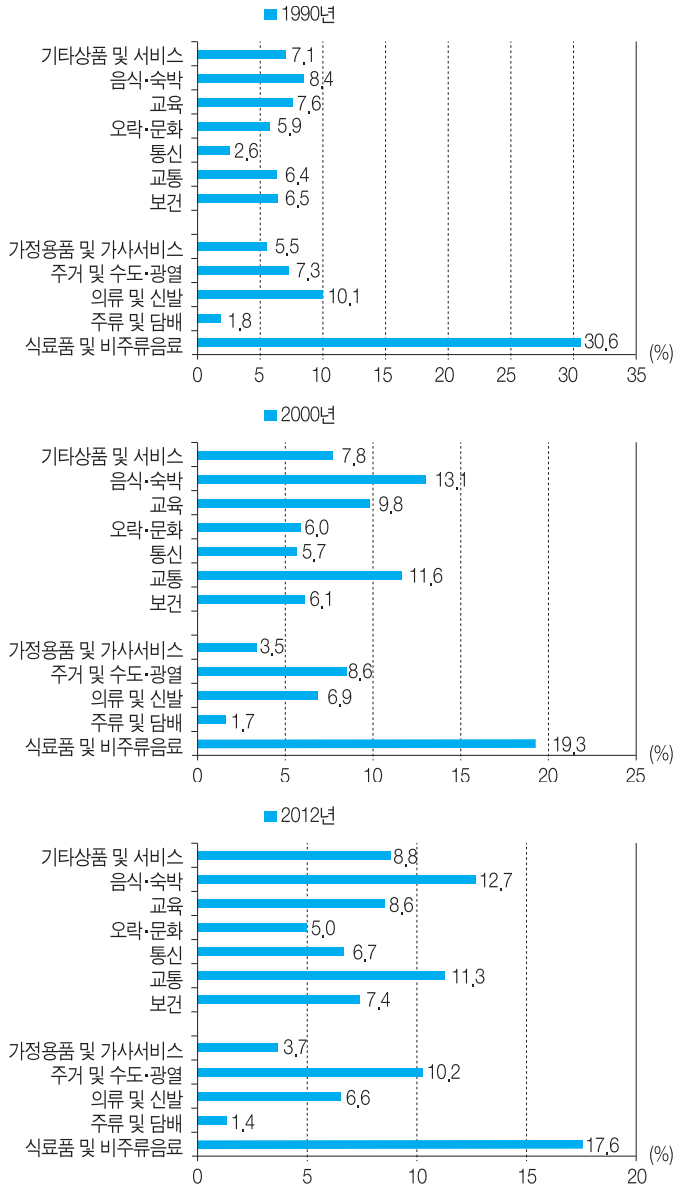
연도별 가구의 소비지출 특징을 살펴보면, 1990년에 30.6%를 차지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비중은 2012년에는 17.6%로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일정수준 이상의 소비는 발생하지 않는 엇겔법칙이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2012년 가계 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품목은 음식·숙박(12.7%), 교통(11.6%)으로 소득증가에 따른 여행 및 외식의 증가와 자동차 보급의 대중화로 인한 차량구입비용, 자동차 구입에 따른 유류비 및 유지비용 등의 증가가 주된 원인으로 판단된다.

그 외에 통신의 지출비중은 2012년 6.7%로 1990년 대비 2.5배 이상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 보건,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지출 역시 1990년 대비 2012년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간별 가계 소비지출 비중 및 변동 기여율을 통해 살펴보면 통신, 교통, 음식·숙박부문의 소비가 가계소비의 서비스화를 이끌고 있음을 알 수 있다(표 3-1 참조). 가계의 서비스 지출 비중이 90년대(1990~1999년) 51.9%에서 2000년대(2000~2012년) 61.8%로 증가함

〈그림 3-3〉 전 가구의 지출항목별 구성비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표 3-1〉 기간별 가계 소비지출 비중 및 변동 기여율

단위 : %

지출품목	1990~ 2012	1990~ 1999	2000~ 2012	기여율
비서비스	42.8	48.1	38.2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1.1	25.2	17.5	-78.7
주류 및 담배	1.6	1.6	1.6	-0.1
의류 및 신발	7.6	8.9	6.4	-25.5
주거 및 수도·광열	8.6	7.9	9.1	12.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9	4.4	3.6	-7.9
서비스	57.2	51.9	61.8	100.0
보건	6.6	6.4	6.8	3.9
교통	10.3	9.2	11.4	22.5
통신	5.3	3.2	7.1	40.1
오락·문화	5.5	5.9	5.1	-7.6
교육	9.4	9.0	9.7	7.4
음식·숙박	12.0	10.5	13.2	27.5
기타상품 및 서비스	8.2	7.9	8.5	6.3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 (-9.9%)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 (9.9%)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에 있어 통신, 교통, 음식·숙박부문의 기여율은 각각 40.1%, 22.5%, 27.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교육, 보건, 오락·문화부문은 상대적으로 기여율이 작거나 음(-)의 기여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구주 연령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1) 20대 가구주 가계지출

20대 가구주의 가계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비서비스부문에서는 의류 및 신발, 주요 서비스부문에서는 음식·숙박, 교통, 통신, 오락·문화부문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요 서비스부문 지출을 기간별로 살펴보면 90년대(1990~1999년)에는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으나, 2000년대(2000~2012년)에는 음식·숙박, 교통, 통신의 증가로 인하여 서비스부문의 지출비중이 90년대 대비 11.2% 높게 나타났다. 비서비스부문 지출에서는 90년대와 2000년대 두 기간 모두에서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지출비중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를 제외하고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는 2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패션상품과 같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에 대한 관심이 높으며, 새로운 통신기기 및 서비스 상품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20대 가구주의 서비스부문 가계지출패턴을 전체 가구와 비교해 보면 90년대 전체 가구 평균의 0.4% 포인트를 상회하는 데 그쳤으나 2000년대에는 전체 가구의 서비스지출 비중 대비 1.7%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다. 2000년대 20대 가구주의 서비스부문 지출비중이 전체 가구 평균을 상회한 주된 요인은 주로 음식·숙박, 교통, 통신의 지출 비중의 증가에 기인한다. 특히, 최초 자동차 구매연령이 20대로 점차 이동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부가적 서비스품목(외식 및 여행)에 대한 지출 증가가 동반된 결과로 파악된다.

〈표 3-2〉 2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2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2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2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비서비스	44.6	1.8	47.6	-0.4	36.4	-1.7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1.2	0.2	23.6	-1.6	15.0	-2.5	-76.9
주류 및 담배	1.8	0.2	1.8	0.2	1.8	0.1	-0.8
의류 및 신발	9.7	2.1	10.4	1.5	7.8	1.5	-22.5
주거 및 수도·광열	7.4	-1.2	7.2	-0.7	7.8	-1.3	5.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5	0.5	4.7	0.3	4.0	0.5	-5.7
서비스	55.4	-1.8	52.4	0.4	63.6	1.7	100.0
보건	6.6	0.0	6.7	0.3	6.3	-0.5	-3.5
교통	11.5	1.1	10.7	1.6	13.4	2.0	23.7
통신	5.1	-0.2	3.7	0.5	8.9	1.8	47.0
오락·문화	6.0	0.6	6.1	0.3	5.8	0.7	-3.0
교육	3.8	-5.6	3.7	-5.3	4.0	-5.7	3.1
음식·숙박	13.6	1.6	12.7	2.2	15.7	2.5	26.8
기타상품 및 서비스	8.9	0.7	8.7	0.8	9.4	0.9	5.9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2) 30대 가구주 가계지출

2000년대(2000~2012년) 30대 가구주 가계의 서비스부문 평균지출 비중은 64.3%로 90년대(1990~1999년) 대비 13%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 기

간 중 품목별 기여율은 통신, 음식·숙박, 교통, 교육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30대 가구주의 가계 소비지출의 특징은 20대 가구와 마찬가지로 비서비스부문에서는 의류 및 신발, 주요 서비스부문에서는 음식·숙박, 교통, 통신, 오락·문화부문의 소비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표 3-3〉 3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30대 가구주	전 가구와의 차이	30대 가구주	전 가구와의 차이	30대 가구주	전 가구와의 차이	
비서비스	43.1	0.3	48.7	0.7	35.7	-2.4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1.2	0.1	25.7	0.5	15.3	-2.1	-80.1
주류 및 담배	1.6	-0.1	1.6	0.0	1.5	-0.1	-1.2
의류 및 신발	8.1	0.5	9.0	0.1	6.8	0.5	-16.6
주거 및 수도·광열	7.8	-0.7	7.6	-0.3	8.0	-1.1	3.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4	0.5	4.7	0.4	4.1	0.5	-5.1
서비스	56.9	-0.3	51.3	-0.7	64.3	2.4	100.0
보건	6.2	-0.4	6.5	0.0	5.9	-0.9	-4.0
교통	10.4	0.0	9.1	0.0	12.0	0.6	22.2
통신	4.8	-0.5	3.1	0.0	6.9	-0.2	29.0
오락·문화	5.9	0.5	6.0	0.1	5.9	0.7	-0.9
교육	8.6	-0.8	7.9	-1.1	9.5	-0.2	12.8
음식·숙박	12.0	0.1	10.7	0.2	13.8	0.6	24.2
기타상품 및 서비스	9.0	0.8	8.0	0.1	10.2	1.7	16.7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주요 서비스부문 지출을 기간별로 보면 90년대와 2000년대 두 기간 모두에서 음식·숙박, 교통, 오락·문화 등의 순으로 지출비중이 높았으며, 비서비스부문 지출에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를 제외하고 주거 및 수도·광열, 의류 및 신발에 대한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가구주 가계지출패턴 중 특징적인 사항 중 하나는 교육부문에 대한 비중이 20대 가구의 2배 이상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20대 가구주의 교육부문 지출비중은 4%를 넘지 못하고 있으나 30대 가구주 가계의 경우 2000년대에는 9.5%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본격적인 교육비 지출이 30대에 증가하기 시작하여 40대에 정점을 찍는 최근의 현상을 확인시켜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전체 가구의 지출패턴과 비교해 볼 때 30대 가구주 가계는 90년대에는 서비스부문 지출비중이 0.7% 포인트 적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0년대에는 전체 가구의 서비스지출 비중 대비 2.4% 포인트 이상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기타상품 및 서비스, 오락·문화, 음식·숙박, 교통에 대한 상대적 지출비중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2000년대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비중은 절대적인 수준은 90년대 대비 0.1% 포인트 감소하였으나 전체 가구 평균수준 대비 0.7% 포인트를 상회하여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지출비중을 기록하고 있다.

(3) 40대 가구주 가계지출

40대 가구주 가계의 서비스부문 평균지출 비중은 90년대 53.8%에서 2000년대 65.9%로 12.1%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부문 지출

〈표 3-4〉 4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40대 가구주	전 가구주 의 차이	40대 가구주	전 가구주 의 차이	40대 가구주	전 가구주 의 차이	
비서비스	39.2	-3.6	46.2	-1.9	34.1	-4.1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9.1	-2.0	24.5	-0.7	15.2	-2.3	-77.1
주류 및 담배	1.4	-0.2	1.4	-0.2	1.4	-0.2	0.1
의류 및 신발	7.4	-0.2	8.7	-0.2	6.4	0.1	-18.7
주거 및 수도·광열	7.8	-0.7	7.7	-0.2	8.0	-1.2	2.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4	-0.5	3.9	-0.4	3.1	-0.5	-6.8
서비스	60.8	3.6	53.8	1.9	65.9	4.1	100.0
보건	5.1	-1.5	5.3	-1.1	5.0	-1.9	-2.9
교통	9.9	-0.5	8.5	-0.6	10.8	-0.5	19.0
통신	5.5	0.2	2.9	-0.2	7.3	0.2	36.4
오락·문화	5.8	0.3	6.3	0.4	5.4	0.3	-7.5
교육	15.3	6.0	14.3	5.3	16.1	6.4	14.5
음식·숙박	11.8	-0.1	9.3	-1.2	13.7	0.5	36.2
기타상품 및 서비스	7.4	-0.8	7.1	-0.8	7.7	-0.9	4.3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의 증가를 기여율 기준으로 볼 때 통신(36.4%), 음식·숙박(36.2%), 교통(19%), 교육(14.5%) 등이 기여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부문 품목별 지출을 보면 40대 가구주 가계의 지출은 교육부문에 있어서의 지출이 다른 연령대와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

다. 2000년대 40대 가구주 가계의 서비스부문 지출은 65.9%로 전체 가구 대비 4.1% 포인트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는 전체 소비 지출액 중 교육에 대한 지출이 16.1%에 이르는 것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처럼 전체가구 대비 교육부문 지출비중은 6.4%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으나 여타 서비스품목의 지출비중은 전체가구 평균수준(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에 머무르고 있거나 혹은 하회하는 것(교통, 보건, 기타 상품 및 서비스)으로 나타났다.

40대 가구주 가계의 비서비스품목의 지출비중 역시 의류 및 신발을 제외하고는 전체 가구 평균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40대 가구주 가계의 독특한 지출패턴은 교육을 제외한 나머지 가계소비지출 품목의 지출을 줄이는 대신 잉여재원을 교육부문에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4) 50대 가구주 가계지출

50대 가구주 가계의 서비스부문 평균지출 비중은 90년대 53.2%에서 2000년대 61.9%로 8.7% 포인트 상승하였다. 이러한 서비스부문 지출의 증가에 대한 기여는 통신(52.8%), 교통(32.1%), 음식·숙박(31.8%) 등의 역할에 의해 나타난 결과라 할 수 있다.

50대 가구주 가계지출패턴을 전체 가구와 비교해 보면 50대 가구주 가계의 지출은 전체 가구의 평균적인 지출패턴과 상당히 유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즉, 비서비스부문에서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지출비중은 여타 연령대와 마찬가지로 가장 높지만 그 수준은 2000년대 들어와 상당히 감소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에서

〈표 3-5〉 5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5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5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5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비서비스	41.5	-1.2	46.8	-1.2	38.1	0.0	-100.0
식료품 및 주류·음료	19.9	-1.1	24.0	-1.2	17.3	-0.1	-77.1
주류 및 담배	1.8	0.1	1.7	0.1	1.8	0.2	0.8
의류 및 신발	7.4	-0.1	8.8	-0.1	6.5	0.1	-26.5
주거 및 수도·광열	8.8	0.2	8.2	0.3	9.2	0.0	11.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6	-0.3	4.1	-0.3	3.3	-0.2	-8.6
서비스	58.5	1.2	53.2	1.2	61.9	0.0	100.0
보건	6.5	-0.1	6.4	0.0	6.6	-0.2	3.0
교통	11.4	1.1	9.7	0.6	12.5	1.1	32.1
통신	6.0	0.7	3.2	0.0	7.8	0.7	52.8
오락·문화	4.8	-0.6	5.2	-0.6	4.5	-0.6	-8.1
교육	7.8	-1.5	8.5	-0.5	7.4	-2.3	-11.9
음식·숙박	13.1	1.2	11.4	1.0	14.2	1.0	31.8
기타상품 및 서비스	8.7	0.5	8.7	0.8	8.7	0.2	0.4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의 지출 역시 음식·숙박, 교통, 통신 등의 품목 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편, 교육부문은 50대 가구에서는 전체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에서의 지출(90년대 -0.5%, 2000년대 -2.3%)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40대 가구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지출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지출은 타 연령에 비해 서비스부문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대 가구주 가계의 서

〈표 3-6〉 6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60대 가구주	전 가구주의 차이	60대 가구주	전 가구주의 차이	60대 가구주	전 가구주의 차이	
비서비스	49.2	6.5	54.1	6.1	47.2	9.0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5.5	4.4	30.0	4.7	23.6	6.2	-91.0
주류 및 담배	2.1	0.5	2.1	0.5	2.1	0.4	-0.8
의류 및 신발	6.1	-1.4	7.3	-1.6	5.6	-0.8	-24.2
주거 및 수도·광열	11.6	3.0	10.5	2.6	12.0	2.9	22.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9	0.0	4.2	-0.2	3.8	0.2	-6.0
서비스	50.8	-6.5	45.9	-6.1	52.8	-9.0	100.0
보건	9.7	3.1	9.2	2.7	9.9	3.1	11.1
교통	10.2	-0.2	8.5	-0.7	10.9	-0.5	34.7
통신	5.4	0.1	3.2	0.1	6.3	-0.8	44.6
오락·문화	4.2	-1.2	4.5	-1.4	4.1	-1.0	-5.0
교육	2.8	-6.6	3.6	-5.3	2.4	-7.3	-17.9
음식·숙박	10.6	-1.3	9.4	-1.1	11.2	-2.1	24.7
기타상품 및 서비스	7.8	-0.4	7.5	-0.4	8.0	-0.5	7.7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표 3-7〉 70대 가구주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7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7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70대 가구주	전 가구와 의 차이	
비서비스	54.5	11.8	58.2	10.1	53.7	15.6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9.7	8.6	34.2	8.9	28.7	11.2	-123.7
주류 및 담배	1.9	0.2	1.9	0.3	1.9	0.2	-1.3
의류 및 신발	4.4	-3.1	5.8	-3.1	4.1	-2.2	-36.7
주거 및 수도·광열	14.4	5.9	12.3	4.4	14.9	5.8	58.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1	0.2	4.0	-0.4	4.2	0.6	3.6
서비스	45.5	-11.8	41.8	-10.1	46.3	-15.6	100.0
보건	15.0	8.4	14.1	7.6	15.3	8.4	27.2
교통	7.0	-3.3	5.6	-3.5	7.3	-4.1	38.3
통신	4.7	-0.6	3.0	-0.1	5.1	-2.1	45.5
오락·문화	3.9	-1.6	4.0	-1.9	3.8	-1.3	-2.8
교육	2.4	-7.0	4.6	-4.4	1.9	-7.8	-60.8
음식·숙박	6.8	-5.1	5.2	-5.3	7.2	-6.0	44.2
기타상품 및 서비스	5.7	-2.5	5.4	-2.5	5.8	-2.8	8.5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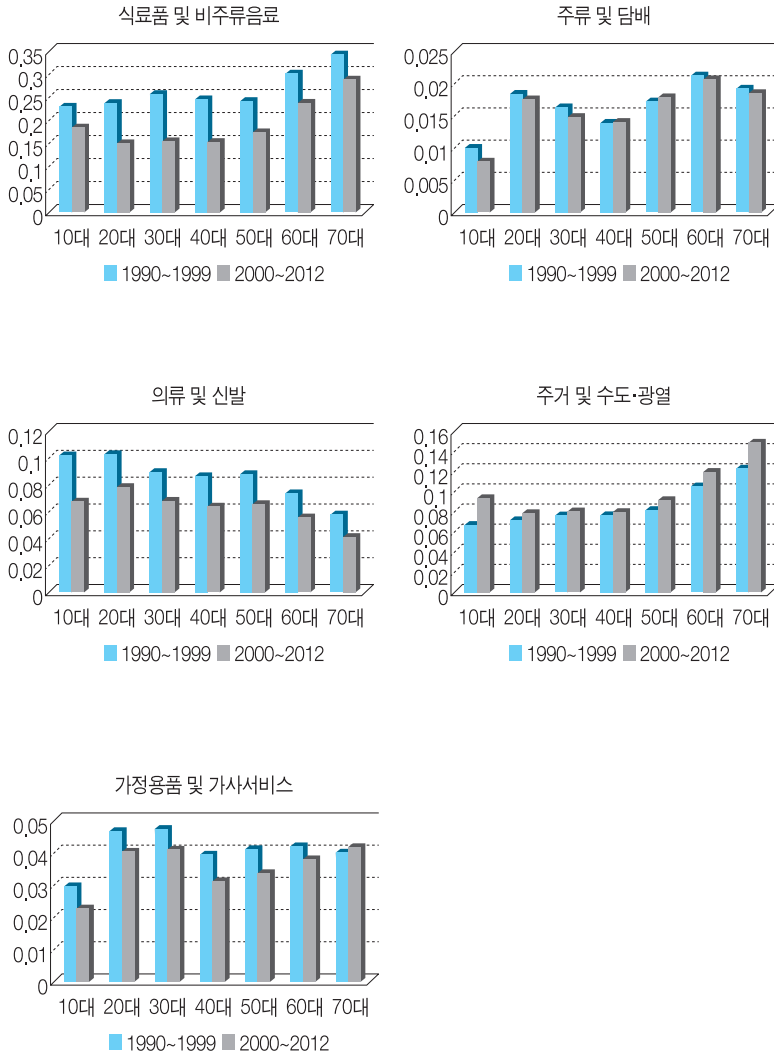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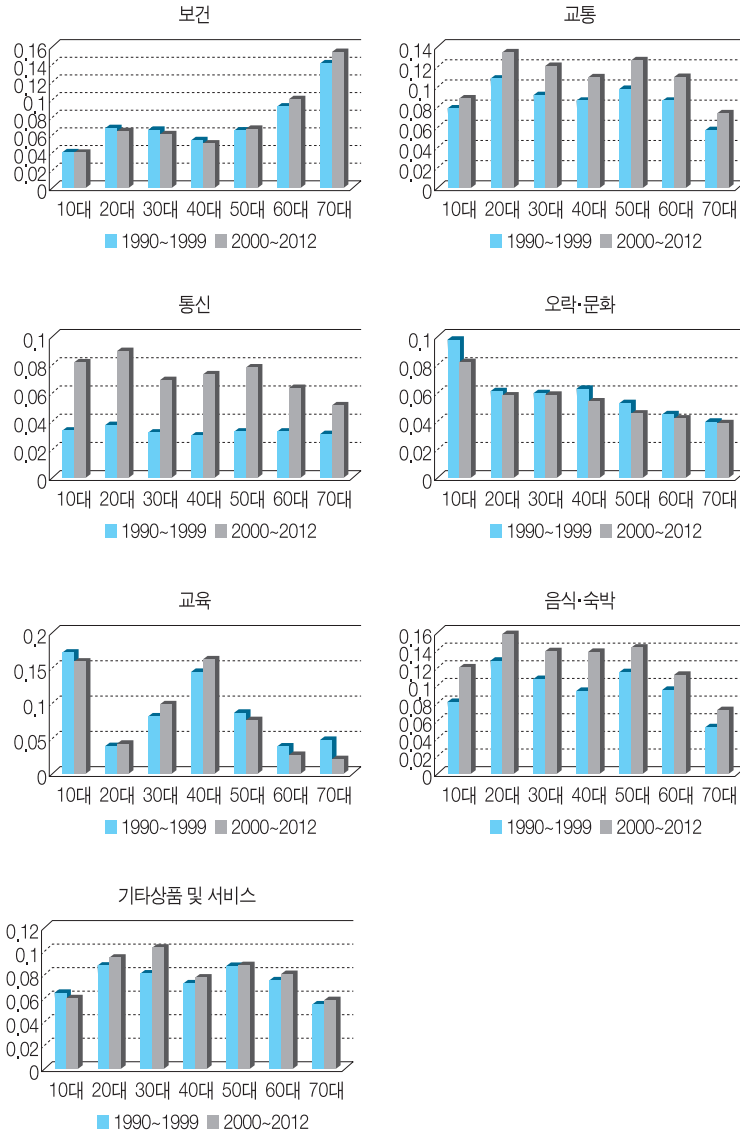
비스부문의 평균지출 비중은 90년대 45.9%에서 2000년대 52.8%로 6.9% 포인트 상승하였으나 전체 가구평균 대비 9% 포인트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7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경우에도 역시 이러한

〈그림 3-4〉 비서비스부문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 현황(종합)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그림 3-5〉 서비스부문 연령별 가계지출 비중 현황(종합)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지출패턴을 유지한 채 전체 가구평균 대비 15.6% 포인트를 하회하는 수준을 보이고 있다.

한편, 60대 이상 가구주 가계의 서비스부문 지출에 있어 특징적인 것은 보건관련 지출의 비중이 타 연령대에 비해 현저히 높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2000년대 60대 가구의 보건부문 지출수준은 전체 가구 평균대비 3.1%, 70대 이상 가구는 8.4% 포인트를 상회하는 수준의 높은 비중을 보여준다. 반면, 보건부문 이외의 서비스지출은 모든 부문에서 전체 가구의 평균을 하회하는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 가구 형태별 소비지출구조 변화

이번 절에서는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노인가구⁶⁾, 맞벌이가구⁷⁾, 여성가구주⁸⁾ 가구 등의 가구 형태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를 기준으로 1990년 이후 가구 형태별 구성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에 약 85%를 차지하고 있던 일반가구⁹⁾의 비중은 2012년에는 53% 수준으로 감소한 반면, 노인, 맞벌이 및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급속히 증가하여 1990년에 26.5%에서 2012년에는 62.2%로 증가하였다.¹⁰⁾

6) 18세 이상 65세 미만 가구원을 포함하지 않고, 가구원 중 1인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인 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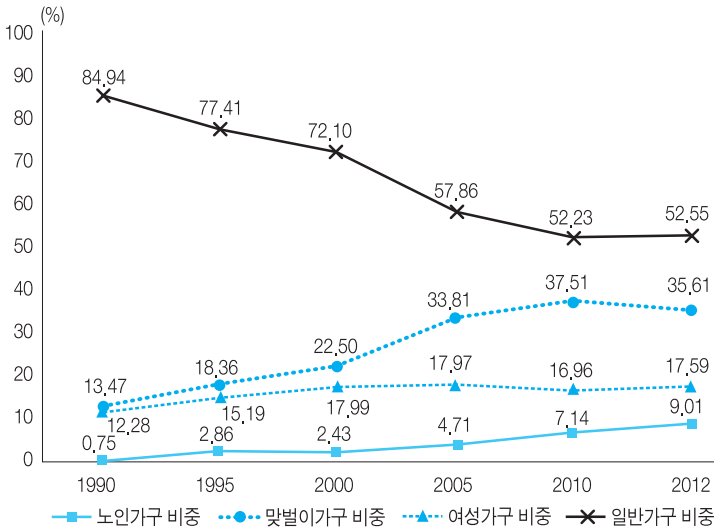
7) 가구주가 직업이 있고 동거 배우자가 직업이 있는 가구.

8) 가구주가 여성이고, 가구원이 18세 미만의 자녀만 있는 가구.

9) 일반가구는 노인·모자·맞벌이가 아닌 가구.

10) 노인가구, 맞벌이가구, 모자가구를 각각 별도의 항목으로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총합이 100%를 상회할 수 있다.

〈그림 3-6〉 가구 형태별 비중 변화 추이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이러한 가구주 형태의 변화 또한 연령구조의 변화와 마찬가지로 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가구 형태별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겠다.

먼저 노인가구의 소비지출 구조를 살펴보면, 비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 비중은 전체 가구 평균에 비해 90년대에는 11.4% 포인트, 2000년대에는 17.5% 포인트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주거 및 수도·광열에 대한 지출 비중이 전체 가구 대비 노인가구에서 현저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노인가구의 소비지출은 의식주와 관련된 필수소비에 많은 지출이 이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서비스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은 전체 가구의 지출비중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보건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은

〈표 3-8〉 노인가구주 가구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노인 가구주 가구	전 가구 와의 차이	노인 가구주 가구	전 가구 와의 차이	노인 가구주 가구	전 가구 와의 차이	
비서비스	56.6	13.8	59.5	11.4	55.6	17.5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31.3	10.2	35.2	10.0	30.0	12.6	-134.0
주류 및 담배	1.8	0.2	2.0	0.4	1.8	0.1	-7.1
의류 및 신발	4.4	-3.1	5.7	-3.2	4.0	-2.4	-43.9
주거 및 수도·광열	14.8	6.2	12.7	4.8	15.5	6.3	71.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4.2	0.3	3.8	-0.5	4.3	0.8	13.2
서비스	43.4	-13.8	40.5	-11.4	44.4	-17.5	100.0
보건	15.6	9.0	13.6	7.2	16.2	9.4	65.9
교통	6.4	-3.9	5.3	-3.9	6.8	-4.6	38.1
통신	4.1	-1.2	2.9	-0.2	4.5	-2.6	40.1
오락·문화	3.8	-1.6	4.1	-1.8	3.8	-1.4	-8.4
교육	2.0	-7.3	4.1	-4.9	1.4	-8.3	-69.8
음식·숙박	5.9	-6.1	4.8	-5.7	6.2	-7.0	36.6
기타상품 및 서비스	5.6	-2.6	5.7	-2.2	5.6	-2.9	-2.5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전체 평균에 비해 90년대에는 7.2% 포인트, 2000년대에는 9.4% 포인트 이상 높은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표 3-8〉 참조).

맞벌이가구의 소비지출 특성은 노인가구와는 사뭇 다른 형태를 보이고 있다. 노인가구와는 반대로 비서비스부문에 대한 지출보다는 서

〈표 3-9〉 맞벌이가구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맞벌이 가구	전 가구와 의 차이	맞벌이 가구	전 가구와 의 차이	맞벌이 가구	전 가구와 의 차이	
비서비스	37.8	-4.9	44.6	-3.4	34.6	-3.6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7.5	-3.6	22.5	-2.7	15.0	-2.4	-74.7
주류 및 담배	1.6	0.0	1.7	0.1	1.6	0.0	-1.3
의류 및 신발	7.4	-0.1	9.1	0.2	6.6	0.3	-24.1
주거 및 수도·광열	7.6	-0.9	7.1	-0.8	7.9	-1.2	8.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7	-0.2	4.3	-0.1	3.4	-0.1	-8.3
서비스	62.2	4.9	55.4	3.4	65.4	3.6	100.0
보건	5.4	-1.2	5.5	-0.9	5.3	-1.5	-1.4
교통	11.5	1.2	10.2	1.1	12.1	0.7	18.9
통신	5.9	0.6	2.9	-0.2	7.3	0.2	43.2
오락·문화	5.3	-0.1	5.9	0.0	5.1	0.0	-8.5
교육	11.3	2.0	10.2	1.3	11.9	2.2	16.1
음식·숙박	13.8	1.8	11.9	1.4	14.7	1.5	27.4
기타상품 및 서비스	9.0	0.7	8.7	0.8	9.1	0.6	4.3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비스부문에 대한 지출 비중이 전체 가구 평균을 3% 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통,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의 품목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지출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주거 및 수도·광열과 같은 의식주 관련 필수소비

〈표 3-10〉 여성가구주 가구 가계 소비지출 구조

단위 : %

	1990~2012		1990~1999		2000~2012		기여율
	여성 가구주 가구	전 가구와 의 차이	여성 가구주 가구	전 가구와 의 차이	여성 가구주 가구	전 가구와 의 차이	
비서비스	43.2	0.5	47.5	-0.5	40.2	2.1	-100.0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21.2	0.2	24.7	-0.6	18.8	1.4	-79.6
주류 및 담배	1.3	-0.4	1.1	-0.5	1.4	-0.2	3.8
의류 및 신발	7.8	0.2	9.5	0.6	6.6	0.2	-39.1
주거 및 수도·광열	9.3	0.7	8.4	0.5	9.9	0.8	20.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3.7	-0.3	3.9	-0.5	3.5	-0.1	-5.7
서비스	56.8	-0.5	52.5	0.5	59.8	-2.1	100.0
보건	6.7	0.1	6.2	-0.2	7.1	0.3	11.7
교통	9.5	-0.8	8.7	-0.4	10.0	-1.3	17.9
통신	6.0	0.7	3.5	0.4	7.7	0.6	57.8
오락·문화	5.4	-0.1	6.0	0.2	4.9	-0.2	-15.3
교육	9.6	0.3	10.2	1.3	9.2	-0.5	-14.3
음식·숙박	11.0	-0.9	9.4	-1.1	12.2	-1.0	37.2
기타상품 및 서비스	8.5	0.3	8.3	0.4	8.6	0.1	4.9

자료 : 「가계동향조사」 원시자료(각 연도), 통계청.

주 : 1) 기간별 비중은 해당기간의 품목별 평균 비중.

2) 비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감소(-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3) 서비스 기여율은 90년대(1990~1999) 대비 2000년대 이후(2000~2012) 비중 증가(13%)에 대한 각 지출품목의 영향도.

지출 비중은 상대적으로 전체 가구 수준을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9〉 참조).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비지출 특성을 살펴보면, 90년대에는 서비스

부문에 대한 지출비중은 전체 가구 평균과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었으나 2000년대에는 2.1% 포인트 작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90년대에는 전체 가구 평균수준 이상의 비중을 보인 오락·문화와 교육에 대한 지출이 2000년대 들어 감소하여 전체 평균수준 아래로 떨어진 것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표 3-10〉참조).

제4장

우리나라 가계의 서비스 소비지출 패턴 분석

1. 연구의 배경

일반적으로 품목별 가계 소비지출구조는 가계를 둘러싼 경제 상황이 급변하거나 혹은 사회적 혹은 환경적 요인의 돌발적 발생과 같은 외생적인 충격 요인에 의해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된다. 예를 들어 최근 문제가 되었던 가축질병으로 인한 축산물 시장의 교란은 축산관련 식품에 대한 지출의 감소를 가져왔으며, 입시제도의 변화는 가계 교육 비지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하지만 가계의 소비지출구조는 단순히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요인에 의한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가계지출의 교란요인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인구구조의 변화와 같은 사회 전반에 걸친 패러다임 자체를 바꾸는 거대 요인에 의해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제2장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인구구조는 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급격한 인구구조의 변화는 우리나라 경제의 공급측면과 수요측면 모두에 걸쳐 엄청난 파급효과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수요측면의 변화, 즉 가계의 소비지출구조의 변화는 가구구조 및 연령구조와 같은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또한 가계 구성원의 소득수준, 직업, 연령, 성별, 학력 등 다양한 가구의 고유한 특성요인 역시 지출구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처럼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충격으로 인한 직접적이며 단기적인 요인과 인구구조와 같은 구조적이며 거대한 요인의 영향은 가계의 소비패턴의 변화를 유도함으로써 품목별 소비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정상품에 대한 수요함수를 추정하기 위한 실증분석 방법은 크게 단일방정식(single equation)을 이용하는 방법과 완결수요체계(complete demand system)를 이용하는 방법의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다. 단일방정식에 의한 수요함수 추정방법은 개별 품목별로 분리하여 수요모형을 설정할 수 있고 설명변수를 설정하거나 함수형태를 구체화하기에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행동이론에 기반을 둔 모형이 아닌 축약형(reduced form) 함수를 이용하기 때문에 이론검증에 있어 제약이 있으며, 소비자 이론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다수 품목 간의 관계를 무시하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다른 품목 수요와의 연관관계를 고려하기 위해서는 설명변수 및 통제변수의 수가 늘어나게 되어 실제 추정에 있어 여러 가지 계량경제학적 문제에 봉착할 가능성이 있다. 반면, 완결수요체계를 이용하는 분석방법은 기본적으로 수요함수가 요구하는 모든 이론적인 제약을 만족시킴으로

써 단일방정식의 약점을 보완하며, 수요 품목들 상호간의 연관관계 및 소비범주에 속하는 모든 품목 사이의 지출배분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 이에 지난 30여 년간 소비자 수요 분석은 다수 품목 간의 관계를 반영할 수 있는 시스템적 접근(system-wide approach)으로 변화해오고 있다. 특히, 다수의 품목들에 대한 소비자 선택과 지출 간의 상호연관성(interdependence)을 설명할 수 있는 완전한 수요 시스템(complete demand system)의 추정에 대한 관심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정명생·임경희, 2004).

본 장에서는 Deaton and Muellbauer(1980)가 제안한 AIDS 모형을 기반으로 수요함수 시스템에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반영하는 모형으로 확장하여 우리나라 가구의 가계소비지출 행태를 분석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Ray(1983)가 제안한 Price-Scaling Technique을 통해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다 유연한 형태를 AIDS 모형에 적용한 Price-Scaling AIDS모형(이하 PS-AIDS)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추정한다.

2. 분석모형 및 자료

(1) 기본적인 AIDS 모형

일반적으로 수요 체계를 도출하는 방법은 임의의 직접 혹은 간접 효용함수, 또는 지출함수(expenditure function)를 Taylor 2차 근사시키는 방법이 주로 사용되었으며, 이와 함께 선형 지출 체계(lin-

ear expenditure system, LES), Rotterdam 모형, Translog 모형, AIDS 모형 등과 같이 수요함수 자체를 Taylor 1차 근사시키는 방법이 제시되었다(김태우, 2009). Deaton and Muellbauer(1980)에 의해 제안된 AIDS(Almost Ideal Demand System) 모형 역시 기본적으로는 기존의 접근방법을 따르지만 임의의 선호체계에서 출발하기보다 PIGLOG(Price Independent Generalized Logarithmic)계열로 알려진 특정한 선호체계를 바탕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수요함수 모형과는 차별된다 할 수 있다(김태우, 2009).

이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AIDS 모형은 미시경제학의 합리적 소비자 행동이론으로부터 도출되므로 이론적 기반이 매우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AIDS 모형은 지출함수에 Shephard's Lemma를 적용하여 수요함수를 유도하기 때문에 여타 수요함수 모형에 비해 정확하게 선택의 공리를 만족하고 가장 수요이론에 부합한 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기본적으로 AIDS 모형은 응용범위가 넓으며, 수요 행동과 관련하여 사전적 제약을 별로 부과하지 않고 소득과 가격에 따라 가변적이므로 일반성이 대단히 높은 수요함수 체계이다. 즉, 기존 수요시스템 모형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난점들, 예를 들어 수요 이론이 요구하는 일반적 제약요건을 만족시키지 못하거나 제약조건의 현실적 타당성 및 선호구조의 통계적 검증이 불가능한 것과 같은 문제들이 대부분 해결될 수 있다(김태우, 2009; 윤재호, 2002; 정명생·임경희, 2004).

AIDS 모형은 이론적 측면뿐만 아니라, 실제 추정과정에서도 많은 장점이 있는데 특히 대표적 소비자 개념을 명확히 하고 소비자 간 총합을 허용하는 선호의 부류로부터 도출된 수요체계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동차성(homogeneity)¹¹⁾, 대칭성(symmetry)¹²⁾, 가합성(adding-up)¹³⁾과 같은 이론적 제약들을 쉽게 부과하거나 통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모형 내에 충분히 많은 매개 변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임의의 효용(또는 비용) 함수에 대한 근사함수치의 추정이 가능하다(Deaton and Mullbauers, 1980).¹⁴⁾

한편, AIDS 모형은 소비자최적화 이론에서 출발한 이론적 근거와 단순히 단일방정식으로 분석하는 한계를 보완해줄 수 있는 연립방정식 모형의 형태를 택하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가 자기에게 주어진 소득을 모든 소비재를 대상으로 지출하도록 구성된 완결수요함수 체계(complete systems of demand equations)의 특성을 가진다는 장점이 있다. 이에 따라 AIDS 모형에서는 가계 내 품목별 소비지출이 대체, 보완관계 등이 존재해 독립적으로 결정되기보다 서로 연관관계를 가지고 동시에 결정되는 현실을 잘 반영하고 상세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또한 Uusitalo(1980)가 지적한 바와 같이 가계 지출 절대액은 소비패턴의 차이보다 단지 소득 차이를 나타내기 쉬운 데 반해 AIDS 모형은 종속변수로 소비지출 품목별 지출비율을 사용하므로 소득 효과를 배제하여 실제 소비패턴의 차이를 나타내기에 적합한 모형이라 할 수 있다(김숙향·김혜선, 2004).

-
- 11) 수요함수가 $q_i = q_i(p, x)$, $i=1, \dots, n$ 로 가정될 때, 동차성(homogeneity) 제약조건은 수요함수들이 각 품목들의 가격과 총지출에 대해 0차 동차(homogeneous of degree zero)이어야 함을 의미.
 - 12) 대칭성(symmetry)은 각 품목의 가격들이 각 품목의 수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로 나타내지는 대체 행렬(substitution matrix)이 대칭이어야 함을 의미.
 - 13) 가합성(adding-up) 제약조건은 예산 혹은 소득 y 가 1~ n 까지의 품목에 완전히 사용됨을 의미.
 - 14) 김태우(2009), 윤재호(2002)에서 재인용.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Deaton and Muellbauer (1980)는 PIGLOG (Price Independent Generalized Logarithmic)¹⁵⁾ 형태의 지출함수를 이용하여 AIDS 모형을 도출하는데, PIGLOG 함수하에선 효용을 u , 가격벡터를 p , 비용함수를 $c(u, p)$ 라고 하면 다음 식 <4-1>과 같이 정의할 수 있다.

$$\log c(u, p) = (1 - u) \log a(p) + u \log b(p) \quad \langle 4-1 \rangle$$

식 <4-1>에서 u 는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지며, 0의 값을 가지면 불만족(subsistence)을, 1이면 만족(bliss)을 나타내므로 양의 선형동조함수인 $a(p)$ 와 $b(p)$ 는 각각 만족과 불만족에 대한 비용으로 간주할 수 있다. 가격 p 의 함수인 $a(p)$ 와 $b(p)$ 는 다음 식 <4-2>, 식 <4-3>과 같이 가정되는데,

$$\log a(p) = \alpha_0 + \sum_{i=1}^n \alpha_i \ln p_i + \frac{1}{2} \sum_{i=1}^n \sum_{j=1}^n \gamma_{ij} \log p_i \log p_j \quad \langle 4-2 \rangle$$

$$\log b(p) = \log a(p) + \beta_0 \prod_k p_i^{\beta_i} \quad \langle 4-3 \rangle$$

이를 식 <4-1>에 대입하고, 비용함수를 가격으로 편미분하면 지출비용에 관한 수요함수가 식 <4-4>와 같이 도출된다.¹⁶⁾

15) PIGLOG로 알려진 소비자 선호는 주어진 가격하에서 일정 효용 수준을 얻기 위해 필요한 최소지출을 결정하는 지출함수로 표현되며,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가 마치 하나의 합리적 대표 소비자에 의해 이루어진 것처럼 모든 소비자들의 수요를 총합함을 가정 (Muellbauer, 1976).

16) $\frac{\partial \log c(u, p)}{\partial \log p_i} = \frac{\partial \log c(u, p)}{\partial p_i} \times \frac{p_i}{c(u, p)} = q_i \times \frac{p_i}{c(u, p)} = w_i$

$$w_i = \alpha_i + \sum_{j=1}^n \gamma_{ij} \log p_j + \beta_i u \beta_0 \prod p_i^{\beta_i} \quad \langle 4.4 \rangle$$

다시, 효용을 극대화하는 소비자 총지출(혹은 소득)을 y 라고 하면, $y=c(u, p)$ 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AIDS 모형의 기본 모형은 식 $\langle 4.5 \rangle$ 와 같이 도출된다.

$$w_i = \alpha_i + \sum_{j=1}^n \gamma_{ij} \ln p_j + \beta_i (\ln y - \ln P) \quad \langle 4.5 \rangle$$

$$P = \alpha_0 + \sum_{i=1}^n \alpha_i \ln p_i + \frac{1}{2} \sum_{j=1}^n \sum_{i=1}^n \gamma_{ij} \ln p_i \ln p_j$$

식 $\langle 4.5 \rangle$ 에서 w_i 는 i 품목의 지출 비중, p_i 는 i 품목의 가격, y 는 총지출액(소득액), P 는 가격지수를 의미하며, 마지막 항인 $(\ln y - \ln P) = \ln \frac{y}{P}$ 는 총지출액을 가격지수로 디플레이트(deflate)시킨 실질 지출액 혹은 실질 소득으로 볼 수 있다. 이때, 가합성 제약 조건을 위해 $\sum_{i=1}^n \alpha_i = 1$, $\sum_{i=1}^n \gamma_{ij} = 0$, $\sum_{i=1}^n \beta_i = 0$ 이 만족되어야 하며, 동차성 제약 조건을 위해서는 $\sum_{j=1}^n \gamma_{ij} = 0$, 대칭성 제약조건을 위해서는 $\gamma_{ij} = \gamma_{ji}$ 가 만족되어야 한다.

(2) Price-Scaling Almost Ideal Demand System(PS-AIDS)

한편, 소비지출의 상품별 구성은 연령, 세대, 소득수준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demographic) 특징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이므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이 각 상품 수요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분석하기 위해서는 수요모형에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을 반영해야 한다(김동석, 2009).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기본적인 AIDS 모

형에선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이 반영되지 않으므로,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모형을 변화시켜야 한다.

Dudek(2010)에 따르면, 수요함수 시스템에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을 반영하는 방법은 크게 5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수요함수 시스템이 기본적으로는 각 품목들의 가격 벡터를 나타내는 p , 전체 지출(혹은 소득)을 나타내는 y 에 의해 각 품목들의 지출비중 w_i 가 결정된다고 가정하는 $w_i = f(p, \log y)$ 의 형태를 따른다고 할 때, 첫 번째 방법인 ‘인구통계학적 조정(demographic scaling)’ 방법에선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에 의해 좌우되는 조정 요인(scaling factor) m_i 을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에 곱해 $w_i = m_i f(p, \log y)$ 형태로 조정한다. 둘째,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으로서, ‘인구통계학적 이동(demographic translating)’ 방법에선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에 인구통계학적 변인들에 의한 영향 d_i 를 선형적으로 결합해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을 ‘이동’시켜 $w_i = d_i + f(p, \log y)$ 형태로 조정한다(Pollak and Wales, 1979). 셋째, ‘Gorman의 방식’에선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을 인구통계학적 조정(demographic scaling)과 인구통계학적 이동(demographic translating) 방식을 모두 사용하여 $w_i = d_i + m_i f(p, \log y)$ 형태로 조정한다(Gorman, 1976). 넷째, ‘역 Gorman 방식(reverse Gorman)’에선 인구통계학적 조정(demographic scaling)과 인구통계학적 이동(demographic translating) 방식을 모두 사용하되, 먼저 인구통계학적 이동 방식을 택한 후 인구통계학적 조정을 통해 $w_i = m_i (d_i + f(p, \log y))$ 형태로 조정한다(Pollak and Wales, 1981). 마지막으로, ‘가격조정(price scaling) 방식’에선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을 보다 복합적인 방식으로 조정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 벡터를 z 라고 할 때, 조정요인을 가격과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함수로 가정하여 $m(p, z)$ 로 설정한 후 $w_i = f(p, \frac{\log y}{m(p, z)}) + \frac{\partial \log(m(p, z))}{\partial \log p_i}$ 형태로 조정한다(Ray, 1983).

언급된 다섯 가지 방식 모두 기본 수요함수 시스템에 특정한 형태를 가정하지 않고 전체 수요 시스템 체계에 조합하여 사용한다는 점에서 어떤 방식이 상대적으로 우월하다고 할 수는 없다(Pollak and Wales, 1981).¹⁷⁾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가장 간단한 방법인 인구통계학적 이동(demographic translation)이 사용됨에도 불구하고, Ray(1983)가 제안한 Price-Scaling(PS) Technique을 사용하는 방법은 가장 이론적 근거가 명확하며 보다 유연한(flexible) 형태를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Price-Scaling 방식을 따르는 AIDS 모형(이하 PS-AIDS)을 사용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수요에 대한 영향을 모형화하도록 한다.

Price-Scaling 방식을 제안한 Ray(1983)를 따르면,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벡터가 z 이고, 가격 벡터 p 에서 효용 u 를 얻기 위해 필요한 대표 가구(reference household)의 지출을 의미하는 지출함수를 $e^R(p, u)$ 라고 가정하면, 각 가구의 지출함수는 식 <4-6>과 같이 구성할 수 있다(Poi, 2012; Oliver, 2013).

$$e(p, z, u) = m_0(p, z, u) \times e^R(p, u) \quad \langle 4-6 \rangle$$

식 <4-6>에서 $m_0(p, z, u)$ 는 대표가구의 지출을 각 가구의 인구통

17) Dudek(2010)에서 재인용.

계학적 특징들을 반영해서 조정(scaling)해주어 각 가구의 지출함수로 변환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Ray(1983)는 더 나아가 조정 함수인 $m_0(p, z, u)$ 를 식 <4-7>과 같이 두 부분으로 분해(decompose)하였다(Poi, 2012).

$$m_0(p, z, u) = \overline{m_0}(z) \times \phi(p, z, u) \quad \langle 4-7 \rangle$$

$$e(p, z, u) = \overline{m_0}(z) \times \phi(p, z, u) \times e^R(p, z)$$

식 <4-7>의 우변 첫 번째 항인 $\overline{m_0}(z)$ 는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벡터인 z 의 함수로, 소비패턴 자체의 변화는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따른 지출액(소득액)의 증가정도를 반영¹⁸⁾하게 되며, 두 번째 항인 $\phi(p, z, u)$ 은 상대 가격들과 실제 소비된 재화 및 서비스에서의 변화를 통제하는 역할¹⁹⁾을 하게 된다.

한편, Ray(1983)를 따라 Price-Scaling Technique을 AIDS 모형에 반영할 때는 $\overline{m_0}(z)$ 와 $\phi(p, z, u)$ 를 다음 식 <4-8>, 식 <4-9>와 같이 모수화(parameterize)하는 것이 일반적이다(Poi, 2012; Oliver, 2013).

$$\overline{m_0}(z) = 1 + \rho'z \quad \langle 4-8 \rangle$$

$$\ln \phi(p, z, u) = u \prod_{j=1}^n p_j^{\beta_j} \left(\prod_{j=1}^n p_j^{\eta_j' z} - 1 \right) \quad \langle 4-9 \rangle$$

18) 예를 들어, 소비되는 재화의 구성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무시하고, 4명으로 이루어진 가구가 1명으로 이루어진 가구보다 더 높은 지출액을 가지는 것을 반영(Poi, 2012).

19) 예를 들어, 2명의 성인과 2명의 유아로 이루어진 가구는 4명의 성인 가구로 이루어진 가구와 비교할 때, 서로 다른 지출 구성을 가지는 것을 반영(Poi, 2012).

이와 같은 방식으로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을 반영한 PS-AIDS 모형은 최종적으로 식 <4-10>과 같이 도출된다.

$$w_i = \alpha_i + \sum_{j=1}^n \gamma_{ij} \ln p_j + (\beta_i + \eta'_i \mathbf{z}) \ln \left\{ \frac{y}{m_0(\mathbf{z}) a(\mathbf{p})} \right\} \quad \langle 4-10 \rangle$$

이때, 일반적인 AIDS 모형과 마찬가지로 PS-AIDS에서도 가합성(adding-up) 조건이 만족되어야 하므로, j 번째 품목과 관련하여 r 번째 인구통계학적 특징 변수의 계수를 η_{rj} 라고 하면 $\sum_{j=1}^n \eta_{rj} = 0$ ($r = 1, 2, \dots, s$)이 성립하며, 이는 모형에 포함된 s 개의 인구통계학적 특징변수 모두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한편, AIDS 모형은 물론 PS-AIDS 모형에서도 $\alpha_i, \gamma_{ij}, \beta_i, \eta_{rj}, \mathbf{p}$ 를 추정하고 이를 분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소득에 대한 지출변화를 반영하는 소득탄력성, 자체 혹은 타 품목의 가격 변화에 대한 지출변화를 반영하는 자체-교차 가격 탄력성을 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PS-AIDS에서의 소득 및 가격 탄력성은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영향을 반영하여 다음 식 <4-11>~식 <4-15>와 같이 재정의된다. 이때, 비보상 가격탄력성의 경우 소득효과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보다 정확한 가격에 대한 수요반응을 살피기 위해서는 보상 가격탄력성이 적합하다.

$$\text{- 소득탄력성: } \mu_i = 1 + \frac{1}{\omega_i} [\beta_i + \eta'_i \mathbf{z}] \quad \langle 4-11 \rangle$$

- 비보상 자체 가격탄력성:

$$\epsilon_{ii} = -1 + \frac{1}{w_i} \left\{ \gamma_{ii} - (\beta_i + \eta'_i \mathbf{z}) \times \left(\alpha_i + \sum_l \gamma_{il} \ln p_l \right) \right\} \quad \langle 4-12 \rangle$$

- 비보상 교차 가격탄력성:

$$\epsilon_{ij} = \frac{1}{w_i} \left\{ \gamma_{ij} - (\beta_i + \eta'_i \mathbf{z}) \times \left(\alpha_j + \sum_l \gamma_{jl} \ln p_l \right) \right\} \quad \langle 4-13 \rangle$$

- 보상 자체 가격탄력성: $\epsilon_{ii}^C = \epsilon_{ii} + \mu_i w_i$ $\langle 4-14 \rangle$

- 보상 교차 가격탄력성: $\epsilon_{ij}^C = \epsilon_{ij} + \mu_i w_j$ $\langle 4-15 \rangle$

(3) 분석 자료

본 연구에서는 가구의 소비지출 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2000~2012년의 13년 동안 통계청 「가계동향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12개 품목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다($i=1,2,\dots,12$). 12개 지출품목은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등의 5개의 비서비스 품목과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의 7개의 서비스 품목으로 구분될 수 있다.

가구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징(\mathbf{z})으로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고려하여 가구구성원 수, 학령구성원 수, 가구주 성별, 맞벌이가구 여부, 가구주 자영업자 여부, 가구주 무직 여부, 가구주 연령, 가구주 출생연도(세대), 가구주 학력수준을 포함한다. 이때, 가구구성원 수, 학령구성원 수는 수량(quantitative) 변수인 반면 나머지 변수들은 질적(qualitative) 변수로 더미변수를 통해 반영한다. <표 4-1>에는 사용된 변수들의 기초통계량이 제시되어 있다.

- 가구구성원 수: 단위 (명)

- 학령구성원 수: 단위 (명)
- 가구주 성별: 여성=1, 남성=0
-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가구=1, 외벌이가구=0
- 가구주의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그 외=0
- 가구주의 무직 여부: 무직=1, 취업=0

- 가구주 연령: 총 8개 그룹으로 구성
 - 가구주 30세 미만(기준)
 - 가구주 30~35세 (예=1, 아니오=0)
 - 가구주 35~40세 (예=1, 아니오=0)
 - 가구주 40~45세 (예=1, 아니오=0)
 - 가구주 45~50세 (예=1, 아니오=0)
 - 가구주 50~55세 (예=1, 아니오=0)
 - 가구주 55~60세 (예=1, 아니오=0)
 - 가구주 60세 이상 (예=1, 아니오=0)

- 가구주 출생연도(세대): 총 11개 그룹으로 구성
 - 가구주 1940년 이전 출생(기준)
 - 가구주 1940~1945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45~1950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50~1955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55~1960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60~1965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65~1970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70~1975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75~1980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80~1985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1985년 이후 출생 (예=1, 아니오=0)

- 가구주 학력수준: 총 11개 그룹으로 구성

- 가구주 초졸(기준)
- 가구주 중졸 (예=1, 아니오=0)
- 가구주 고졸 (예=1, 아니오=0)
-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예=1, 아니오=0)

3. 분석결과

(1) PS-AIDS 추정결과

PS-AIDS 모형은 비선형(non-linear) 모형이므로, Iterated Feasible Generalized Nonlinear Least Square(IFGNLS) 방법을 사용하였다. 이 때 각 품목 수요 방정식의 오차항은 평균이 0이고 독립되어 있음을 가정한다. 또한 IFGNLS 방법을 사용할 때에는 식〈4-2〉 혹은 식〈4-8〉의 α_0 대한 값을 지정해주어야 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10을 가정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품목별로는 α_i , β_i , 품목×품목에 대해서는 γ_{ij} , 품목×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eta_{i,k}$, 인구통계학적 특징에 대해서는 p_k 를 각각 추정하였다.

〈표 4-1〉 인구통계변수 설정 및 기초 통계량

인구통계변수 설정		평균	표준오차
가구구성원 수: 단위(명)		3.319	1.058
학령구성원 수: 단위(명)		0.742	0.913
가구주 성별: 여성=1, 남성=0(기준)		0.176	0.381
맞벌이가구 여부: 맞벌이가구=1, 외벌이가구=0(기준)		0.330	0.470
가구주 자영업자 여부: 자영업자=1, 그 외=0(기준)		0.267	0.443
가구주 무직 여부: 무직=1, 취업=0(기준)		0.153	0.360
가구주 연령	가구주 30세 미만(기준)		
	가구주 30~34세(예=1, 아니오=0)	0.103	0.304
	가구주 35~39세(예=1, 아니오=0)	0.152	0.359
	가구주 40~44세(예=1, 아니오=0)	0.169	0.375
	가구주 45~49세(예=1, 아니오=0)	0.154	0.361
	가구주 50~54세(예=1, 아니오=0)	0.119	0.323
	가구주 55~59세(예=1, 아니오=0)	0.087	0.282
	가구주 60세 이상(예=1, 아니오=0)	0.178	0.382
가구주 출생 연도	가구주 1940년 이전 출생(기준)		
	가구주 1940~1944년 출생(예=1, 아니오=0)	0.060	0.237
	가구주 1945~1949년 출생(예=1, 아니오=0)	0.081	0.274
	가구주 1950~1954년 출생(예=1, 아니오=0)	0.099	0.298
	가구주 1955~1959년 출생(예=1, 아니오=0)	0.145	0.352
	가구주 1960~1964년 출생(예=1, 아니오=0)	0.169	0.375
	가구주 1965~1969년 출생(예=1, 아니오=0)	0.151	0.358
	가구주 1970~1974년 출생(예=1, 아니오=0)	0.130	0.336
	가구주 1975~1979년 출생(예=1, 아니오=0)	0.061	0.239
	가구주 1980~1984년 출생(예=1, 아니오=0)	0.019	0.136
	가구주 1985년 이후 출생(예=1, 아니오=0)	0.002	0.046
가구주 학력 수준	가구주 학력_초졸(기준)		
	가구주 학력_중졸(예=1, 아니오=0)	0.124	0.330
	가구주 학력_고졸(예=1, 아니오=0)	0.398	0.490
	가구주 학력_대학재학 이상(예=1, 아니오=0)	0.361	0.480

추정결과, <표 4-2>에서 서비스 품목에 해당하는 ‘교육’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에서 α_i, β_i 는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α_i 는 각 품목별 지출비율과 관련된 수요함수의 상수항으로서, 다른 변수들의 영향을 통제한 후, 즉 가격 변화나 지출 변화가 없을 때 평균적인 지출비율을 반영한다. 추정결과 α_i 의 12개 품목의 계수 값은 모두 1% 수준에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품목별 계수 값의 크기는 주거 및 수도·광열에서 최대값인 0.1327을 나타냈으며, 주류 및 담배의 계수 값이 0.0231로 가장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지출 품목 중에서는 음식·숙박의 계수 값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으며,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기타상품 및 서비스의 순으로 계수 값이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한편, 기본 AIDS 모형에서 β_i 는 $\ln \frac{y}{P}$ 의 계수로 가격지수(P)로 디플레이트(deflate)된 지출(소득)액, 즉 실질 지출(소득)액의 각 품목 지출비율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는 계수 값이다. 하지만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영향을 반영하는 PS-AIDS 모형에서의 β_i 는 인구통계학적 요인에 의해 추가적으로 디플레이트된 실질 지출(소득)액 $\ln \left\{ \frac{y}{m_0(z) a(p)} \right\}$ 의 계수 $(\beta_i + \eta'_i z)$ 중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을 제외한 실질 지출(소득)액의 각 품목 지출비율에 대한 평균적 영향만을 반영하는 계수 값을 의미한다. 따라서 β_i 는 실질 지출(소득)액의 변화가 각 품목들의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소득효과 혹은 소득탄력성에 대한 대략적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나,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에 주의하여야 한다.

PS-AIDS 모형을 통해 추정된 β_i 의 계수 값을 살펴보면, 교육을 제

외한 모든 지출 품목에서 실질 지출(소득)액의 β_i 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β_i 관련 추정결과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먼저 비서비스 지출품목 중에서는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서비스 품목의 지출에서는 보건 부문이 음(-)의 값을 가진 품목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β_i 의 추정계수가 유의한 음(-)의 값을 갖는다는 것은 총지출액(혹은 소득액)이 증가할 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 중 평균적으로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이들 품목 중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보건에 대한 지출이 비서비스부문과 서비스부문의 지출에 있어 가장 작은 음(-)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와 보건부문에서의 지출이 지출(소득) 증가 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할 가능성이 높은 품목임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비서비스 중예선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가, 서비스 중예선 음식·숙박이 가장 큰 양(+)의 추정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와 음식·숙박에 대한 지출은 총지출액(혹은 소득액)이 증가할 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비서비스와 서비스 품목들 중 평균적으로 가장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특히, 음식·숙박의 경우 β_i 추정계수가 가장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전체 12개 소비지출 품목 중 지출(소득) 증가 시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β_i 의 추정계수를 볼 때 전반적으로는 서비스에 속하는 품목들이 비서비스 품목들보다 좀 더 큰 값을 가져, 비서비스 품목보다 서비스 품목들이 총지출액(혹은 소득액)이 증가할 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표 4-2〉 추정결과 : α_i (상수항), β_i (deflated income의 평균영향)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α_i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2434	***	282.62	0
주류 및 담배	0.0231	***	106.55	0
의류 및 신발	0.0471	***	101.39	0
주거 및 수도광열	0.1327	***	185.02	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301	***	56.00	0
서비스				
보건	0.0934	***	134.01	0
교통	0.0861	***	106.42	0
통신	0.0828	***	239.67	0
오락·문화	0.0360	***	75.65	0
교육	0.0266	***	32.88	0
음식·숙박	0.1228	***	167.24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761	***	123.52	0
β_i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1424	***	-41.44	0
주류 및 담배	-0.0052	***	-5.27	0
의류 및 신발	0.0140	***	6.83	0
주거 및 수도광열	-0.0344	***	-12.06	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176	***	7.75	0
서비스				
보건	-0.0711	***	-19.66	0
교통	0.0530	***	13.21	0
통신	0.0445	***	27.31	0
오락·문화	0.0184	***	9.05	0
교육	-0.0003		-0.07	0.947
음식·숙박	0.0846	***	27.37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213	***	7.24	0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을 보여준다. 또한, 소득 변화에 대해 서비스 품목들이 비서비스 품목들에 비해 좀 더 민감하게 반응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준다.

한편, <표 4.3>에는 각 품목별로 자체 가격과 다른 품목들의 가격의 지출 비중에 대한 영향을 반영하는 γ_{ij} 추정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여기서 γ_{ii} 는 자체 가격의 영향($i=j$), 다른 품목 가격의 영향($i \neq j$)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자체 가격 탄력성, 교차 가격 탄력성에 대한 대략적 예상을 가능하게 해주나, 탄력성의 도출에는 지출 비중, 소득효과 등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므로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먼저 γ_{ii} ($i=j$), 즉 자체 가격의 영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비서비스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료 및 신발, 서비스 중 교통, 오락·문화가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가지는 반면, 서비스 품목에 해당되는 보건, 통신, 교육만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료 및 신발, 서비스 중 교통, 오락·문화는 자체 가격이 증가할 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반해, 보건, 통신, 교육은 자체 가격이 증가할 때 전체 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한편, γ_{ii} 와 관련하여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는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γ_{ij} 의 추정계수를 통해 다른 품목 가격의 영향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는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볼 때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품목 조합들이 양(+)의 계수 값을 가지는 품목 조합보다 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만약 γ_{ij} 가 양(+)의

〈표 4-3〉 추정결과 : $\gamma_{ij}(\sum_{j=1}^n \gamma_{ij} \ln p_j$ 에서 각 품목 가격들의 영향)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γ_{ij}					
i	j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0384	***	3.96	0
	주류 및 담배	0.0091	**	2.34	0.019
	의류 및 신발	-0.0041		-0.44	0.658
	주거 및 수도광열	0.0650	***	4.00	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332	***	2.91	0.004
	보건	0.0197	**	2.13	0.033
	교통	-0.0334	***	-4.32	0
	통신	-0.0399	***	-6.38	0
	오락·문화	0.0066		0.66	0.508
	교육	-0.0731	***	-6.96	0
	음식·숙박	-0.0047		-0.20	0.845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168	**	-2.17	0.03
	주류 및 담배	0.0136	***	4.61	0
	의류 및 신발	-0.0009		-0.16	0.869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0.0099		0.93	0.35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164	***	-2.58	0.01
	보건	-0.0042		-0.76	0.45
	교통	-0.0028		-0.70	0.484
	통신	0.0239	***	7.13	0
	오락·문화	-0.0244	***	-4.14	0
	교육	0.0054		0.97	0.334
	음식·숙박	-0.0084		-0.73	0.467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49		-1.10	0.273
	의류 및 신발	0.0565	***	2.94	0.003
	주거 및 수도광열	0.0234		0.92	0.35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422	***	2.58	0.01
	보건	-0.0348	***	-3.12	0.002
	교통	0.0333	***	3.50	0
의류 및 신발	통신	-0.0244	***	-3.07	0.002
	오락·문화	0.0597	***	3.95	0
	교육	-0.0318	**	-2.45	0.014
	음식·숙박	-0.1218	***	-4.49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25		0.21	0.833
	주거 및 수도광열	0.0840		1.39	0.16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653	**	-2.36	0.018
	보건	-0.0551	**	-2.27	0.023
	교통	0.0061		0.34	0.736
	통신	0.0566	***	3.58	0
	오락·문화	-0.1284	***	-4.30	0
	교육	-0.0525	**	-2.19	0.028
	음식·숙박	-0.0090		-0.17	0.868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653	***	3.15	0.002

(계속)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184		0.502
	보건	0.0035		0.797
	교통	0.0134		0.204
	통신	0.0334	***	0.001
	오락·문화	-0.0389	**	0.039
	교육	0.0183		0.229
	음식·숙박	0.0024		0.946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74		0.605
보건	보건	-0.0780	***	0
	교통	-0.0114		0.288
	통신	0.0546	***	0
	오락·문화	-0.0506	***	0
	교육	0.0964	***	0
	음식·숙박	0.0153		0.563
교통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446	***	0
	교통	0.0790	***	0
	통신	-0.0405	***	0
	오락·문화	0.0554	***	0
	교육	-0.0310	**	0.011
	음식·숙박	-0.0300	*	0.094
통신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380	***	0
	통신	-0.0614	***	0
	오락·문화	0.0176	*	0.082
	교육	-0.0001		0.993
	음식·숙박	0.0118		0.482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317	***	0
오락·문화	오락·문화	0.0474	**	0.05
	교육	0.0005		0.975
	음식·숙박	0.0513		0.126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37		0.762
교육	교육	-0.0335	*	0.077
	음식·숙박	0.0917	***	0.001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98		0.376
음식·숙박	음식·숙박	0.0422		0.639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406	*	0.068
기타상품 및 서비스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134		0.275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소비지출 품목 간에 대체적(substitute) 관계가,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보완적(complementary) 관계의 가능성이 크다.

γ_{ij} 의 추정계수 값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보완적 관계인 품목 조합들이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의류 및

신발 vs 음식·숙박(-0.1218), 주거 및 수도광열 vs 오락·문화(-0.1284)의 경우에는 γ_{ij} 가 상대적으로 작은 음(-)의 계수 값을 가져 보완적 관계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서비스 품목 간 관계를 보면, 보건 vs 통신 및 교육, 오락·문화 vs 교통 및 통신, 교육 vs 음식·숙박은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며 보건 vs 오락·문화, 교통 vs 통신, 교육은 음(-)의 계수 값을 가져 보완적 관계가 강할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기본적인 AIDS 모형은 가격지수가 총지출액(소득)의 디플레이터(deflator) 역할을 하나, PS-AIDS 모형에서는 이와 더불어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영향을 반영하는 $\bar{m}_0(\mathbf{z}) = 1 + \mathbf{p}'\mathbf{z}$ 역시 총지출의 디플레이터 역할을 하게 된다. 따라서 만약 특정 인구통계학적 특징 \mathbf{z}_k 의 계수 p_k 가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실질 총지출액(혹은 실질 총소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며,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는 실질 총지출액(혹은 실질 총소득)을 감소시키는 역할을 수행함을 의미한다.

〈표 4-4〉는 \mathbf{p} 의 추정결과, 즉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이 총지출액(소득)의 디플레이션(deflation)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가를 보여주고 있다.²⁰⁾ 추정결과, 모든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반영하는 추정계수 값(p_k)은 1%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구조를 분석함에 있어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통제가 필수적임을 보여주고 있다. 이를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가구구성원 수, 자영업자, 무직에서 양(+)의 계수 값을 가지며, 그 외의 경우 모두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

20) 이때, \mathbf{p} 는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하게 추정한다.

다. 이는 가구구성원 수가 늘어나거나, 직장을 다니는 가구주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주일수록, 취업자 가구주에 비해 무직자 가구주일수록 디플레이터는 증가하여 실질 총지출액(소득) 혹은 가용예산이 감소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만 6세 이상 19세 이하의 학령구성원 수가 증가하거나, 가구주가 여성일수록, 맞벌이가구일수록 디플레이터가 감소하여 실질 총지출액(소득) 혹은 가용예산이 증가함을 의미한다. 한편, 가구주 연령, 가구주 세대, 가구주 교육수준의 경우에는 모두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가구주 출생연도가 최근일수록(즉 후세대일수록), 가구주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디플레이터가 감소하여 가구의 실질 총지출액(소득) 혹은 가용예산이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육수준의 경우 직관과 부합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가구주 연령과 세대효과와 관련된 추정결과는 상호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나 연령과 세대는 상호간에 관련성이 매우 높아 두 효과를 동시에 복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즉, 출생연도 혹은 세대 관점에서 볼 때는 연령이 낮은 가구주일수록 실질 지출액이 높아지나 가구주 연령 관점에서 보면 이와 반대인 것처럼 보이는 결과를 낳는다. 이는 연령과 세대의 효과를 분해(decomposition)했음에 기인한 바, 각각의 추정결과는 순수한 연령과 세대의 효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²¹⁾

이어서 품목×인구통계학적 특징에 관한 추정계수 값을 나타내는 η_i 의 추정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에서 β_i 가 인구통계학적 요인

21) 예를 들어, 2000년도에 35세인 가구주와 2012년도의 35세인 가구주는 연령은 같으나 출생연도 기준으로는 각각 1960~1965년, 1975~1980년으로 전혀 다른 세대에 해당되므로 연령과 세대의 순효과(net effect)는 다르게 되므로, 복합적으로 해석.

에 의해 추가적으로 디플레이트된 실질 지출(소득)액 $\ln \left\{ \frac{y}{m_0(z) a(p)} \right\}$ 의 계수 $(\beta_i + \eta'_i z)$ 중 실질 지출(소득)액의 각 품목 지출비율에 대한

〈표 4-4〉 추정결과 : p (income deflator)의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p_k				
가구구성원 수	0.0373	***	27.69	0
학령구성원 수	-0.0317	***	-17.40	0
가구주 성별_여성	-0.0547	***	-23.02	0
맞벌이가구	-0.0277	***	-11.82	0
가구주 자영업자	0.0289	***	11.88	0
가구주 무직	0.0346	***	12.79	0
가구주 30~35세	-0.0831	***	-13.38	0
가구주 35~40세	-0.1433	***	-22.76	0
가구주 40~45세	-0.1878	***	-27.36	0
가구주 45~50세	-0.2032	***	-28.25	0
가구주 50~55세	-0.2295	***	-30.84	0
가구주 55~60세	-0.2245	***	-29.33	0
가구주 60세 이상	-0.2635	***	-36.41	0
가구주 1940~1945 출생	-0.3306	***	-48.15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3737	***	-55.27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4384	***	-61.30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5250	***	-72.87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5719	***	-79.73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6302	***	-88.77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6987	***	-102.43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7724	***	-111.88	0
가구주 1980~1985 출생	-0.8300	***	-100.83	0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9136	***	-70.01	0
가구주 학력수준_중졸	-0.0006		-0.19	0.85
가구주 학력수준_고졸	-0.0215	***	-6.80	0
가구주 학력수준_대학재학 이상	-0.0313	***	-8.94	0

평균적 영향을 반영한 것과 달리, η_i 는 실질 지출(소득)액의 각 품목 지출비율에 대한 영향이 인구통계학적 특징들(z)에 따라 변화하는 정도를 반영한다. 또한 인구통계학적 특징을 반영하여 총지출액(소득) 디플레이터의 역할을 하고 있는 p 가 모든 품목에 대해 동일하게 추정되도록 설정된 것과는 달리, η_i 는 각 품목별로 차별적으로 설정되어 추정된다. 즉, 어떤 품목 i 와 관련된 특정 인구통계학적 특징 z_k 의 계수 η_{ik} 가 추정되며 η_{ik} 가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실질 지출(소득)액의 각 품목 지출비율에 대한 평균적 영향을 양(+)의 방향으로 이동시키며,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경우에는 실질 지출(소득)액의 각 품목 지출비율에 대한 평균적 영향을 음(-)의 방향으로 이동시킨다.

〈표 4-5〉는 η_{ik} 중 가구구성원 수, 학령구성원 수와 관련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구구성원 수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를 제외하면 모두 1% 수준에서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 교육, 기타 상품 및 서비스는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어 가구구성원 수가 1명 늘어날수록 실질 지출액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율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반면,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교통, 통신, 오락·문화, 음식·숙박은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학령구성원 수는 모든 품목에서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 통신, 오락·문화, 교육은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는

〈표 4-5〉 추정결과 :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구성원 수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0005		1.37	0.172
주류 및 담배	-0.0003	***	-3.66	0
의류 및 신발	-0.0017	***	-10.54	0
주거 및 수도광열	-0.0011	***	-4.79	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000		-0.11	0.915
서비스				
보건	0.0018	***	6.42	0
교통	-0.0014	***	-4.42	0
통신	-0.0015	***	-11.11	0
오락·문화	-0.0009	***	-5.68	0
교육	0.0040	***	10.93	0
음식·숙박	-0.0043	***	-18.23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51	***	21.28	0
η_{ik} 학령구성원 수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0041	***	9.53	0
주류 및 담배	-0.0005	***	-5.5	0
의류 및 신발	-0.0013	***	-6.74	0
주거 및 수도광열	0.0014	***	4.97	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036	***	-16.94	0
서비스				
보건	-0.0058	***	-16.96	0
교통	-0.0100	***	-26.18	0
통신	0.0005	***	3.37	0.001
오락·문화	0.0005	**	2.56	0.011
교육	0.0315	***	56.51	0
음식·숙박	-0.0023	***	-8.16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146	***	-49.78	0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6〉은 η_{ik} 중 가구주 성별, 맞벌이가구 여부와 관련된 추정결

〈표 4-6〉 추정결과 :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주 성별-여성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0079	***	11.71	0
주류 및 담배	-0.0026	***	-14.42	0
의류 및 신발	0.0035	***	9.59	0
주거 및 수도광열	0.0062	***	12.32	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008	**	-2.14	0.032
서비스				
보건	0.0028	***	4.52	0
교통	-0.0130	***	-18.66	0
통신	0.0024	***	8.32	0
오락·문화	-0.0030	***	-8.31	0
교육	0.0027	***	3.3	0.001
음식·숙박	-0.0120	***	-22.67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59	***	11.47	0
η_{ik} 맞벌이가구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0027	***	-4.71	0
주류 및 담배	0.0008	***	6.63	0
의류 및 신발	0.0006	**	2.34	0.019
주거 및 수도광열	-0.0012	***	-3.18	0.00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008	***	-2.72	0.007
서비스				
보건	-0.0035	***	-7.63	0
교통	0.0023	***	4.4	0
통신	0.0019	***	8.9	0
오락·문화	-0.0042	***	-15.73	0
교육	-0.0050	***	-7.91	0
음식·숙박	0.0065	***	17.17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52	***	14.23	0

과를 제시하고 있는데, 모든 품목에서 유의한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율을 보면, 가구주가 여성인

경우 오락·문화와 음식·숙박을 제외하고는 모두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어 상대적으로 남성 가구주에 비해 실질 지출액에서 이들 품목이 차지하는 지출 비율이 더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반면 맞벌이가구의 경우에는 보건, 오락·문화 및 교육부문에서는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나머지 서비스 품목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외벌이가구에 비해 실질 지출액에서 보건, 오락·문화 및 교육의 지출비중이 추정계수 값만큼 더 크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표 4-7〉에서는 η_{ik} 중 가구주 자영업자 여부, 무직자 여부가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추정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가구주가 자영업자 여부의 영향을 보면 비서비스부문에서는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에서만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또한 서비스부문에서는 보건, 교통, 통신, 음식·숙박에서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기타상품 및 서비스에서만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보건, 교통, 통신, 음식·숙박에서의 지출비중은 비자영업자 가구에 비해 자영업자 가구에서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가구주가 무직인 경우 서비스부문의 지출은 교통과 음식·숙박에서는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보건, 오락·문화 및 교육에서는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8〉은 가구주 연령에 따른 지출비중의 변화와 관련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서비스부문의 결과를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는 가구주 연령이 증가할수록 추정계수 값이 커지고 있으나,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의 지출비중은 가

〈표 4-7〉 추정결과 : η_{ik} (인구통계변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주 자영업자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0031	***	-5.14	0
주류 및 담배	0.0002		1.28	0.199
의류 및 신발	0.0002		0.6	0.548
주거 및 수도광열	-0.0009	**	-2.18	0.02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004		-1.39	0.163
서비스				
보건	-0.0051	***	-9.96	0
교통	-0.0027	***	-4.79	0
통신	0.0035	***	14.73	0
오락·문화	-0.0002		-0.57	0.567
교육	0.0104	***	14.39	0
음식·숙박	-0.0047	***	-11.22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28	***	6.98	0
η_{ik} 가구주 무직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0007		-0.88	0.379
주류 및 담배	-0.0009	***	-3.71	0
의류 및 신발	0.0003		0.67	0.504
주거 및 수도광열	0.0011		1.6	0.1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0010	*	1.79	0.074
서비스				
보건	0.0025	***	2.83	0.005
교통	-0.0092	***	-9.33	0
통신	0.0001		0.27	0.788
오락·문화	0.0028	***	5.59	0
교육	0.0159	***	14.31	0
음식·숙박	-0.0155	***	-20.48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024	***	3.41	0.001

구주 연령이 커질수록 추정계수 값은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한 의류 및 신발은 가구주 45~50세까지는 감소하다가 다시 증가하는

〈표 4-8〉 추정결과 : η_{ik} (인구통계변수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주 연령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구주 30~35세	0.0217	***	10.6	0
	가구주 35~40세	0.0353	***	16.75	0
	가구주 40~45세	0.0426	***	18.86	0
	가구주 45~50세	0.0418	***	17.62	0
	가구주 50~55세	0.0449	***	17.81	0
	가구주 55~60세	0.0490	***	17.74	0
	가구주 60세 이상	0.0598	***	19.47	0
주류 및 담배	가구주 30~35세	0.0012	***	2.9	0.004
	가구주 35~40세	0.0028	***	6.18	0
	가구주 40~45세	0.0042	***	8.36	0
	가구주 45~50세	0.0044	***	7.95	0
	가구주 50~55세	0.0049	***	7.92	0
	가구주 55~60세	0.0058	***	7.84	0
	가구주 60세 이상	0.0056	***	6.17	0
의류 및 신발	가구주 30~35세	-0.0055	***	-6.1	0
	가구주 35~40세	-0.0089	***	-9.16	0
	가구주 40~45세	-0.0092	***	-8.58	0
	가구주 45~50세	-0.0092	***	-7.89	0
	가구주 50~55세	-0.0061	***	-4.65	0
	가구주 55~60세	-0.0011		-0.73	0.465
	가구주 60세 이상	0.0002		0.1	0.918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주 30~35세	0.0064	***	5.06	0
	가구주 35~40세	0.0102	***	7.35	0
	가구주 40~45세	0.0095	***	6.2	0
	가구주 45~50세	0.0050	***	2.98	0.003
	가구주 50~55세	0.0014		0.77	0.442
	가구주 55~60세	-0.0029		-1.32	0.186
	가구주 60세 이상	-0.0029		-1.1	0.271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주 30~35세	-0.0019	**	-2.08	0.037
	가구주 35~40세	-0.0068	***	-6.63	0
	가구주 40~45세	-0.0123	***	-10.77	0
	가구주 45~50세	-0.0174	***	-13.81	0
	가구주 50~55세	-0.0204	***	-14.42	0
	가구주 55~60세	-0.0185	***	-10.96	0
	가구주 60세 이상	-0.0211	***	-10.19	0

(계속)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주 자영업자 서비스					
보건	가구주 30~35세	0.0046	***	3.21	0.001
	가구주 35~40세	0.0035	**	2.22	0.026
	가구주 40~45세	0.0057	***	3.19	0.001
	가구주 45~50세	0.0044	**	2.22	0.027
	가구주 50~55세	0.0037		1.64	0.102
	가구주 55~60세	0.0073	***	2.76	0.006
	가구주 60세 이상	0.0193	***	5.88	0
교통	가구주 30~35세	-0.0179	***	-10.31	0
	가구주 35~40세	-0.0281	***	-14.92	0
	가구주 40~45세	-0.0323	***	-15.57	0
	가구주 45~50세	-0.0344	***	-15.21	0
	가구주 50~55세	-0.0304	***	-12.05	0
	가구주 55~60세	-0.0200	***	-6.67	0
	가구주 60세 이상	-0.0117	***	-3.2	0.001
통신	가구주 30~35세	-0.0071	***	-10.92	0
	가구주 35~40세	-0.0078	***	-10.56	0
	가구주 40~45세	-0.0048	***	-5.84	0
	가구주 45~50세	-0.0031	***	-3.45	0.001
	가구주 50~55세	-0.0034	***	-3.35	0.001
	가구주 55~60세	-0.0104	***	-8.52	0
	가구주 60세 이상	-0.0173	***	-11.56	0
오락·문화	가구주 30~35세	-0.0040	***	-4.61	0
	가구주 35~40세	-0.0082	***	-8.54	0
	가구주 40~45세	-0.0142	***	-13.49	0
	가구주 45~50세	-0.0185	***	-16.07	0
	가구주 50~55세	-0.0210	***	-16.36	0
	가구주 55~60세	-0.0205	***	-13.49	0
	가구주 60세 이상	-0.0181	***	-9.73	0
교육	가구주 30~35세	0.0036	**	2.2	0.028
	가구주 35~40세	0.0144	***	7.59	0
	가구주 40~45세	0.0209	***	9.22	0
	가구주 45~50세	0.0419	***	16.12	0
	가구주 50~55세	0.0416	***	14.49	0
	가구주 55~60세	0.0157	***	4.82	0
	가구주 60세 이상	-0.0048		-1.22	0.223
음식·숙박	가구주 30~35세	-0.0094	***	-7.69	0
	가구주 35~40세	-0.0120	***	-8.84	0
	가구주 40~45세	-0.0098	***	-6.45	0
	가구주 45~50세	-0.0088	***	-5.23	0
	가구주 50~55세	-0.0049	***	-2.61	0.009
	가구주 55~60세	-0.0004		-0.2	0.845
	가구주 60세 이상	-0.0009		-0.33	0.739
기타상품 및 서비스	가구주 30~35세	0.0084	***	6.65	0
	가구주 35~40세	0.0057	***	4.13	0
	가구주 40~45세	-0.0001		-0.09	0.928
	가구주 45~50세	-0.0061	***	-3.72	0
	가구주 50~55세	-0.0102	***	-5.58	0
	가구주 55~60세	-0.0040	*	-1.86	0.063
	가구주 60세 이상	-0.0080	***	-3	0.003

〈표 4-9〉 추정결과 :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주 출생연도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구주 1940~1945 출생	-0.0153	***	-8.7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090	***	-4.67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004		-0.19	0.845
	가구주 1955~1960 출생	0.0114	***	4.56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155	***	5.87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210	***	7.55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0300	***	10.36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396	***	12.73	0
	가구주 1980~1985 출생	0.0486	***	13.1	0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735	***	13.26	0
주류 및 담배	가구주 1940~1945 출생	-0.0103	***	-18.33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091	***	-15.28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072	***	-10.54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050	***	-6.83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039	***	-5.06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022	***	-2.72	0.007
	가구주 1970~1975 출생	-0.0005		-0.58	0.56
	가구주 1975~1980 출생	0.0011		1.2	0.228
	가구주 1980~1985 출생	0.0034	***	3.43	0.001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046	***	3.45	0.001
의류 및 신발	가구주 1940~1945 출생	0.0070	***	6.09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089	***	7.25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076	***	5.4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068	***	4.51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062	***	3.94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066	***	4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0062	***	3.58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055	***	2.99	0.003
	가구주 1980~1985 출생	0.0043	**	2.05	0.041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020		0.67	0.503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주 1940~1945 출생	0.0025		1.57	0.117
	가구주 1945~1950 출생	0.0045	***	2.68	0.007
	가구주 1950~1955 출생	0.0032	*	1.65	0.098
	가구주 1955~1960 출생	-0.0023		-1.1	0.27
	가구주 1960~1965 출생	-0.0049	**	-2.23	0.026
	가구주 1965~1970 출생	-0.0070	***	-3.04	0.002
	가구주 1970~1975 출생	-0.0067	***	-2.75	0.006
	가구주 1975~1980 출생	-0.0052	**	-2	0.046
	가구주 1980~1985 출생	-0.0039		-1.34	0.181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069	*	1.76	0.07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주 1940~1945 출생	0.0239	***	18.48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213	***	15.52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135	***	8.65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096	***	5.72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068	***	3.85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044	**	2.37	0.018
	가구주 1970~1975 출생	0.0022		1.15	0.248
	가구주 1975~1980 출생	-0.0007		-0.36	0.722
	가구주 1980~1985 출생	-0.0043	*	-1.89	0.059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149	***	-4.96	0

(계속)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주 출생연도					
서비스					
보건	가구주 1940~1945 출생	0.0595	***	28.95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535	***	24.54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496	***	20.02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512	***	19.33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498	***	17.76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507	***	17.19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0519	***	16.75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549	***	16.71	0
	가구주 1980~1985 출생	0.0554	***	15.31	0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496	***	10.06	0
교통	가구주 1940~1945 출생	0.0134	***	5.87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288	***	11.85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324	***	11.63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255	***	8.6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234	***	7.5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228	***	6.99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0184	***	5.38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097	***	2.67	0.008
	가구주 1980~1985 출생	-0.0010		-0.24	0.812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119	**	-2.21	0.027
통신	가구주 1940~1945 출생	-0.0425	***	-45.13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508	***	-50.64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457	***	-40.03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429	***	-35.38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432	***	-33.83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425	***	-31.73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0400	***	-28.51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366	***	-24.6	0
	가구주 1980~1985 출생	-0.0310	***	-19.02	0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313	***	-14.49	0
오락·문화	가구주 1940~1945 출생	0.0150	***	12.93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152	***	12.35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161	***	11.47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123	***	8.23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101	***	6.4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055	***	3.31	0.001
	가구주 1970~1975 출생	0.0009		0.5	0.619
	가구주 1975~1980 출생	-0.0026		-1.38	0.168
	가구주 1980~1985 출생	-0.0061	***	-2.95	0.003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083	***	-2.89	0.004
교육	가구주 1940~1945 출생	-0.0139	***	-5.86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210	***	-8.31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166	***	-5.79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125	***	-4.04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083	**	-2.49	0.013
	가구주 1965~1970 출생	-0.0094	***	-2.63	0.009
	가구주 1970~1975 출생	-0.0151	***	-4.05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192	***	-4.89	0
	가구주 1980~1985 출생	-0.0203	***	-4.76	0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096	*	-1.67	0.094

(계속)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음식·숙박	가구주 1940~1945 출생	-0,0439	***	-25,08	0
	가구주 1945~1950 출생	-0,0484	***	-26,1	0
	가구주 1950~1955 출생	-0,0442	***	-20,94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418	***	-18,53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374	***	-15,7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360	***	-14,39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0362	***	-13,8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371	***	-13,31	0
	가구주 1980~1985 출생	-0,0348	***	-11,26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379	***	-9,25	0
	가구주 1940~1945 출생	0,0046	***	2,78	0,005
	가구주 1945~1950 출생	0,0060	***	3,39	0,001
	가구주 1950~1955 출생	-0,0083	***	-4,11	0
	가구주 1955~1960 출생	-0,0122	***	-5,68	0
	가구주 1960~1965 출생	-0,0141	***	-6,23	0
	가구주 1965~1970 출생	-0,0139	***	-5,86	0
	가구주 1970~1975 출생	-0,0111	***	-4,45	0
	가구주 1975~1980 출생	-0,0094	***	-3,54	0
	가구주 1980~1985 출생	-0,0103	***	-3,44	0,001
	가구주 1985 이후 출생	-0,0228	***	-5,9	0

U자형 추세를 따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서비스 품목들에 한해 가구주 연령과 관련된 추정결과를 보면, 보건의 경우 추정계수 값은 가구주 연령 증가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통과 통신의 경우는 역U자형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통신의 경우는 젊은 연령대에서의 지출비중이 높으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점차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9〉에서는 가구주 출생연도, 즉 세대(generation)별 지출비중의 변화와 관련된 추정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먼저 비서비스부문의 결과를 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의 경우 기준세대인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출생연도가 늦은 세대의 지출비중은 1950년 이전 출생세대까지는 감소하다 그 이후 출생세대에서는 상대적으로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 및 신발의 경우는 1940년 이후 출생세대가

〈표 4-10〉 추정결과 : η_{ik} (인구통계변수 계수-deflated income 계수)

추정계수		추정계수 값		t-값	p-값
η_{ik} 가구주 교육수준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가구주 중졸	-0.0026	**	-2.26	0.024
	가구주 고졸	0.0042	***	4.01	0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70	***	6.49	0
주류 및 담배	가구주 중졸	0.0010	***	2.79	0.005
	가구주 고졸	-0.0009	***	-2.88	0.004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32	***	-9.89	0
의류 및 신발	가구주 중졸	0.0021	***	2.88	0.004
	가구주 고졸	0.0063	***	9.78	0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94	***	14.16	0
주거 및 수도광열	가구주 중졸	-0.0037	***	-3.72	0
	가구주 고졸	0.0018	**	2.03	0.042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53	***	5.86	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구주 중졸	0.0020	**	2.41	0.016
	가구주 고졸	0.0008		1.06	0.29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12		1.57	0.116
서비스					
보건	가구주 중졸	-0.0035	***	-2.73	0.006
	가구주 고졸	-0.0039	***	-3.38	0.001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25	**	-2.19	0.029
교통	가구주 중졸	0.0022		1.53	0.127
	가구주 고졸	-0.0045	***	-3.49	0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52	***	-3.97	0
통신	가구주 중졸	0.0005		0.81	0.418
	가구주 고졸	-0.0042	***	-7.92	0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108	***	-19.92	0
오락·문화	가구주 중졸	0.0016	**	2.15	0.031
	가구주 고졸	0.0061	***	9.34	0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111	***	16.69	0
교육	가구주 중졸	0.0040	***	2.63	0.009
	가구주 고졸	0.0074	***	5.4	0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97	***	6.93	0
음식·숙박	가구주 중졸	-0.0045	***	-4.14	0
	가구주 고졸	-0.0103	***	-10.56	0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166	***	-16.81	0
기타상품 및 서비스	가구주 중졸	0.0011		1.04	0.297
	가구주 고졸	-0.0028	***	-3.04	0.002
	가구주 대학재학 이상	-0.0054	***	-5.69	0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더 큰 지출 비중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품목의 경우를 보면, 보건의 경우 추정계수 값이 1940년 이후 출생세대 모두에서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다. 반면, 통신과 음식·숙박에서는 유의한 음(-)의 계수 값을 보이고 있으나 그 계수 값은 세대가 젊어질수록 작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표 4-10〉에서는 가구주 학력수준에 따른 지출비중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초등학교를 졸업한 가구주를 기준으로 할 때 보건부문의 추정계수 값은 중졸, 고졸,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수준 모두에서 유의한 음(-)의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초졸 가구주의 대부분이 고령세대에 집중되어 있어 상대적으로 보건부문에 대한 지출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오락·문화와 교육부문에서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유의한 양(+)의 계수 값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력수준이 높을수록 소득수준이 높고 이에 따라 전체 지출에서 의·식·주가 차지하는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의·식·주 이외의 교육과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 여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2) 탄력성 추정결과

PS-AIDS 모형을 포함한 AIDS 모형들에서는 일반적으로 모형의 추정계수들 자체보다 소비 품목들의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도출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영향을 반영한 PS-AIDS 모형을 통해 구해진 추정계수 값과 식〈4-11〉~〈4-15〉를 기반으로 소득 및 가격탄력성을 구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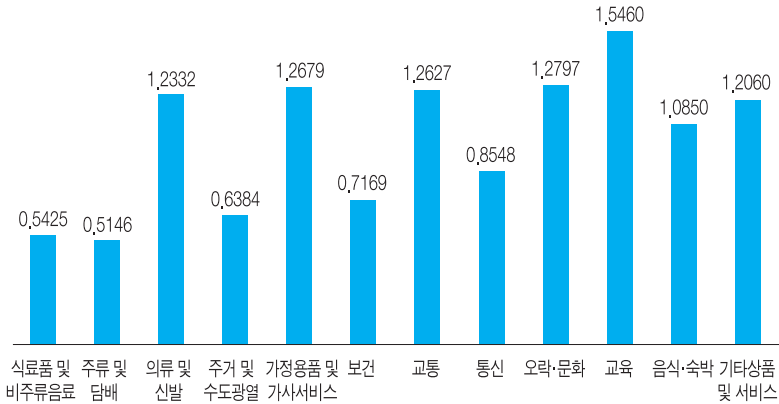
1) 소득탄력성

〈표 4-11〉과 〈그림 4-1〉에는 모형에 포함된 변수들-가격, 지출비중, 총지출액,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의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이 제시되어 있다. 구해진 결과를 살펴보면 12개 지출품목 모두에서 소득탄력성이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모든 품목은 정상재(normal good)로 확인되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은 비서비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 서비스 품목들이 가구의 소득 변화에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며, 향후 가구소득이 늘어날 경우 서비스 품목들에 대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된다. 이는 앞에서 실질 지출(소득)액

〈표 4-11〉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

	소득탄력성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5425
주류 및 담배	0.5146
의류 및 신발	1.2332
주거 및 수도광열	0.638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2679
서비스	
보건	0.7169
교통	1.2627
통신	0.8548
오락·문화	1.2797
교육	1.5460
음식·숙박	1.0850
기타상품 및 서비스	1.2060

〈그림 4-1〉 품목별 소득탄력성 비교



의 변화가 각 품목들의 지출비율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는 β_i 의 추정결과와 일맥상통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를 세부 품목별로 살펴보면 전체 지출 품목 중 교육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1.546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비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의류 및 신발,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서비스 품목 중에서는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들이 소득변화에 민감한 사치재(luxury good)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비서비스 품목 중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 서비스 품목 중 보건 및 통신은 소득탄력성이 1보다 작아 소득변화에 둔감한 필수재(necessities)적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가격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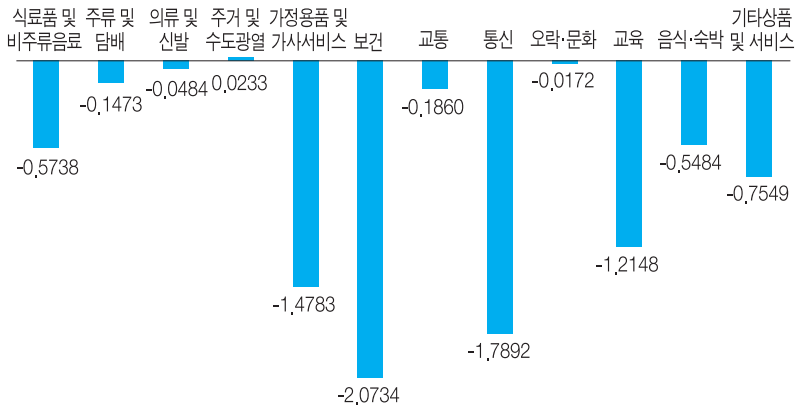
가격, 지출비중, 총지출액, 인구통계학적 변수 등을 고려한 수요함수 모형을 대상으로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보상가격탄력성은 <표 4-12>에 제시되어 있다.²²⁾ 여기서 음영으로 처리된 <표 4-12>의 대각(diagonal) 영역은 자기가격탄력성을 의미하며, 나머지 비대각(off-diagonal) 부분은 교차가격탄력성을 의미한다.

먼저 보상 자체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주거 및 수도광열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의 자체가격탄력성 값이 음(-)의 값을 가져 가격이 상승할 경우 해당 상품의 지출 혹은 소비를 줄인다는 경제학의 수요이론과 부합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전반적으로 비서비스 품목에 비해 서비스 품목의 보상 가격탄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를 품목별로 세부적으로 보면 <그림 4-2>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보건에 대한 지출이 -2.0734로 가격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신(-1.7892),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4783), 교육(-1.2148)도 절대 값이 1보다 큰 자체가격탄력성을 가져 가격변화에 매우 민감한 품목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반면 교통(-0.186), 오락·문화(-0.0172), 음식·숙박(-0.484)에 대한 지출은 여타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자체가격탄력성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출 품목 간 교차가격탄력성을 살펴보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통신의 가격변화는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와 강한 대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주거 및 수도·광열, 오락·문화와는

22) 보상가격탄력성은 소득효과를 제거한 순수한 가격효과만을 반영한 탄력성을 보여준다.

〈그림 4-2〉 보상 자기 가격 탄력성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또한 주류 및 담배는 통신과는 강한 대체관계, 오락·문화와는 강한 보완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지출 품목 간 교차가격탄력성은 보건과 교육부문이 강한 대체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교육가격의 변화가 보건에 미치는 영향이 반대방향보다 더 크고, 교육과 음식·숙박도 강한 대체관계, 오락·문화는 의류 및 신발, 교통, 음식·숙박과 강한 대체관계인 반면, 주거 및 수도광열과는 매우 강한 보완관계를 보이고 있다. 한편, 〈표 4-13〉은 소득효과가 통제되지 않은 비보상가격탄력성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만약 〈표 4-13〉의 비보상가격탄력성과 〈표 4-12〉의 보상가격탄력성의 차이가 크게 나는 경우에는, 해당 품목에 있어 소득효과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보상가격탄력성과 비보상가격탄력성의 차이를 확인한 결과 통신(-1.507), 오락·문화(1.476)의 경우에서 두 탄력성 간 차이가 큰 품목으로 나타나 이 두 품목이 가격변화에 의한 영향과 더불어 소득의 변화에 따라

(표 4-12) 각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보상 지체-교차가격탄력성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문화	교육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5738	0.0720	0.0346	0.4766	0.2218	0.1887	-0.0885	-0.1515	0.0823	-0.3500	0.1037	-0.0160
주류 및 담배	0.7667	-0.1473	0.0040	0.7151	-0.9719	-0.1796	-0.0718	1.5442	-1.4506	0.4003	-0.3857	-0.2234
의류 및 신발	0.0948	0.0008	-0.0484	0.4506	0.6998	-0.4808	0.6413	-0.3139	0.9907	-0.3868	-1.7758	0.1277
주거 및 수도광열	0.9121	0.1282	0.3154	0.0233	-0.6838	-0.5307	0.1728	0.6971	-1.3623	-0.5013	0.0321	0.7970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0856	-0.4442	1.2510	-1.7468	-1.4783	0.1620	0.4951	1.0027	-1.0353	0.6253	0.2008	-0.1179
보건	0.4842	-0.0427	-0.4508	-0.7107	0.0848	-2.0734	-0.0607	0.8779	-0.6970	1.4953	0.3562	0.7370
교통	-0.1375	-0.0107	0.3600	0.1377	0.1556	-0.0367	-0.1860	-0.2881	0.5421	-0.1597	-0.1311	-0.2456
통신	-0.3765	0.3532	-0.2803	0.8907	0.5032	0.8378	-0.4581	-1.7892	0.2964	0.0871	0.2970	-0.3613
오락·문화	0.2849	-0.4627	1.2365	-2.4295	-0.7235	-0.9274	1.2051	0.4122	-0.0172	0.1237	1.1368	0.1612
교육	-0.6172	0.0681	-0.2570	-0.4664	0.2288	1.0531	-0.1937	0.0631	0.0642	-1.2148	1.0793	0.1925
음식·숙박	0.1329	-0.0481	-0.8566	0.0204	0.0547	0.1825	-0.1115	0.1591	0.4404	0.7957	-0.5484	-0.2211
기타상품 및 서비스	-0.0363	-0.0433	0.0962	0.8512	-0.0489	0.5877	-0.3271	-0.3032	0.0977	0.2245	-0.3437	-0.754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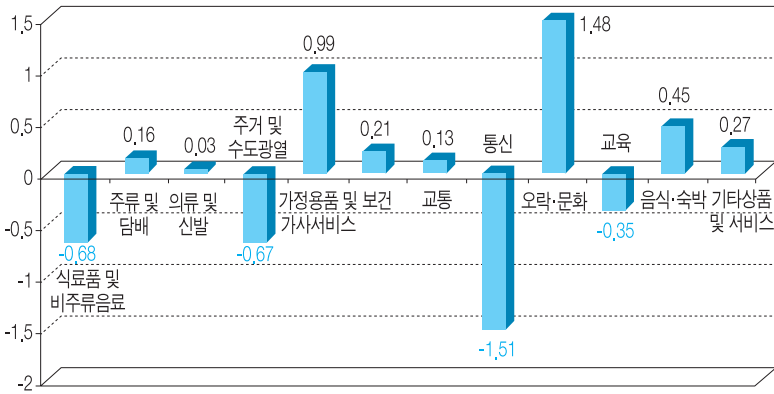
주 : 음영 부분: 자체가격탄력성.

〈표 4-13〉 각 변수별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비모상 자기-교차가격탄력성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 서비스	보건	교통	통신	오락· 문화	교육	음식· 숙박	기타상 품 및 서 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6685	0.0632	0.0000	0.4272	0.2025	0.1517	-0.1502	-0.1901	0.0546	-0.4026	0.0320	-0.0623
주류 및 담배	0.6769	-0.1557	-0.0289	0.6681	-0.9903	-0.2146	-0.1303	1.5075	-1.4768	0.3504	-0.4537	-0.2673
의류 및 신발	-0.1205	-0.0193	-0.1271	0.3382	0.6558	-0.5647	0.5010	-0.4017	0.9277	-0.5064	-1.9387	0.0225
주거 및 수도광열	0.8007	0.1177	0.2747	-0.0349	-0.7066	-0.5741	0.1001	0.6517	-1.3949	-0.5632	-0.0523	0.742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8643	-0.4649	1.1701	-1.8624	-1.5236	0.0757	0.3508	0.9124	-1.1001	0.5024	0.0332	-0.2259
보건	0.3591	-0.0544	-0.4966	-0.7761	0.0592	-2.1222	-0.1423	0.8268	-0.7336	1.4258	0.2614	0.6758
교통	-0.3579	-0.0313	0.2794	0.0225	0.1105	-0.1226	-0.3296	-0.3780	0.4776	-0.2821	-0.2980	-0.3533
통신	-0.5257	0.3393	-0.3349	0.8127	0.4727	0.7797	-0.5553	-1.8501	0.2527	0.0042	0.1840	-0.4341
오락·문화	0.0616	-0.4836	1.1548	-2.5462	-0.7692	-1.0145	1.0595	0.3211	-0.0826	-0.0003	0.9676	0.0521
교육	-0.8871	0.0429	-0.3557	-0.6073	0.1736	0.9479	-0.3696	-0.0470	-0.0148	-1.3647	0.8749	0.0608
음식·숙박	-0.0565	-0.0657	-0.9258	-0.0785	0.0160	0.1086	-0.2350	0.0818	0.3850	0.6905	-0.6918	-0.3136
기타상품 및 서비스	-0.2468	-0.0629	0.0193	0.7412	-0.0919	0.5056	-0.4643	-0.3891	0.0361	0.1076	-0.5031	-0.8577

주: 음영부분: 자기가격탄력성.

〈그림 4-3〉 보상-비보상 자기가격탄력성 차이



지출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큰 품목임을 알 수가 있다. 반면 교통, 보건에 대한 두 탄력성 간 차이는 상대적으로 작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품목의 지출에는 가격의 변화가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4-3〉 참조).

(3) 인구학적 특성별 소득탄력성 추정결과

본 연구에서 PS-AIDS 모형을 사용한 이유는 인구통계학적 특징의 품목별 수요, 지출에 대한 영향을 보다 엄밀하게 살피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라, 앞서 살펴본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탄력성에 추가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징들의 변화에 따른 소득탄력성 변화를 살펴보고자 한다.

1) 연령별 소득탄력성

〈표 4-14〉에서는 가구주 연령 그룹을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등 8개로 구분하여 각 가구주 연령별로 구한 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림 4-4〉, 〈그림 4-5〉는 각각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들의 가구주 연령별 소득탄력성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가구주 연령 증가에 따른 소득탄력성은 품목별로 매우 차별적인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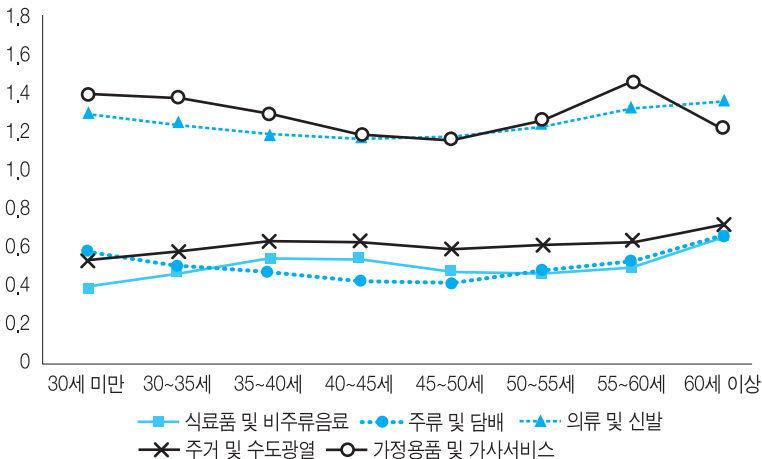
〈표 4-14〉 가구주 연령별 소득탄력성

	가구주 30세 미만	가구주 30~34세	가구주 35~40세	가구주 40~44세	가구주 45~49세	가구주 50~54세	가구주 55~59세	가구주 60세 이상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3918	0.4719	0.5398	0.5471	0.4817	0.4656	0.5035	0.6633
주류 및 담배	0.5848	0.5115	0.4698	0.4280	0.4211	0.4838	0.5267	0.6573
의류 및 신발	1.2988	1.2385	1.1823	1.1633	1.1717	1.2319	1.3264	1.3574
주거 및 수도 광열	0.5350	0.5780	0.6337	0.6320	0.5917	0.6079	0.6305	0.720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3961	1.3775	1.2859	1.1783	1.1525	1.2560	1.4577	1.2208
서비스								
보건	0.7476	0.7930	0.6262	0.5259	0.5493	0.6970	0.8467	0.8293
교통	1.3436	1.2775	1.1972	1.1433	1.1780	1.2887	1.3894	1.3973
통신	0.9843	0.8200	0.7697	0.8259	0.8761	0.8787	0.7579	0.9659
오락·문화	1.3475	1.3313	1.3049	1.2672	1.2505	1.2463	1.3016	1.2466
교육	1.1720	1.3391	1.5088	1.5397	1.5967	1.6479	1.5322	1.6483
음식·숙박	1.1162	1.0574	1.0199	1.0226	1.0357	1.0698	1.0944	1.3242
기타상품 및 서비스	1.2338	1.2733	1.1824	1.0532	1.0524	1.1758	1.3435	1.3994

비스 중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의류 및 신발이 모든 연령대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 음료,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은 모든 연령대에서 낮은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의류 및 신발, 주류 및 담배는 중간 연령대(35~44세)까지는 감소하다 다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U자형 추세를 따르고 있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도 전반적으로는 U자형 추세를 따르나, 60세 이상 고령층부터는 다시 급격히 감소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은 35~44세 정도까지는 증가하다 다시 약간 감소한 후 고령층으로 가면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따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서비스 품목들은 비서비스 품목들이 대부분 연령별 소득탄력성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과 달리, 연령별 소득탄력성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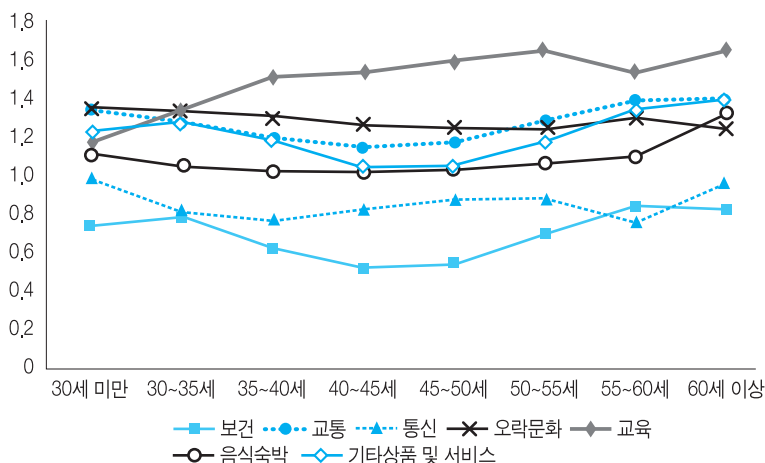
〈그림 4-4〉 비서비스 품목 연령별 소득탄력성 추이



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비서비스 품목들에 비해 전체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오락·문화를 제외하면 서비스 품목들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연령층이 올라갈수록 소득탄력성이 증가하고 있다.

품목별로 보면 교육의 경우, 가구주 3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품목 중에서 가장 큰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교육뿐만 아니라 교통, 오락·문화, 기타상품 및 서비스, 음식·숙박도 전 연령대에서 1보다 큰 소득탄력성 값을 가져 매우 소득탄력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 보건, 통신은 전 연령대에서 1 이하의 소득탄력성 값을 보이고 있어 다른 서비스 품목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에 덜 민감한 지출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5〉 서비스 품목 연령별 소득탄력성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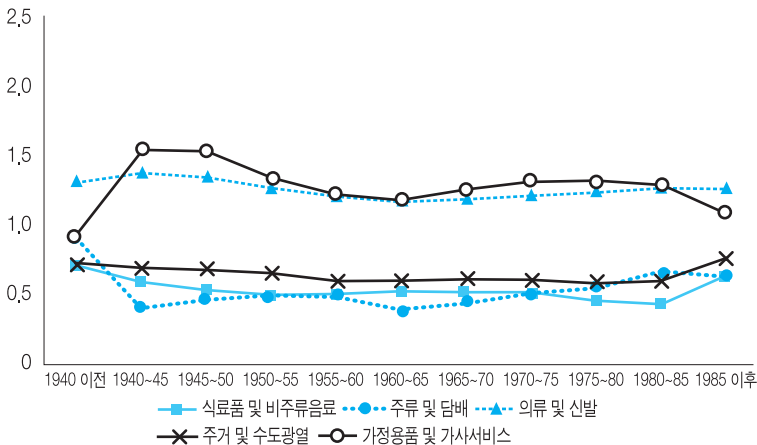


2) 출생연도별 소득탄력성

〈표 4-15〉는 가구주 출생연도 혹은 세대 그룹을 1940년 이전, 1940~1944 출생그룹, 1945~1949 출생그룹, 1950~1954 출생그룹, 1955~1959 출생그룹, 1960~1964 출생그룹, 1965~1969 출생그룹, 1970~1974 출생그룹, 1975~1979 출생그룹, 1980~1984 출생그룹, 1985년 이후 출생그룹 등 11개 별로 구한 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그림 4-6〉, 〈그림 4-7〉은 각각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들의 가구주 출생연도(세대)별 소득탄력성 추이를 비교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볼 때 가구주 세대의 차이에 따른 소득탄력성은 품목별로 매우 차별적인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비스 중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의류 및 신발이 모든 세대에서 공통적으로 1보다 큰 소득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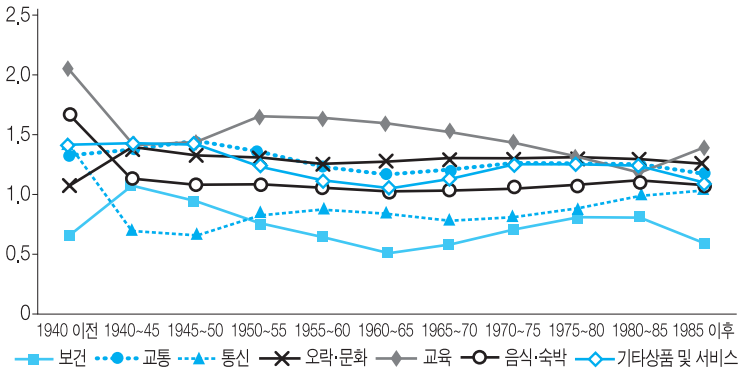
〈그림 4-6〉 비서비스 품목 세대별 소득탄력성 추이



〈표 4-15〉 가구주 세대(출생연도)별 소득탄력성

	1940 이전	1940~1945	1945~1950	1950~1955	1955~1960	1960~1965	1965~1970	1970~1975	1975~1980	1980~1985	1985 이후
비서비스											
식품·주류 비주류음료	0.7122	0.5984	0.5400	0.4855	0.4992	0.5163	0.5245	0.5101	0.4618	0.4326	0.6290
주류 및 담배	0.8995	0.4135	0.4666	0.4862	0.4944	0.3917	0.4507	0.5170	0.5468	0.6678	0.6376
의료 및 신발	1.3055	1.3779	1.3457	1.2664	1.1989	1.1689	1.1851	1.2159	1.2444	1.2699	1.2590
주거 및 수도·광열	0.7297	0.6948	0.6798	0.6509	0.5942	0.6092	0.6086	0.6009	0.5928	0.5987	0.7599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0.9254	1.5367	1.5352	1.3349	1.2099	1.1756	1.2452	1.3138	1.3171	1.2949	1.0880
서비스											
보건	0.6440	1.0755	0.9357	0.7506	0.6451	0.5120	0.5824	0.7027	0.8084	0.8091	0.5824
교통	1.3223	1.3787	1.4318	1.3601	1.2306	1.1624	1.1923	1.2422	1.2568	1.2461	1.1759
통신	1.4118	0.6948	0.6625	0.8258	0.8857	0.8358	0.7914	0.8093	0.8750	0.9963	1.0336
오락·문화	1.0704	1.3868	1.3280	1.3076	1.2541	1.2807	1.2920	1.2981	1.2955	1.2846	1.2500
교육	2.0398	1.4165	1.4062	1.6354	1.6221	1.5799	1.5167	1.4279	1.3029	1.1835	1.3808
음식·숙박	1.6608	1.1159	1.0698	1.0749	1.0492	1.0343	1.0307	1.0459	1.0663	1.1040	1.0735
기타상품 및 서비스	1.4074	1.4225	1.4114	1.2255	1.1109	1.0485	1.1235	1.2197	1.2422	1.2240	1.0874

〈그림 4-7〉 서비스 품목 세대별 소득탄력성 추이



주거 및 수도·광열은 모든 세대에서 낮은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서비스 품목들이 대부분 세대별 소득탄력성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과 달리 서비스 품목들은 세대별 소득탄력성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이 역 U자형 지출패턴을 보이는 반면 보건에 대한 지출은 U자형 지출형태를 보이고 있어 상당히 대비되는 양상을 보인다.

3)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표 4-16〉은 가구 소득분위 그룹 5개별로 구한 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가구주 연령대별, 세대별 소득탄력성의 경우 해당 변수들이 PS-AIDS 모형 내에 반영되어 있었던 것과 달리 가구별 소득 혹은 총지출액 수준은 AIDS 모형 자체에 기본적으로 반영되어 인구통계학적 특징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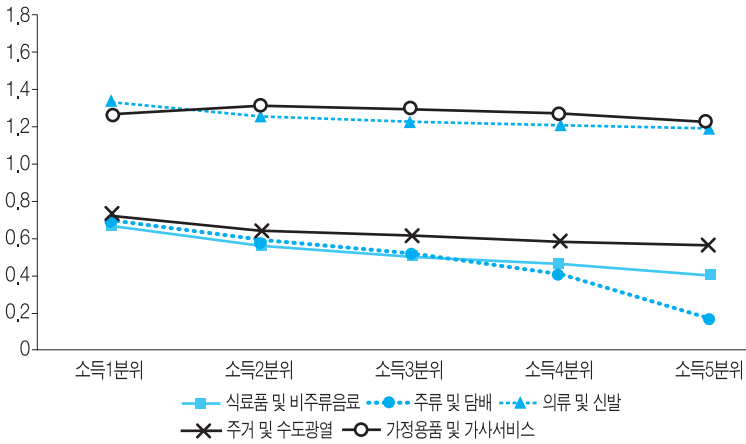
〈표 4-16〉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소득1분위	소득2분위	소득3분위	소득4분위	소득5분위
비서비스					
식품 및 주류음료	0.6680	0.5654	0.5105	0.4653	0.3973
주류 및 담배	0.6809	0.5851	0.5164	0.4032	0.1682
의류 및 신발	1.3355	1.2514	1.2229	1.2038	1.1908
주거 및 수도광열	0.7333	0.6434	0.6080	0.5833	0.5627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2689	1.3122	1.2915	1.2633	1.2175
서비스					
보건	0.7912	0.7287	0.6811	0.6652	0.6622
교통	1.3470	1.2810	1.2535	1.2337	1.2246
통신	0.9598	0.8774	0.8481	0.8136	0.7480
오락·문화	1.2824	1.3052	1.2877	1.2767	1.2546
교육	1.7102	1.5564	1.5310	1.5129	1.5121
음식·숙박	1.2025	1.0844	1.0643	1.0559	1.0537
기타상품 및 서비스	1.3317	1.2269	1.1949	1.1723	1.146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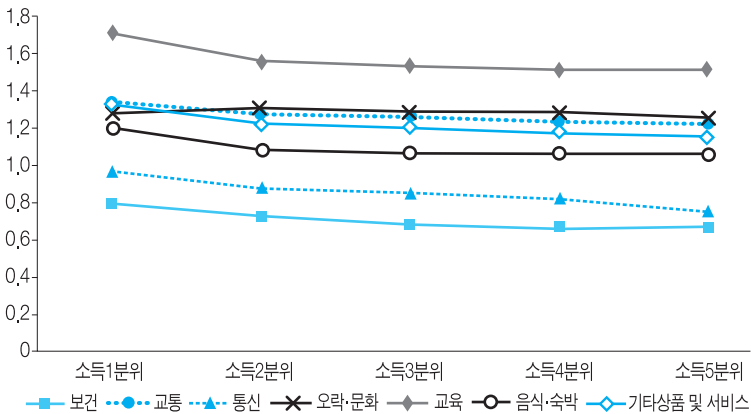
분위별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구하기 위해 각 연도별로 소득분위별 5개 그룹으로 표본을 나눈 후, 각 분위에 해당하는 가구들의 변수별 평균 값을 이용해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을 계산하였다. 〈그림 4-8〉, 〈그림 4-9〉는 각각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들의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추이를 비교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그 결과를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즉 소득 1분위에서 소득 5분위로 갈수록 소득탄력성이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비서비스 중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그림 4-8〉 비서비스 품목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그림 4-9〉 서비스 품목 가구 소득분위별 소득탄력성



스, 의류 및 신발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을 유지한 반면,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주거 및 수도·광열은 모든 소득 분위에서 낮은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주류 및 담배의 경우는 소득 5분위 그룹에서 더욱

급격하게 소득탄력성이 하락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서비스 품목들은 보건, 통신을 제외하면 소득이 증가할수록 조금씩 감소하지만 모든 소득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매우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져 소득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시점별 소득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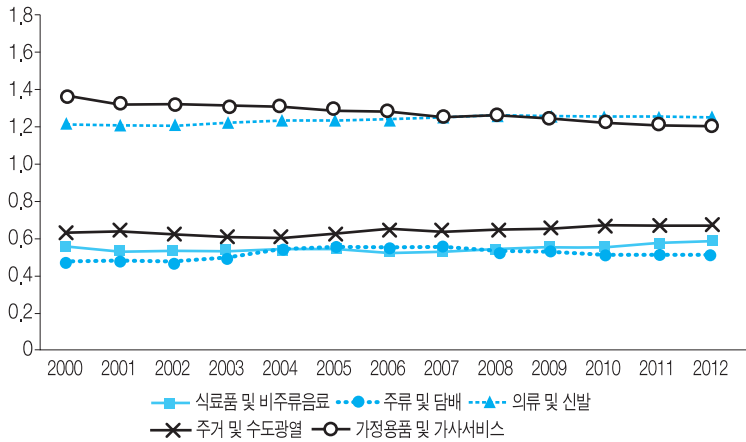
2000~2012년의 13개 연도별로 구한 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는 <표 4-17>에 제시되어 있다. 연도별, 품목별 소득탄력성은 소득분위별 품목별 소득탄력성과 마찬가지로 해당 변수가 PS-AIDS 모형 내에 반영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연도별, 품목별 소득탄력성을 구하기 위해 각 해당 연도별 가구들의 변수별 평균값을 이용해 연도별 소득탄력성을 계산하였으며, 이 중 2년별로 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를 도출하였다. <그림 4-10>, <그림 4-11>은 각각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들의 연도별 소득탄력성 추이를 비교하여 보여주고 있다.

분석 결과를 보면, 2000~2012년 기간 동안 대부분의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들에서 연도별 소득탄력성은 크게 변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서비스 품목의 경우 의류 및 신발과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분석기간 전체에 걸쳐 1 이상으로 나타나 사치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 품목 중에는 통신과 보건 부문이 전 기간에 걸쳐 소득탄력성이 1보다 낮아 필수재적 성격을 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보건의 경우 여전히 낮은 소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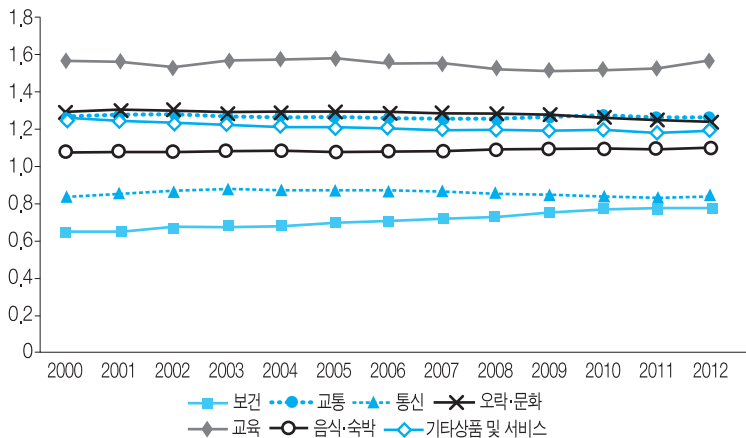
〈표 4-17〉 연도별 소득탄력성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비서비스													
식품 및 비주류음료	0.5488	0.5286	0.5287	0.5262	0.5360	0.5365	0.5276	0.5244	0.5403	0.5453	0.5546	0.5695	0.5838
주류 및 담배	0.4657	0.4736	0.4629	0.4937	0.5265	0.5503	0.5412	0.5455	0.5258	0.5264	0.5052	0.5062	0.5030
의료 및 신발	1.2065	1.2093	1.2115	1.2160	1.2306	1.2306	1.2359	1.2400	1.2466	1.2528	1.2510	1.2436	1.2427
주거 및 수도·광열	0.6284	0.6416	0.6209	0.6041	0.6016	0.6170	0.6413	0.6354	0.6400	0.6544	0.6630	0.6627	0.6694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3621	1.3190	1.3126	1.3122	1.3062	1.2841	1.2789	1.2427	1.2499	1.2383	1.2200	1.2104	1.2011
서비스													
보건	0.6459	0.6500	0.6725	0.6726	0.6810	0.6955	0.7036	0.7187	0.7281	0.7523	0.7699	0.7706	0.7768
교통	1.2623	1.2664	1.2766	1.2692	1.2636	1.2619	1.2576	1.2528	1.2506	1.2623	1.2726	1.2639	1.2631
통신	0.8342	0.8546	0.8661	0.8745	0.8748	0.8691	0.8618	0.8612	0.8512	0.8453	0.8363	0.8283	0.8327
오락·문화	1.2883	1.2985	1.3023	1.2820	1.2934	1.2925	1.2896	1.2851	1.2833	1.2783	1.2565	1.2519	1.2403
교육	1.5643	1.5528	1.5257	1.5694	1.5706	1.5780	1.5558	1.5487	1.5264	1.5124	1.5125	1.5219	1.5557
음식·숙박	1.0758	1.0763	1.0793	1.0808	1.0805	1.0807	1.0826	1.0846	1.0856	1.0900	1.0953	1.0944	1.0963
기타상품 및 서비스	1.2478	1.2401	1.2376	1.2242	1.2155	1.2092	1.2010	1.1972	1.1939	1.1889	1.1883	1.1847	1.1910

〈그림 4-10〉 비서비스 품목 연도별 소득탄력성 추이



〈그림 4-11〉 서비스 품목 연도별 소득탄력성 추이



탄력성이긴 하지만, 2000년대 초반부터 지속적으로 소득탄력성은 증가하고 있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5) 가구구성원 수 및 학령구성원 수별 소득탄력성

본 절에서 대상으로 하는 가구특성별 소득 탄력성을 살펴보기에 앞서 연령대를 기준으로 가구의 특성별 분포를 살펴보았다. 먼저 가구구성원 수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2명의 경우에는 30세 미만과 60세 이상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반면 현재까지 가구의 표준으로 불리는 4인가구는 30대 중반과 40대 후반의 가구주 연령대에서 높은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학령구성원 수에 따라 분류해볼 경우에도 비슷한 추이를 보이고 있다. 학령구성원이 없는 가구의 경우는 자녀의 연령이 20세가 넘는 50대 이후의 가구와 자녀가 없거나 미취학 아동이 있는 30 중반의 가구에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가구주 성별로 볼 때는 30세 미만의 경우 여성가구주가 약 28%를 차지하다 점차 감소하여 30대 후반의 경우 12%대로 하락한 후 연령대가 늘어날수록 여성가구주의 비중은 점점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맞벌이 여부를 기준으로 볼 때는 육아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30세 미만 및 초반과 은퇴가 이뤄진 60세 이상의 가구에서는 외벌이의 비중이 큰 반면, 자녀의 교육비에 대한 지출 부담이 큰 30대 후반에서 50대까지의 가구에서는 맞벌이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이제 가구특성별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구구성원 수 및 학령구성원 수별로 구한 지출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는 <표 4-19>에 제시되어 있다. 또한 <그림 4-12>, <그림 4-13>은 각각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들의 가구구성원 수별 소득탄력성 추이를 비교하고 있으며, <그림 4-14>, <그림 4-15>는 학령구성원 수별 비서비스, 서비스

〈표 4-18〉 가구 구성원별 취업률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진체 비중	단위 : %
가구 구성원 수	2명	47.0	20.3	9.0	8.5	16.0	26.6	38.6	65.5	27.4	
	3명	35.8	34.9	22.9	19.9	28.8	36.1	34.3	21.5	27.3	
	4명	13.1	35.6	52.4	53.6	41.7	29.1	19.8	8.5	34.3	
	5명	3.1	7.1	12.3	14.8	11.2	6.8	5.4	2.9	8.7	
	6명 이상	0.9	2.1	3.4	3.2	2.3	1.5	2.0	1.6	2.3	
하령 구성원 수	없음	89.9	78.1	33.2	11.9	25.4	69.0	89.3	90.8	54.6	
	1명	8.7	15.3	31.3	22.7	31.0	22.1	8.7	6.6	19.8	
	2명	1.4	6.1	32.8	56.8	37.5	8.0	1.7	2.5	22.6	
	3명 이상	0.1	0.5	2.7	8.6	6.0	0.9	0.3	0.2	3.0	
가구주 성별	남성	72.3	89.1	87.6	83.9	81.8	78.2	77.2	80.9	82.4	
	여성	27.7	10.9	12.4	16.1	18.2	21.8	22.8	19.1	17.6	
맞벌이 여부	외벌이	79.3	71.5	65.7	58.0	55.2	59.9	68.5	85.8	67.0	
	맞벌이	20.7	28.5	34.3	42.0	44.8	40.1	31.5	14.2	33.0	

〈표 4-19〉 가구구성원 수 및 학령구성원 수별 소득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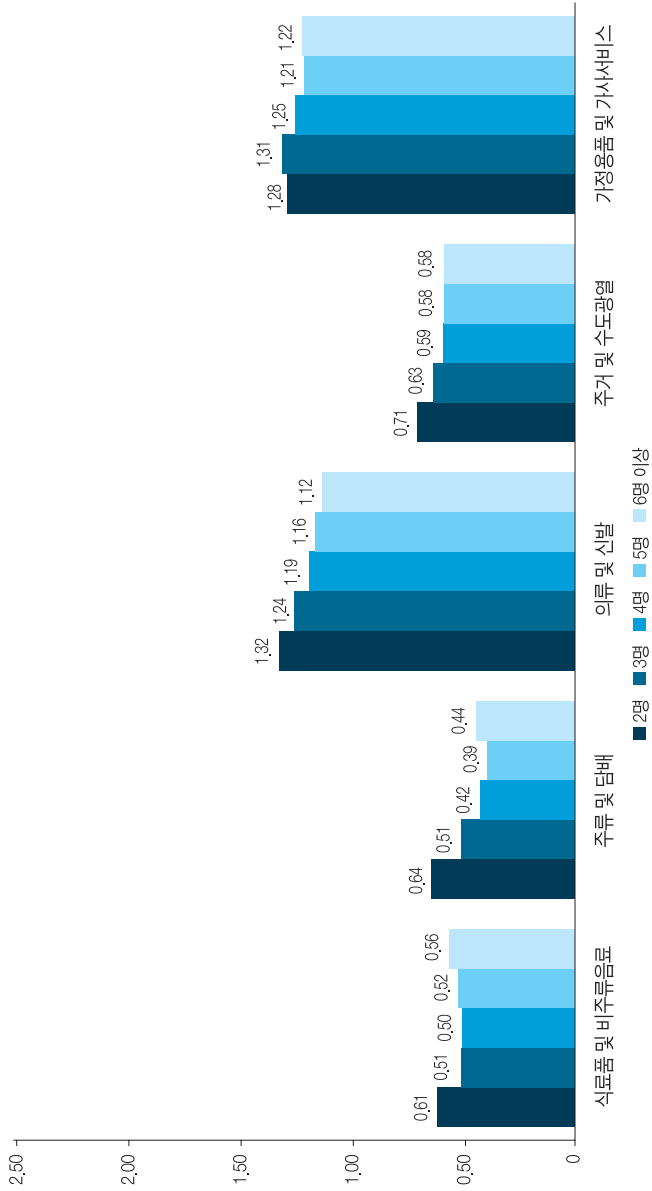
	가구구성원 수						학령구성원 수			
	2명	3명	4명	5명	6명 이상	없음	1명	2명	3명 이상	
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6104	0.5090	0.4979	0.5221	0.5604	0.5552	0.5105	0.5290	0.5649	
주류 및 담배	0.6376	0.5079	0.4177	0.3919	0.4399	0.6028	0.4292	0.3074	0.2348	
의료 및 신발	1.3184	1.2449	1.1867	1.1555	1.1242	1.2838	1.2035	1.1565	1.1014	
주거 및 수도광열	0.7056	0.6275	0.5886	0.5830	0.5826	0.6569	0.6115	0.6100	0.5993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2759	1.3072	1.2452	1.2062	1.2182	1.3239	1.2519	1.1440	0.9994	
서비스										
보건	0.8054	0.7407	0.5982	0.6012	0.6639	0.8165	0.6153	0.4261	0.3020	
교통	1.3450	1.2792	1.2136	1.1695	1.1532	1.3341	1.2255	1.1242	1.0042	
통신	0.9295	0.8588	0.8117	0.7985	0.7904	0.8727	0.8451	0.8239	0.8177	
오락·문화	1.2903	1.2851	1.2731	1.2681	1.2563	1.2964	1.2642	1.2634	1.2539	
교육	1.7527	1.5062	1.5083	1.5901	1.7441	1.5816	1.4791	1.5518	1.6937	
음식·숙박	1.1933	1.0812	1.0394	1.0050	0.9757	1.1346	1.0489	1.0134	0.9647	
기타상품 및 서비스	1.2865	1.2235	1.1468	1.1361	1.2188	1.3022	1.1548	1.0040	0.8475	

스 품목들의 소득탄력성 추이를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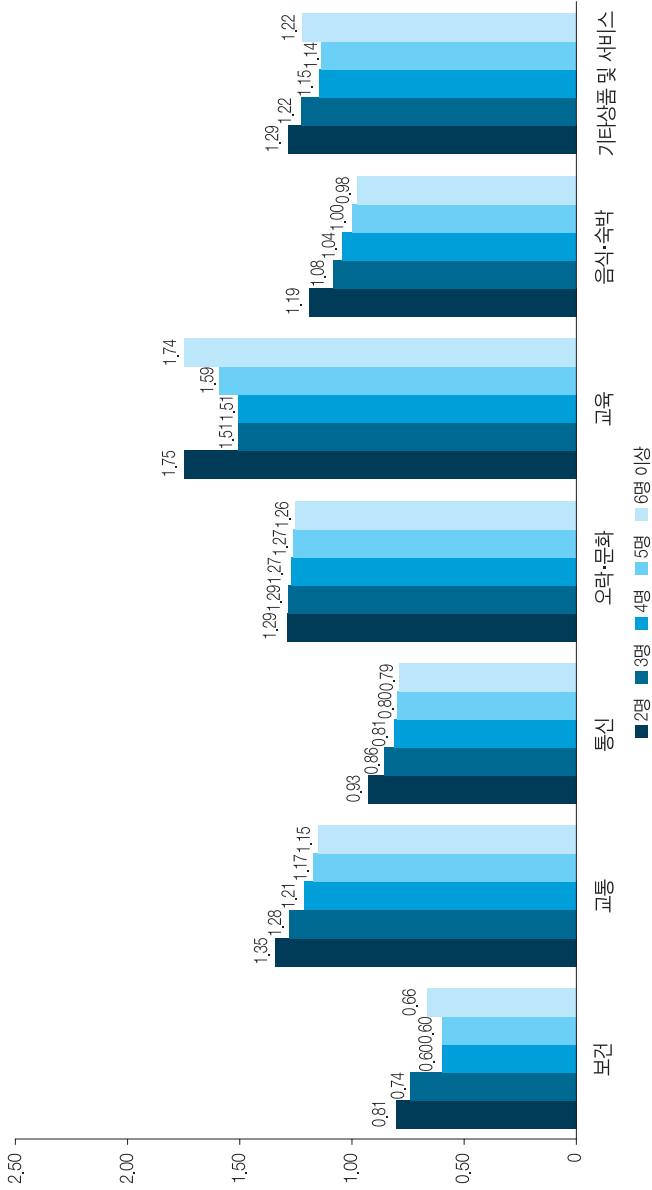
먼저 가구구성원 수별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서비스 품목의 탄력성이 비서비스 품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비서비스와 서비스 품목 모두에서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그 크기는 점차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식품 및 비주류 음료, 주거 및 수도·광열은 가구원 수의 변화가 소득탄력성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반면 주류 및 담배와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는 가구원 수의 변화에 좀 더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류 및 신발의 경우는 탄력성의 크기가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구원 수가 적을수록 크기 또한 더욱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의·식·주와 관련된 비서비스 품목지출에 있어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의류관련 품목에 대한 지출이 상대적으로 늘어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서비스 지출품목들의 소득탄력성 변화를 보면, 전체적으로 비서비스 지출품목에 비해서는 소득에 대한 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오락·문화의 경우 소득탄력성의 크기는 가구원 수 증가에 둔감한 모습이 관찰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26 이상을 보이고 있어 사치재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 교통, 통신, 음식·숙박의 경우 가구원 수가 줄어들수록 그 크기는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보건과 교육부분 지출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가구원 수 증가 여부에 비례적인 변화가 아닌 다소 불규칙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소득탄력성의 크기가 보건의 경우 1보다 작은 필수재의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교육의 경우에는 최소 1.5 이상을 보이고 있어 서비스 지출품목 중에서도 사치재의 성격을 가장 강하게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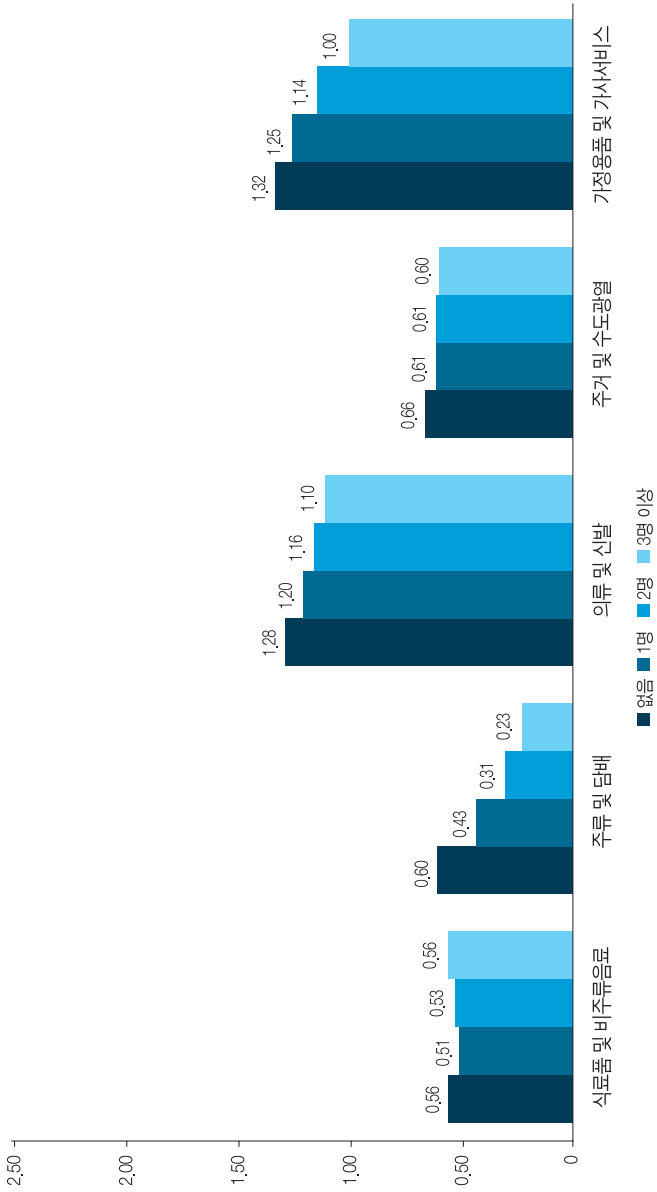
〈그림 4-12〉 가구구성원 수별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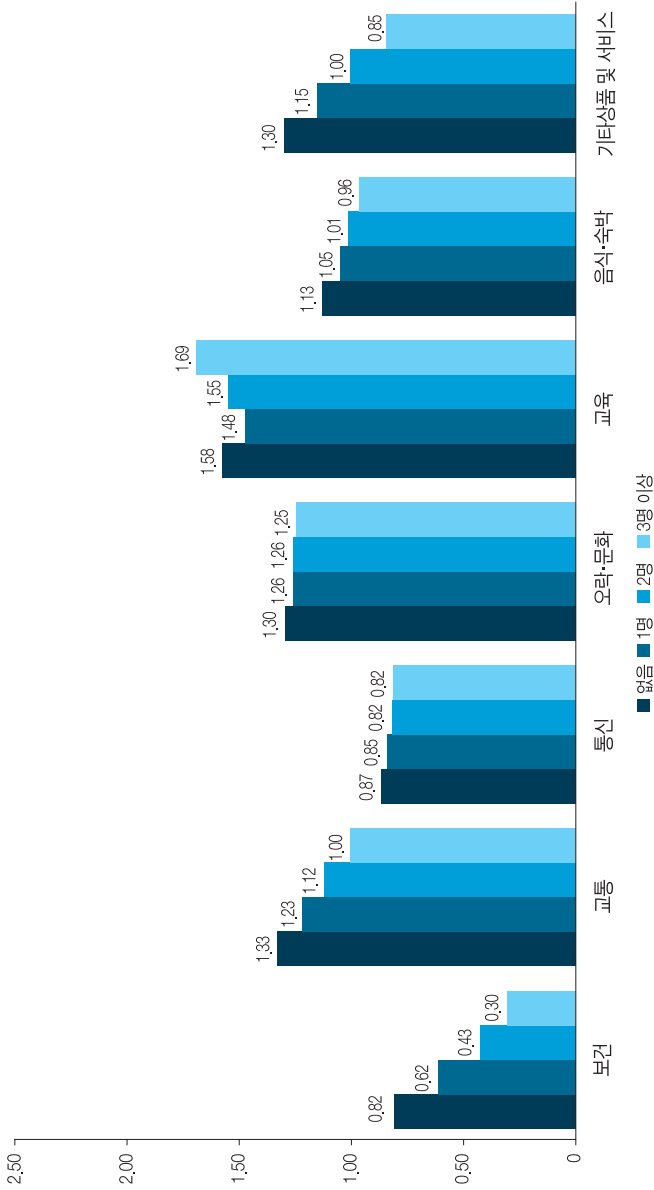
〈그림 4-13〉 가구구성원 수별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그림 4-14〉 화령구성원 수별 비서비스 품목 소독탄력성



〈그림 4-15〉 학령구성원 수별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이는 가구구성원 수에 상관없이 교육부문에 대한 지출에 대한 상대적 중요성이 가장 크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어서 학령구성원 수에 따른 소득탄력성의 변화를 살펴보면 우선 가구구성원 수에서의 소득탄력성의 변화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다. 즉, 서비스 지출품목의 소득탄력성이 전반적으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과 통신을 제외한 서비스지출의 탄력성이 학령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1보다 크게 나타나 사치재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보건의 경우 학령구성원인 없는 가구의 소득탄력성이 3명 이상인 경우에 비해 2.5배 가까이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바 이는 학령구성원이 없는 가구는 거의 65세 이상 노인가구의 비중이 높은 것에 기인한다 하겠다. 교육에 대한 지출의 경우에는 학령구성원 수에 관계없이 높은 탄력성을 보이고 있으며 그 중 학령구성원이 늘수록 그 크기는 증가하여 3명 이상인 경우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교통,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 등은 학령구성원 수가 늘수록 소득탄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초·중·고 재학생을 두고 있는 가구의 경우 취학자녀가 많을수록 늘어나는 소득의 대부분이 교육비 지출에 집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6) 가구주 성별 및 맞벌이 여부별 소득탄력성

가구의 소비지출패턴은 가구주의 성별 및 맞벌이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표 4-20>, <그림 4-16> 및 <그림 4-17>에는 가구주의 성별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지출품목별 소득탄력성 결과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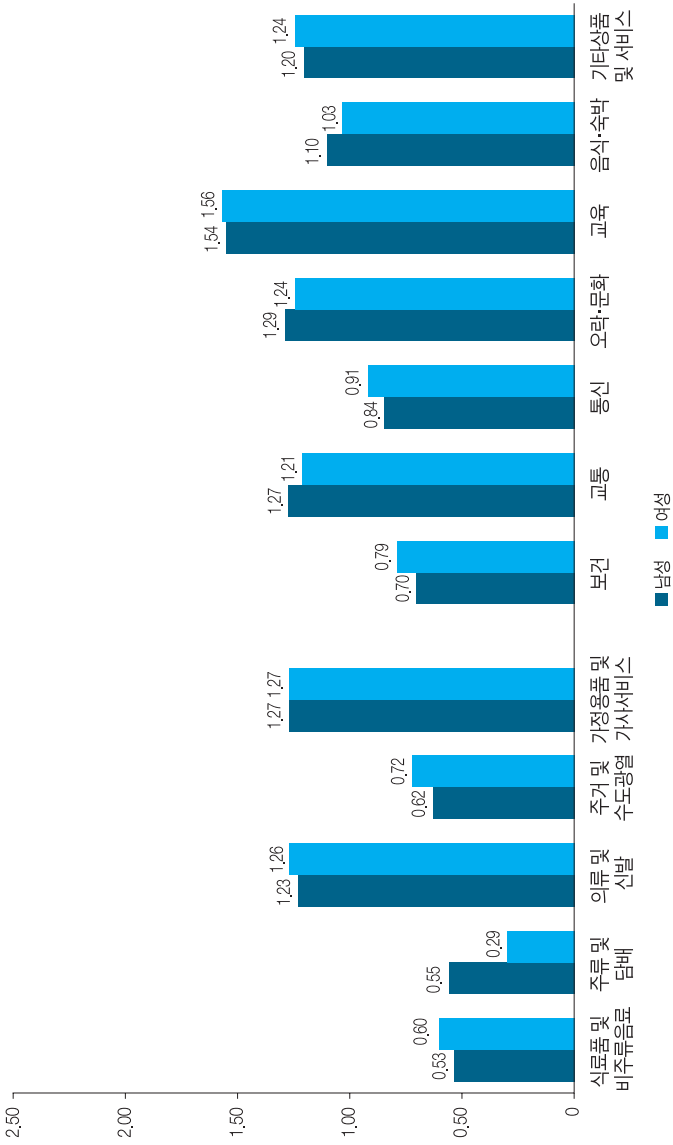
제시되어 있다.

가구주 성별에 따른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비서비스 품목의 경우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남성 가구주 가구의 소득탄력성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지출품목들의 경우에는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의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품목에 대해서는 여성가구주 가구의 소득탄력성이 남성 가구주 가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가구주에 대한 사회·경제적 특성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결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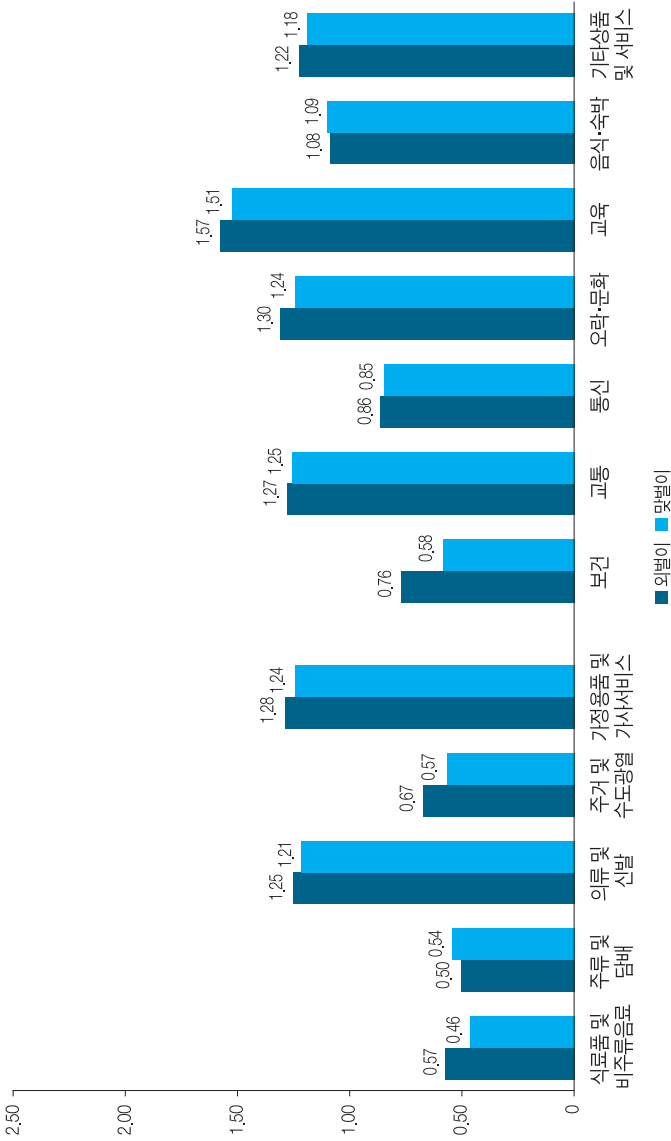
〈표 4-20〉 가구주 성별 및 맞벌이가구 여부별 소득탄력성

	가구주 성별		맞벌이가구 여부	
	남성	여성	외벌이	맞벌이
비서비스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0.5293	0.5987	0.5738	0.4632
주류 및 담배	0.5537	0.2935	0.5028	0.5400
의류 및 신발	1.2262	1.2647	1.2464	1.2080
주거 및 수도·광열	0.6202	0.7156	0.6667	0.5676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1.2675	1.2680	1.2801	1.2416
서비스				
보건	0.7012	0.7871	0.7638	0.5825
교통	1.2724	1.2100	1.2681	1.2527
통신	0.8406	0.9149	0.8597	0.8450
오락·문화	1.2883	1.2375	1.2989	1.2401
교육	1.5426	1.5632	1.5679	1.5137
음식·숙박	1.0960	1.0280	1.0810	1.0920
기타상품 및 서비스	1.1992	1.2377	1.2202	1.1799

〈그림 4-16〉 가구주 성별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그림 4-17〉 맞벌이가구 여부별 서비스 품목 소득탄력성



낮아 외식에 대한 부담감이 높고, 집에서 음식을 준비할 의지가 있는 여성가구주의 음식·숙박의 탄력성이 낮게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 여부에 따른 소득탄력성의 경우, 비서비스 품목에서는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지출을 제외하고는 모든 품목에서 외벌이 가구주 가구의 소득탄력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비스 품목의 지출에서는 음식·숙박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외벌이 가구주 가구의 소득탄력성이 맞벌이 가구에 비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맞벌이 가구주 가구의 소득이 외벌이 가구의 소득에 비해 더 높기 때문에 가계지출 품목에 대한 소득탄력성이 전반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으며, 사치재적 성격이 강한 서비스 품목에 대한 소득탄력성에 대한 탄력성 역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맞벌이가구의 경우 외식에 대한 빈도가 늘어나 이에 대한 지출 역시 외벌이가구에 비해 더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음식·숙박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외벌이가구에 비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제5장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수요 변화 분석

1. 연령 변화와 소비지출 변화 추이

이번 장에서는 연령별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가계소비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코호트(Cohort) 분석을 이용하여 연령대별 소비패턴의 분석을 수행한다. 기존의 가계소비 관련 연구는 직접적인 연령대별 소비패턴 변화분석을 수행하는 대신 가구구성원의 특성변화에 관심을 두고 분석하고 있어 세대간 소비패턴의 차이에 대한 설명을 함에 있어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코호트 방법을 이용한 가계소비행태 분석을 통해 가계소비지출의 다양한 행태가 생애주기(즉 연령변화)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규명한다.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미시 서베이 소비지출자료를 활용하여 소비변화를 분석하는 경우 생애주기(life cycle) 소비모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생애주기 소비모형은 개인의 생애주기 전반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변화를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한 개인의 소비수준의 결정은

한 시점이 아닌 생애 전반에 걸친 소득과 소비의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진다. 따라서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바탕으로 연령대별 소비패턴을 분석하는 경우에는 소비지출자료의 소비 수준을 유년기, 청년기, 장년기, 노년기 등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분류하여 분석하는 것이 가장 전형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바탕으로 세대별 혹은 연령대별 소비패턴의 변화를 실증모형을 통해 추정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긴 장기간의 패널자료(panel data)가 요구되나 본 연구에서 이용하는 「가계동향조사」는 순수한 패널자료가 아니라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즉, 「가계동향조사」와 같이 가구를 기준으로 조사되지만 시점별 조사대상 가구의 표본 유지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반복횡단면자료(repeated cross sectional data)의 특성을 가진 서베이 자료는 세대간 혹은 연령대별 소득 및 소비패턴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규명하기에는 무리가 있다.²³⁾

따라서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소비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코호트를 기반으로 한 가상패널자료(pseudo-panel data) 구축을 필요로 한다. 결국, 연령대별 소비패턴의 변화를 분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패널자료가 구축이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가구주 자료를 동일한 특성을 기준으로 그룹화(grouping)하여 해당 그룹 내 자료의 평균값을 그 그룹의 관측치로 하는 코호트 작업을 수행하여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Deaton, 1985).²⁴⁾ 이와 같이 특정 코호트를 이용하

23) 가구주의 연령대별 소득-소비의 관계를 횡단면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할 경우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의 변화에는 가구주 연령 효과뿐만 아니라 출생연도효과, 코호트효과(cohort effect) 등이 혼재되기 때문이다(박시내, 2011).

24) 코호트는 연령, 성, 교육수준 등과 같은 시간에 불변(time-invariant)인 공통의 관측된 속성을 공유하는 그룹을 의미한다.

여 패널 형태의 자료를 생성하는 것은 연령별 가계소비지출의 패턴을 분석함에 있어 매우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0~2012년의 23년간 「가계동향조사」를 바탕으로 가구주의 연령, 성별에 기반한 코호트를 이용하여 가상패널자료를 구축한다. 먼저 연령 기준 코호트의 경우에는 1990년을 기준으로 가구주의 연령대별로 30세 미만,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등 8개의 연령 코호트를 구성한다. 출생연도 기준 코호트는 1940년 미만, 1940~1944년, 1945~1949년, 1950~1954년, 1955~1959년, 1960~1964년, 1965~1969년, 1970~1974년, 1975년 이상 등 9개의 출생 코호트를 구성하여 분석한다.

연령별 소득과 소비가 시점별로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30세 이하의 가구소득과 소비를 기준(100.0)으로 설정한 후

〈표 5-1〉 출생 및 연령 코호트별 연령구분

출생코호트	2000	2012	연령코호트 (90년 기준)	2000	2012
40년 미만	61세 이상	73세 이상	30세 미만	40세 미만	42세 미만
40~44년	56~60세	68~72세	30~34세	40~44세	42~46세
45~49년	51~55세	63~67세	35~39세	45~49세	47~51세
50~54년	46~50세	58~62세	40~44세	50~54세	52~56세
55~59년	41~45세	53~57세	45~49세	55~59세	57~61세
60~64년	36~40세	48~52세	50~54세	60~64세	62~66세
65~69년	31~35세	43~47세	55~59세	65~69세	67~71세
70~74년	26~30세	38~42세	60세 이상	70세 이상	72세 이상
75년 이상	25세 이하	37세 이하			

30세 이상 각 연령대의 상대적 소득과 소비수준의 변화패턴을 정리한 결과가 <표 5-2>와 <그림 5-1>에 제시되어 있다. 그 결과를 보면, 1990년 이후 연령별 소득 및 소비수준에 있어 상당한 변화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연령별 소득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에는 40대 초반 가구의 소득수준은 30세 이하 가구소득 대비 39.5% 높고 이후에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50대 초반에는 생애소득의 정점에 이르러 30대 이하 가구대비 54.2% 이상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60세 이상에서는 단지 7.8%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나 30세 이하 가구와 큰 차

<표 5-2> 가구주 연령별 소비 및 소득 변화

		30세 이하	30~34세	35~39세	40~44세	45~49세	50~54세	55~59세	60세 이상
1990	소득	100	112.7	131.1	139.5	143.6	154.2	144.9	107.8
	소비	100	99.7	123.5	137.9	150.4	150.3	143.1	130.4
1995	소득	100	115.0	122.8	132.2	132.8	143.9	145.4	93.3
	소비	100	111.3	125.9	140.2	144.1	145.7	144.3	101.2
2000	소득	100	115.6	121.6	136.3	132.2	135.7	128.9	86.5
	소비	100	112.2	125.1	138.4	136.6	137.2	127.5	94.0
2005	소득	100	114.7	122.7	128.1	128.6	128.7	117.5	73.8
	소비	100	114.9	125.0	132.9	135.8	126.5	109.5	80.0
2010	소득	100	126.1	131.1	135.5	143.8	138.6	128.4	77.0
	소비	100	121.4	130.7	137.1	143.9	131.6	108.2	74.7
2012	소득	100	133.7	140.0	150.9	152.9	151.8	144.9	83.8
	소비	100	115.4	124.8	135.8	140.5	126.8	111.2	74.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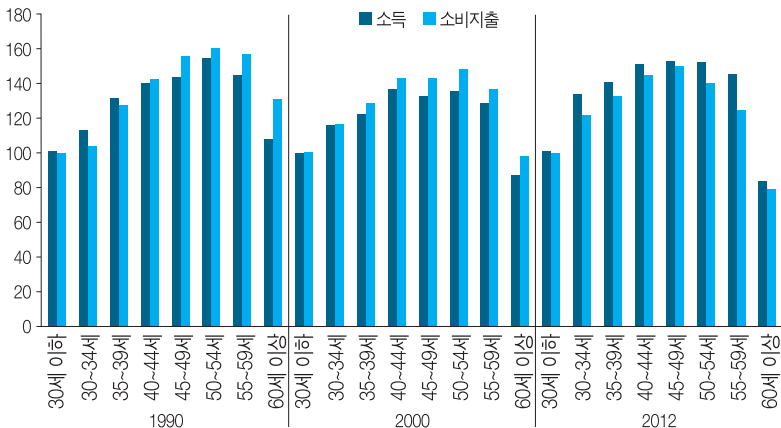
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주: 각 연도 30세 이하 소득 및 소비를 100으로 하여 작성된 수치임.

이는 보이고 있지 않았으며, 대신 50대의 가구소득에 비해 현저한 소득수준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변화하기 시작하여 30세 이하 가구소득과 비교할 때 40대와 50대의 소득 수준은 1990년에 비해 크게 증가하지 않았으며 30대 이하 가구와의 상대적 차이는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 및 소비지출에 있어서 또 하나의 특징은 1990년에는 50대에 소득 및 소비수준이 정점에 이른 반면 2000년 이후에는 40대에 소득이 최대가 되고, 50대부터 소득수준이 줄어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60대 이상의 노령가구의 소득수준의 하락폭은 상대적 크게 나타나고 있다.

한편, 가구주 연령별 소비 변화추이를 보면 다음과 같다. 1990년을 기준으로 볼 때 40대의 소비수준은 30대 이하 연령대에 비해

〈그림 5-1〉 가구주 연령별 소득·소비 변화



자료: 「가계동향조사」, 각 연도.

주: 각 연도 30세 이하 소득 및 소비를 100으로 하여 작성된 수치임.

37.9~50.4% 높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50대 역시 43.1~50.3%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60세 이상의 고령층의 소비에 있어서도 130.4로 30대 이하에 비해 30.4% 높은 소비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2000년에 들어서면 40대의 소비수준은 큰 변화를 보이고 있지 않으나, 50대의 상대적 소비수준은 27.5~37.2% 높은 수준에 머물러 30대 이하 대비 상대적 소비수준은 1990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60세 이상 역시 94.0으로 30대 이하 가구 대비 오히려 6% 낮은 소비수준을 보이고 있어 2000년대 들어 중·고령자 가구의 소비수준이 90년대에 비해 크게 하락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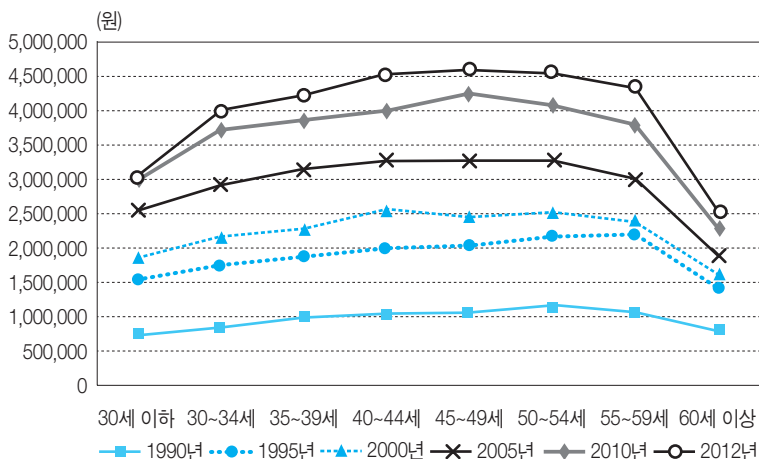
2000년 이후 중·고령자의 소비 하락세는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2012년 30세 이하 총소비를 100으로 했을 때, 40대는 135.8~140.5으로 기존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반면, 50대는 112.2~126.8로 이전 시기에 비해 현저히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60세 이상은 74.5로 30대 이하의 소비수준에 74.5%에 불과함을 알 수 있다.

이와 같이 2000년 전·후의 연령별 소득 및 소비패턴에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는 1998년 발생한 외환위기라는 경제 전반의 외생적 충격으로 인한 우리나라 경제 전체의 구조변화가 주된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즉, 가계의 소득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고용의 유지라는 관점에서 볼 때 외환위기 이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은 비교적 낮은 시점까지 중·고령자의 근로소득을 안정적으로 보장해주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안정적으로 가계의 소득 및 소비지출 구조를 유지할 수 있었다.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고용환경 속에서 은퇴 이후의 생활을 위한 저축을 통해 고령기에 요구되는 소득 및 소비수준을 일정기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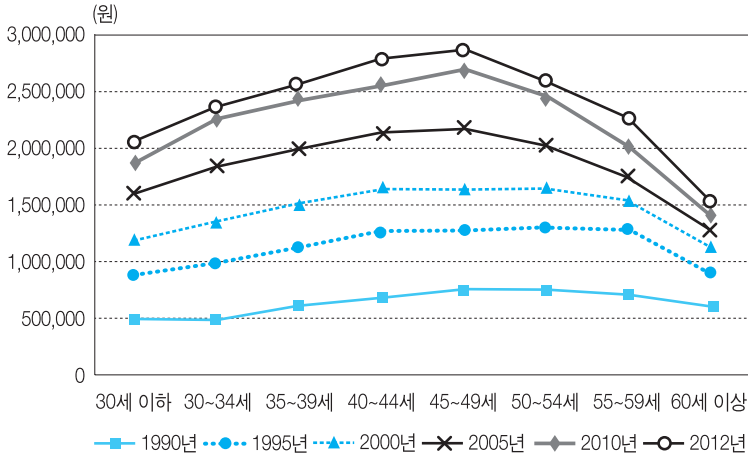
유지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은 외환위기를 거쳐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급격히 변화하여 구조조정을 통한 고용의 불안정성은 노동시장에서의 중·고령자의 조기은퇴를 현실화시켰으며 이로 인한 가계소득의 불안정성을 초래하였다. 더불어 사교육비 급격한 증가 등으로 인한 가계소득구조의 불균형 현상으로 인해 가계의 소득과 소비 패턴은 과거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이어서 연령 코호트(cohort)를 기반으로 구성된 가상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연령별 생애 소득 및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생애소득가설에서 제시한 전형적인 모습인 역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즉, 30세 이하의 청년기에는 소득과 소비지출 모두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이다가 연령이 늘어날수록 소득 및 소비가 증가한 후 은퇴가 시작되는 55세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하여 60세 이상 노년층이 되면 소득 및 소비지출이 동시에 감소하는 모습이 확인되고 있다. 특히, 은퇴시

〈그림 5-2〉 연령 코호트별 총소득 추이



〈그림 5-3〉 연령 코호트별 총소비지출 추이



점이 빨라지고 있는 2000년대에는 소득이 최대가 되는 연령과 소비 지출이 정점에 이르는 연령대가 1990년대에 비해 점점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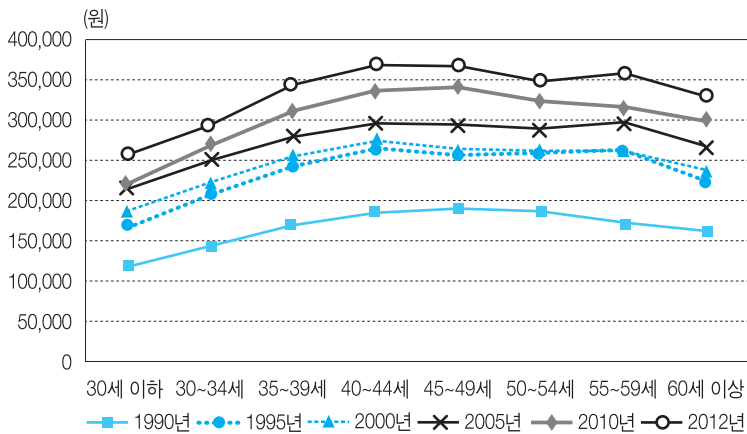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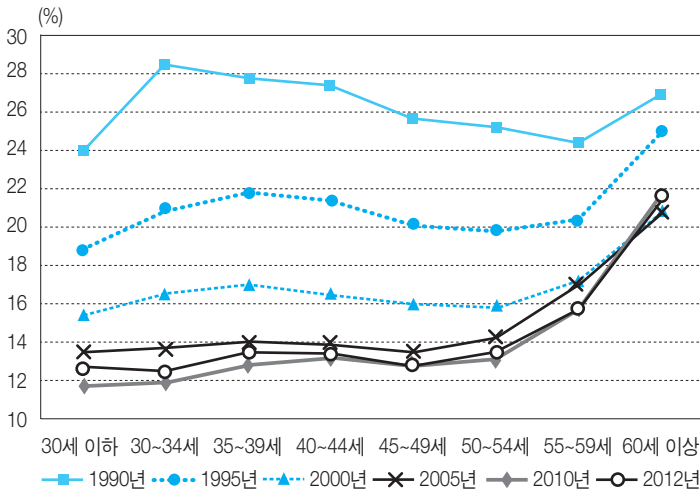
2. 품목별 생애 소비지출 추이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를 기반으로 연령별 소비구조의 특징을 품목별로 살펴본 결과를 보면 다음과 같다.

(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1990년 대비 가계소비지출에서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가 차지하는

〈그림 5-4〉 식품품 및 비주류음료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비중을 보면 전 연령대에서 걸쳐 전반적으로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90년의 경우 가계소비지출의 4분의 1 이상을 차지했던 식품품 및 비주류 음료의 비중은 2012년에는 10% 초반 대 수준을 보이

고 있다. 물론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의 비중은 여전히 20% 이상의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나머지 연령대에서의 비중은 전체적으로 크게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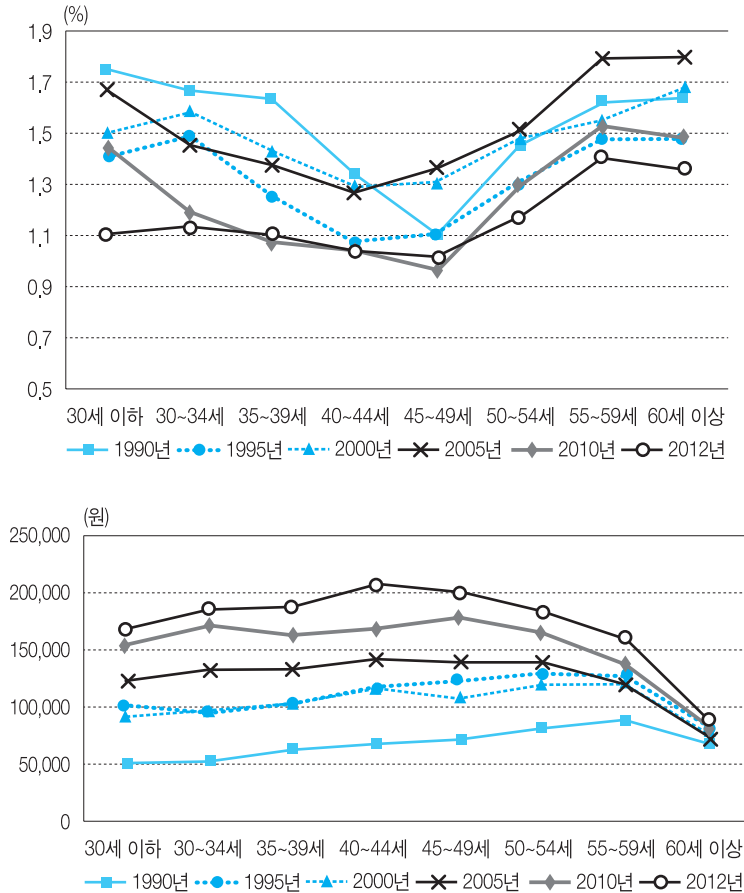
한편, 식품 및 비주류음료에 대한 소비지출액 규모는 40대에 정점에 이르고 이후 연령대에서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주류 및 담배

주류 및 담배 소비지출이 가계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40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다가 50대 이후 연령대에서는 다시 그 비중이 늘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가계소비지출에서 주류 및 담배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에 비해 2010년 이후에 더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면 1990년 30대 이하의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지출비중은 1.7%를 상회하고 있으나 2012년에는 1.1%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0대 후반의 경우에는 2010년 이후에는 1% 미만의 수준을 보이고 있어 건강에 대한 염려와 더불어 교육비 지출로 인한 부담으로 인해 선택소비재의 특성이 강한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비가 타 연령층에 비해 현저히 낮은 것으로 파악된다. 반면 50대 이후의 주류 및 담배 소비에 대한 비중은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선택소비재이면서 중독성이 강한 재화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주류 및 담배의 소비지출 금액은 소득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어 이

〈그림 5-5〉 주류 및 담배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로 인하여 상대적 비중이 늘어나는 것으로 판단된다.²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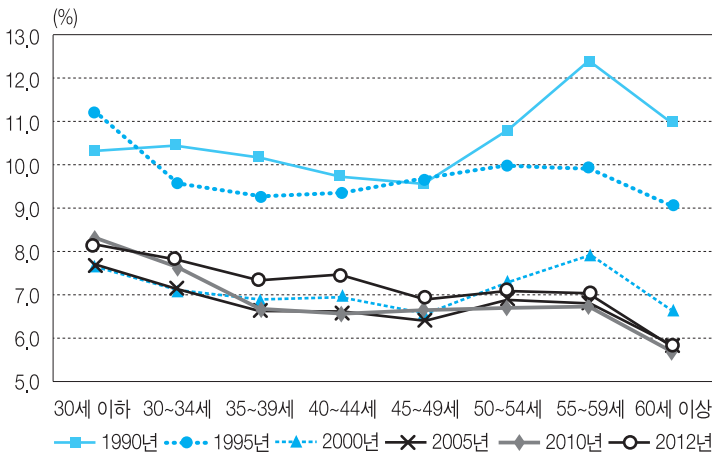
25) 50대 이후에도 주류 및 담배 소비를 계속하고 있는 집단은 더 젊은 연령층에 비해 이에 대한 중독의 정도가 더 심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류 및 담배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상대적으로 낮을 것이며 이로 인한 지출금액의 감소는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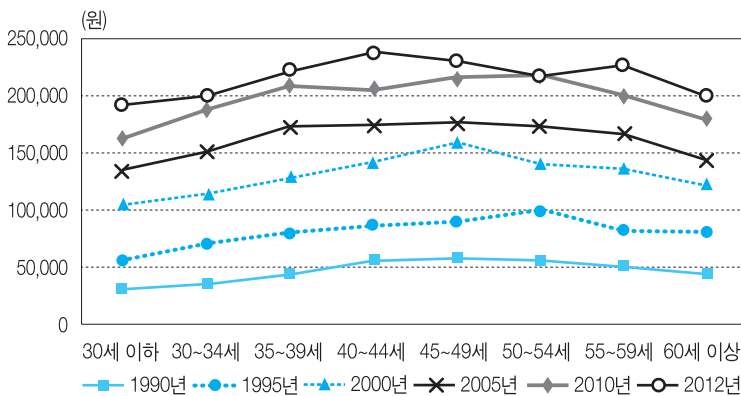
한편, 주류 및 담배 소비에 따른 지출금액은 연령대별로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으나 50대 후반에 이르러서는 감소폭이 다소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3) 의류 및 신발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소비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1990년의 경우 전 연령대에서 10% 내외의 수준을 보이다 2000년대 들어서는 6~7% 수준을 유지하였으며, 2012년에도 큰 비중의 변화 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다만 연령별로는 의류 및 신발의 소비패턴에 다소간의 차이는 확인되고 있다. 즉,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30대 이하 연령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40대에 들어서면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거나 50대를 넘어서면서 다

〈그림 5-6〉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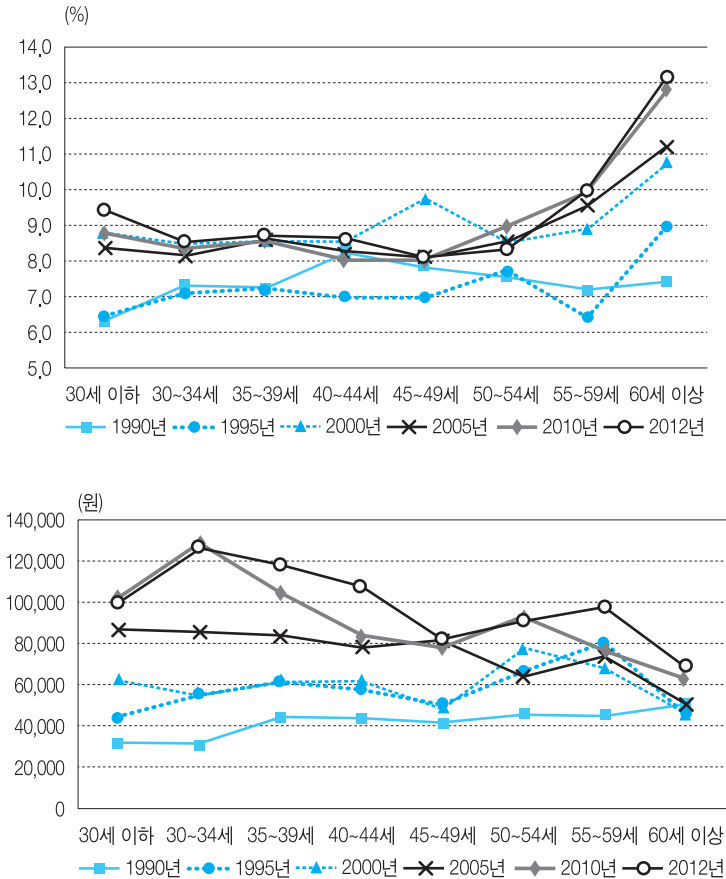
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이처럼 가계소비지출에서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소비가 30대 후반부터 40대에 이르기까지 줄어드는 것은 이 시기가 교육비에 대한 지출이 급증하는 시점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의류 및 신발에 대한 지출금액은 부양가족의 수 및 연령이 상대적으로 높은 40대에서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전 연령대에 걸쳐 그 지출액 자체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4) 주거 및 수도·광열

주거 및 수도·광열 또한 가구소비에 있어 필수재의 성격이 강한 품목으로서 30세 이하의 연령층과 55세 이상 중·고령층에서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즉, 주거 및 수도·광열에 대한 지출은 1990년에서 2000년까지는 연령이 높을수록 지출금액 역시 높은 모습을 보였으나 2005년 이후에는 30대 초반에서 가장 많은 지출이 이

〈그림 5-7〉 주거 및 수도·광열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0세 이상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주거 및 수도·광열의 비중은 1990년 7.4%에서 2012년에는 13.1%로 5.7%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30세 이하 젊은 층에서의 지출비중은 동 기간 중 6.3%에서 9.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2000년대 들어 재산형성을 위한 시작시점이 기존세대에 비해 보다 빠른 20대 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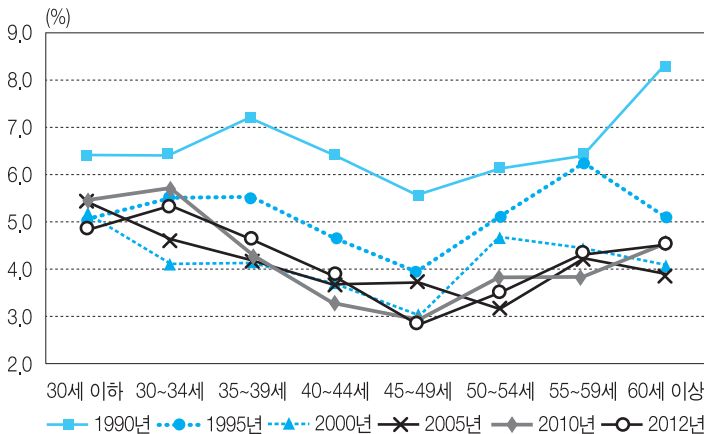
반 및 30대에 이뤄지고 이에 따른 주택과 관련된 직접비용과 부대비용의 증가가 그 원인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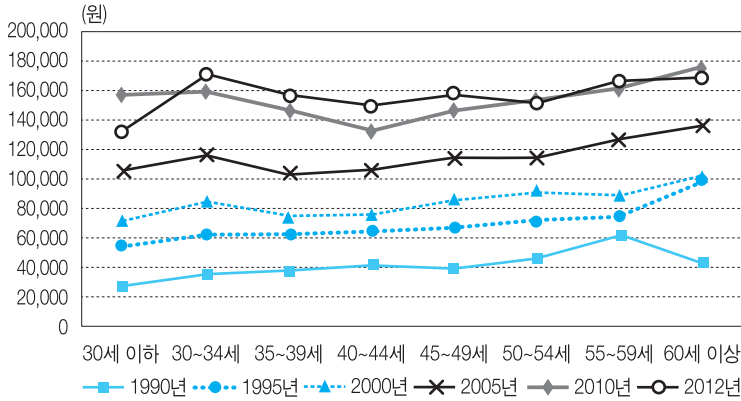
한편, 2012년 현재 주거 및 수도·광열에 대한 지출금액을 보면, 30대 중·후반 연령대에서 가장 많은 118,023원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60세 이상의 연령대에서는 가장 낮은 69,073원을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을 살펴보면 30대 중반부터 하락하여 40대 중·후반에 이르러 가장 낮은 비중을 보이고 있다. 또한 1990년에 비해 그 비중은 전 연령대에 비해 상당히 축소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0대 중후반의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소

〈그림 5-8〉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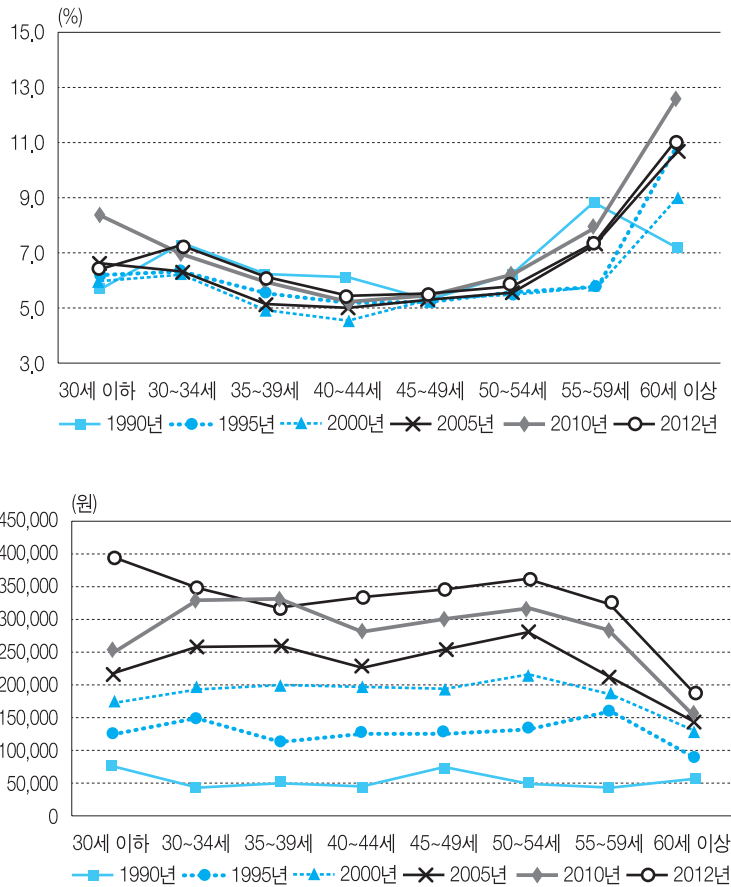


비지출 비중은 1990년 6.2%에서 2012년에는 4.6%로 하락하였으며, 30대 중후반의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 역시 동 기간 중 3.9%에서 2.8%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0대 이상에서도 예외 없이 6.3%에서 4.5%로 1.8%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지출금액의 경우에는 연령대별 큰 차이는 없으나 30대 초반에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6) 보건의서비스

전체적으로 살펴볼 때 보건의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특정 연령대에서의 소비지출 비중의 확대가 두드러지게 나타난 품목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즉, 30대 이하 가구에서는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연령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50대를 넘어서서 다시 증가하여 60대 이상 가구에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U자형 패턴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의 가계 소

〈그림 5-9〉 보건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비지출 중 보건서비스의 비중은 1990년 7.2%에서 2000년에는 8.9%, 2010년에는 12.6%까지 늘어났다. 최근 들어 30세 이하의 보건서비스 지출비중은 50, 60세 이상 중·고령층 못지않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한편, 지출금액 자체는 2005년 이전에는 50대 초반 연령대까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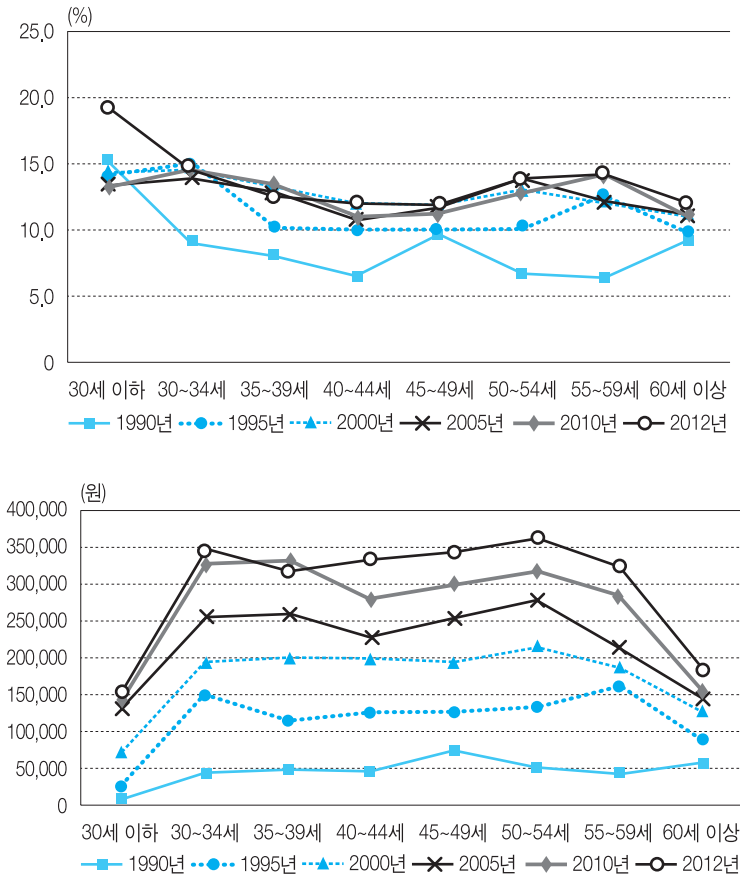
큰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으나 2005년 이후에는 은퇴 후 소득이 낮은 60대 이상 가구의 지출금액이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7) 교통서비스

교통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은 30대 이하 가구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하다 이후 연령대에서는 지속적으로 하락한 후 50대를 넘어서서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이를 시계열 관점에서 검토하면 1990년에 비해 2012년 현재 전 연령대에 걸쳐 확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30대 이전 및 30 초반 연령대와 50대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통비중이 가장 크게 확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990년 30대 이전과 30대 초반의 교통비 비중은 각각 15.3%, 9.2%에서 2012년에는 각각 19.2%, 14.7%까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최초 자동차 구매연령이 30대 초반, 20대로 점차 이동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된다. 50대의 경우에는 동 기간 중 50대 초반은 6.7%에서 14.0%, 50대 중·후반은 6.3%에서 14.3%로 상당한 정도의 비중증가가 확인되고 있다.

여기서 특징적인 사항 하나는 40대 가구의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출비중의 증가가 1990년대 중반부터 둔화되기 시작하여 2000년대 초반까지는 오히려 감소하다 최근까지 그 비중에 큰 변화가 없다는 것이다. 지출금액 자체는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에서 지출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0〉 교통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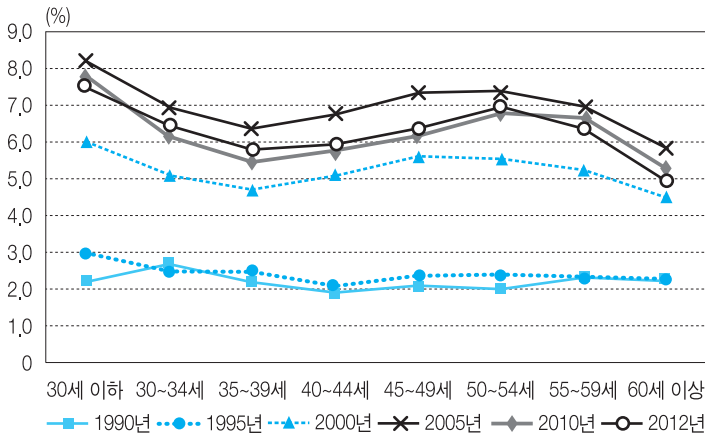
(8) 통신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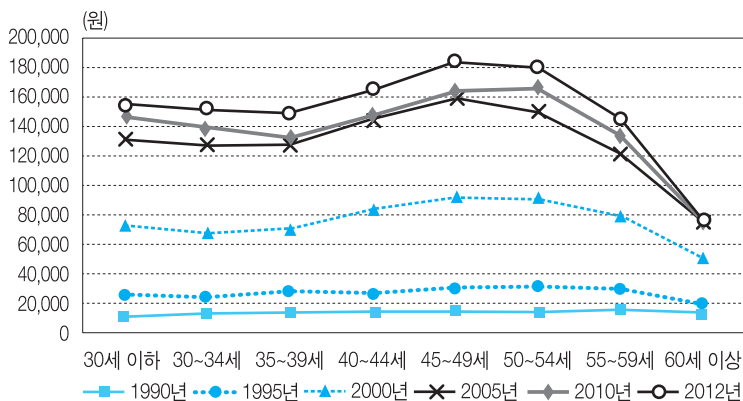
통신서비스의 지출패턴을 살펴보면 교통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모든 연령대에서 확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90년대에 비해 200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 연

령별 지출 비중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연령별로 보면 30대 이하 젊은 층 가구에서의 지출비중이 높게 나타났으며 50대 초반의 지출비중 역시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30대 이하 가계의 소비지출 중 통신서비스에 대한 비중은 1990년 2.2%에서 2012년 7.5%로 늘어나 기간 중 전 연령대에서 가장 큰 폭으로 비중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30대 이하 가구주 가계의 경우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새로운 통신기기와 같은 유행에 민감한 상품의 변화에 빠르게 반응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50대 연령층의 경우를 살펴보면 동 기간 중 50대 초반은 2.0%에서 6.9%, 50대 중·후반은 2.3%에서 6.4%로 매우 크게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다.

지출액 규모의 경우를 보면, 교통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높고 가족 구성원 수가 많은 40대 초반에서 50대 초반까지의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11〉 통신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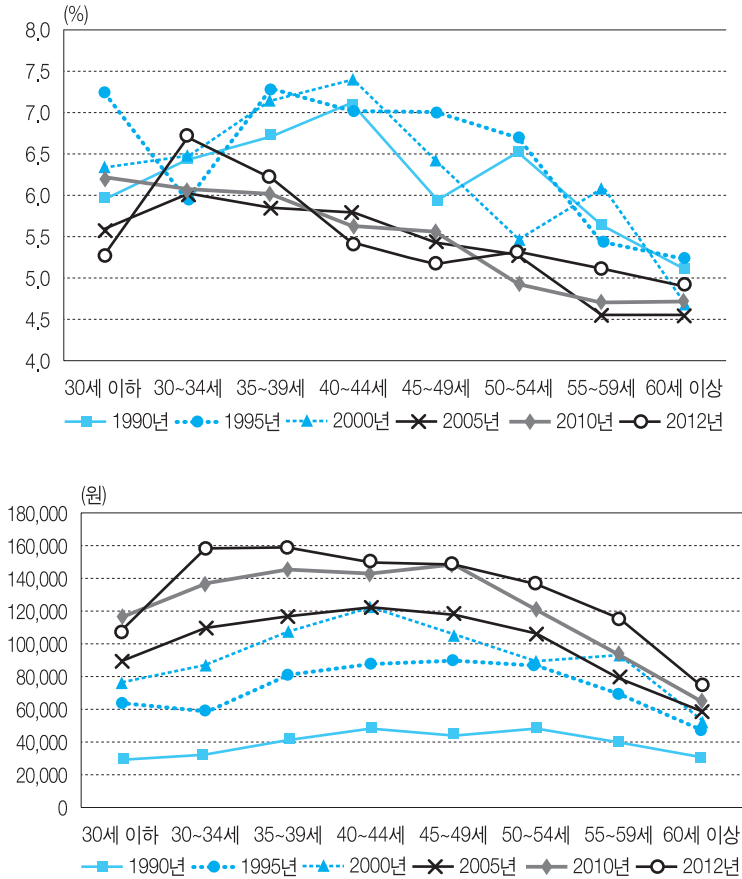




(9) 오락·문화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 비중의 변화 패턴은 연도별로 뚜렷한 공통된 특징이 없이 시점별로 차별적인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다만 오락·문화서비스의 지출비중이 정점에 이르는 시기는 1990년, 1995년, 2000년까지는 40대 초반에 나타났으며, 2000년 이후의 시기에는 좀 더 이른 30대 초반에 정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소득수준 증가와 더불어 30대 초반에서의 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욕구가 과거에 비해 최근 들어 더욱 강해졌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한편, 40대 초반의 경우에 1990년대와 2000년 이후의 시기 사이에 상당한 비중의 변화가 발견되고 있다. 1990년대에 7% 수준의 지출 비중을 보이는 반면 2000년 이후에는 대략 5% 중반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시점별 소비지출 금액 역시 지출비중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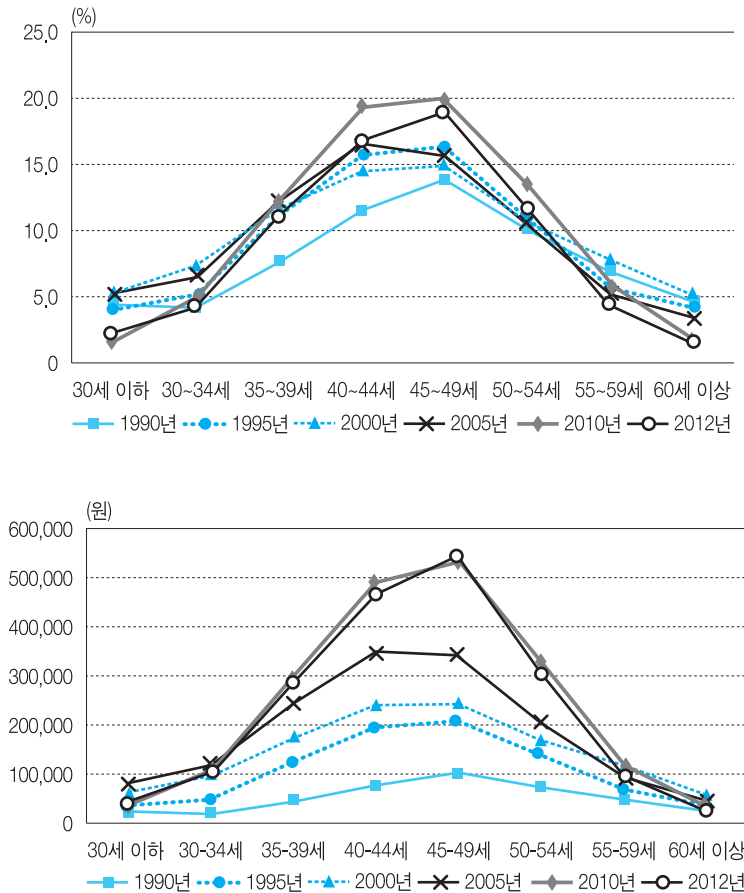
〈그림 5-12〉 오락·문화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10)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은 보건서비스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정 연령대의 소비지출 비중의 확대가 뚜렷하게 관찰되는 서비스라 할 수 있다. 교육서비스의 소비지출 비중을 보면 시점에 상관없이 40

〈그림 5-13〉 교육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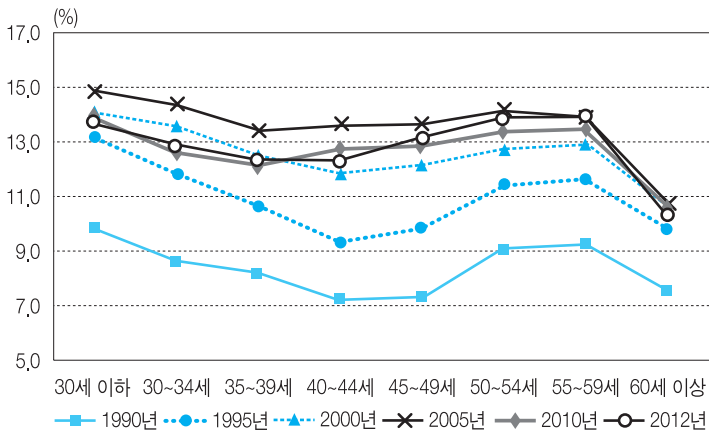
대에 정점을 찍는 뚜렷한 특징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40대 가구주 가족구성원의 대부분이 초·중·고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이들에 대한 공교육 및 사교육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40대 초반과 중·후반의 가계 소비지출 중 교육서비스의 지출 비중은 1990년에 각각 11.5%, 13.9%에서 2010년에는 각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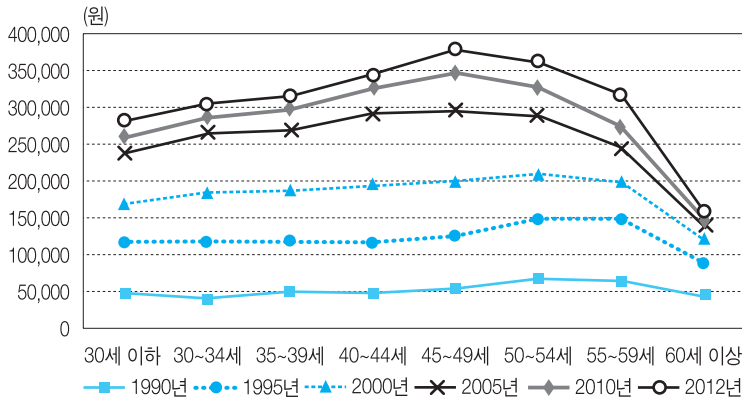
19.3%, 20%를 기록하고 있다. 2012년에도 40대의 교육비 지출비중은 가계 소비지출 12개 품목 중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다.

(11) 음식·숙박서비스

음식·숙박서비스에 대한 소비지출은 1990년대에 비해 2000년대에 들어와 지출비중이 증가한 품목이라 할 수 있다. 1990년의 경우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음식·숙박서비스의 비중은 7.5~9.8%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나 2000년에는 10.7~14.1%로 증가하여 최근에도 비슷한 수준의 비중을 보이고 있다.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40대 초반 연령대에서 가계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음식·숙박서비스의 지출비중이 타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이후 연령대에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다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급격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지출금액에서는 소득수준이 높은 40

〈그림 5-14〉 음식·숙박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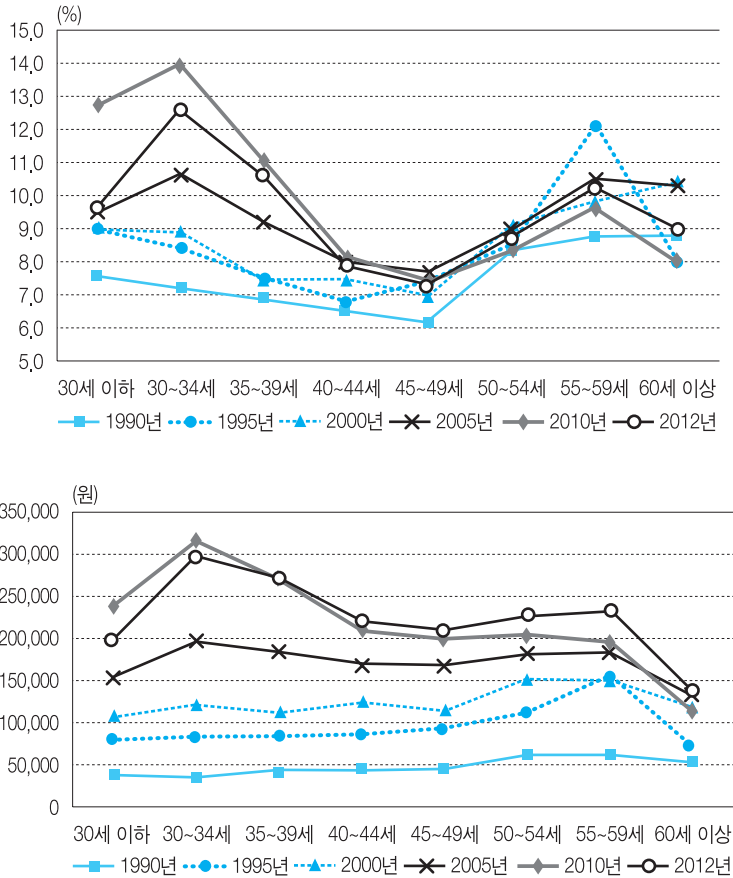
대 후반에서 가장 크게 나타났지만, 지출비중은 30대 이하와 50대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40대와 60대 이상 가구에서 하락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처럼 소득이 가장 높은 40대 가구(특히 40대 초반)의 지출비중이 낮은 이유는 가족구성원의 형태가 초·중·고 학생이 포함되어 있어 교육부문의 우선적 지출이 이뤄진 후 잔여부문으로서 소비가 이뤄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12) 기타상품 및 서비스

기타상품 및 서비스부문에 대한 소비지출은 지출금액과 지출비중 모두에서 30대 초반 가구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40대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40대에 급격한 비중 및 소비 지출액이 감소하는 원인은 역시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40대 가구의 가계 소비지출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교육비에 대한 지출로 인한 영향이 그대로 반영된 결과로 판단할

〈그림 5-15〉 기타상품 및 서비스 소비지출 비중과 금액



수 있다.

본 절에서는 연령구조 변화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 구조가 어떠한 형태로 변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경제성장에 따르며, 특히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의류 및 신발 등과 같은 필수 소비재의 지출비중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어든 반면, 교통, 통신, 교육

등과 같은 선택적 소비재의 지출은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더불어 연령별로도 큰 차이를 나타낸바, 상대적으로 고령층인 50~60대의 필수 소비재에 대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선택적 소비재의 성격이 강한 품목들의 지출은 20~30대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3. 가계 서비스 소비지출에 대한 연령-세대-연도효과 분석

(1) 가계소비지출 분해

1) 연령-세대-연도 효과 분해

일반적으로 가계의 가구지출은 가구의 소득, 경제활동을 하는 가구원 수, 가구구성원들의 교육수준, 직업 등 다양한 사회경제적 특징에 따라 결정된다. 더불어 연령별로 지출패턴에도 큰 차이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령변화로 인한 가계 소비지출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동일 연령층의 소비행위를 다른 시점에서 관찰한 패널자료(panel data)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기간의 가계지출을 조사한 패널자료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직 가구주 연령과 품목별 소비지출과 관련된 자료가 조사된 횡단면 자료인 통계청 「가계동향조사」만이 현재 수준에서 이용가능하다. 가구주 연령과 가계소비지출을 고려한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자료는 횡단면자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세대간 이질성이 강

한 경우 한 시점에서 구한 횡단면자료를 가지고는 평생 동안의 소비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할 수 없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는 횡단면자료의 시계열로부터 패널자료의 특성을 추론한 가상코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연령별 소비패턴을 분석하여 2절에서 그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2절의 <그림 4-2>에서 제시된 연령별 소비지출은 이러한 가상코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구한 결과이며, 이 결과는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에서 제시한 역 U 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특정한 해의 횡단면 가구조사를 통해 나타난 가계소비지출의 연령 코호트별 패턴에는 연령의 차이에 따른 효과뿐만 아니라 세대효과(generation effect)와 연도효과(year effec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연령별 소비패턴으로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는 한 시점에서 특정 연령대의 소비지출은 단순한 연령별 효과(age effect) 이외에 세대효과 혹은 출생집단효과(generation effect or cohort effect)와 연도효과(year effect)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동일한 시기에 태어난 출생집단은 유사한 경제, 문화 교육환경을 공유하기 때문에 출생시기가 다른 집단과는 상이한 소비지출 패턴을 보일 수 있다. 즉, 생애주기의 특정한 연령대에 속한 개인(혹은 가구)은 과거 10년 전 동일 연령대의 개인(혹은 가구)에 비해 소득수준이 높기 때문에 소비지출 역시 더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 특정 연령대의 소비지출은 추세적 경제성장이나 경기변동에 의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연도효과(year effect) 역시 고려해야 한다. 결국, 가계 지출의 연령 코호트별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세대효과와 연도효과를 제거해야 순수한 연령별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2) 분석모형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가계의 소비지출의 변화를 연령효과(net age effect), 세대효과 혹은 출생집단효과(net generation effect or cohort effect), 연도효과(net year effect)로 분해하여 가계지출의 패턴이 연령별, 세대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한다. 이와 같이 가계 소비지출을 분해하기 위해 Deaton(1997)이 제안한 후 식품소비(Harris & Blisard, 2001), 저축행위 분석(Attnasio, 1998), 의료보험수요 분석(Propper, Rees & Green, 2001)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어 온 다음의 모형을 이용한다.

$$EX_{i,t} = \beta_0 + A_j\beta_1 + C_k\beta_2 + Y_t\beta_3 + \epsilon \quad \langle 5-1 \rangle$$

여기서 $EX_{i,t}$ 는 t 년도 i 번째 가구의 품목별 지출액, A_j 는 j 번째 연령대 더미(8개), C_k 는 k 번째 코호트(세대) 더미(10개), Y_t 는 t 연도 더미(23개)를 의미한다. 또한 $\beta_0, \beta_1, \beta_2, \beta_3$ 는 각 변수의 추정계수 값을 나타낸다.

식 $\langle 5-1 \rangle$ 은 생애주기가설(life-cycle hypothesis)로부터 도출되는 가구 소비지출함수로 해석할 수 있으며,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일정 세대별 선호, 연령별 선호 그리고 경기변동이나 소득 및 가격 등의 경제적 변수 등의 연도요인으로 구분하여 파악하는 모형으로 고려할 수 있다. 식 $\langle 5-1 \rangle$ 에서의 각각의 더미변수의 추정계수 값은 순수한 연령효과(net age effect), 세대효과(net cohort effect), 연도효과(net year effect)를 의미한다.

하지만 위의 식 추정에는 조사연도와 가구주 연령을 알게 될 경우 가구주 출생연도(세대 코호트)를 자동으로 알게 됨에 따라 각 더미 변수에서 1개씩을 제외할 경우엔 추정이 불가능해진다. 따라서 Deaton(1997)이 제시한 방법을 따라 연령 및 출생연도(세대) 더미는 1개씩을 제외(30세 이하, 1940년 이전 세대)하고, 연도더미 생성에 있어서는 첫째와 두 번째 해에 대응하는 더미변수는 제외한 후 나머지 연도 더미는 아래와 같은 추가적인 더미생성 방법을 사용하여 생성한다.²⁶⁾

$$D_t = d_t - (t-1)d_2 - (t-2)d_1 \quad \langle 5-2 \rangle$$

한편, 가구단위 소비지출은 가구규모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가구원 수의 차이를 통제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와 같은 미시 소비지출자료의 경우에는 군

〈표 5-3〉 가구주 출생연도별 코호트 더미 및 연령 더미

가구주 출생연도	코호트 더미	가구주 연령	연령 더미
1940년 이전	1(base)	30세 미만	1(base)
1940~1944년	2	30~34세	2
1945~1949년	3	35~39세	3
1950~1954년	4	40~44세	4
1955~1959년	5	45~49세	5
1960~1964년	6	50~54세	6
1965~1969년	7	55~59세	7
1970~1974년	8	60세 이상	8
1975년 이후	9	-	-

26) 여기서 d_1 , d_2 는 첫째와 두 번째 연도에 대응하는 더미.

등화척도(equivalence scale)를 이용하여 가구원 수를 반영한 조정된 소득을 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²⁷⁾ 일반적으로 균등화척도를 고려하는 핵심은 개인의 욕구를 계산함에 있어 가구원이 한 사람씩 추가될 때 얼마만큼의 욕구를 더해가는가의 문제이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진행되어 오고 있으며 균등화척도를 계산하는 방법 역시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구원 수의 차이를 통제하기 위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어온 아래와 같은 균등화척도를 이용하여 조정된 등가소비지출액(E_i)을 산출한다.

$$E_i = \frac{x_i}{(S)^\theta} \quad \langle 5-3 \rangle$$

여기서 x_i 는 i 번째 가구의 품목별 지출액, S 는 가구원 수, θ 는 균등화지수를 나타내며 $\theta=1$ 은 가구원 1인당 지출을 $\theta=0$ 은 가구당 지출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Barret et al.(2000), 황덕순(2011)에서 사용한 바와 같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theta=0.5$ 를 대입하여 가구별 소비지출액을 균등화하고자 한다. 이러한 방식으로 계산된 등가소비지출액은 공식이 매우 간단하고 각국의 등가소비지출을 쉽게 비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또한 다른 환산방법과 비교하여 그 값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 정당성이 보장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가계동향조사자료를 사용하여 가구원 수로 환산소비지출액을 추정된 결과 4

27) 균등화척도는 소득과 가구특성으로부터 조정된 소득을 구하는 함수형태를 의미한다.

인가구의 소비규모를 1로 놓을 때 2인가구는 0.742, 3인가구는 0.883, 5인가구는 1.101, 6인 가구는 1.191인데 반해, 가구원 수 제곱근을 사용할 경우에는 2인가구는 0.707, 3인가구는 0.866, 5인가구는 1.118, 6인가구는 1.224로 나타나 크게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²⁸⁾

한편, 식 <5-3>을 통해 구해진 조정된 가구별 지출액은 식 <4-1>을 기초로 추정되어지는데 실제 추정 시에는 품목별로 가구 소비지출액이 0인 경우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기 위해 토빗(Tobit) 모형을 이용한다.

(2) 분석결과

1) 연령별 가계소비지출 추이

먼저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1990년부터 2012년까지를 이용하여 연령별 가계소비지출 추이를 살펴보면, <그림 5-16>과 같다. 그림에서 각 실선은 1990년을 기준으로 가구주 연령수준에 따라 구분된다. 예를 들어, 1990년에 30~35세인 집단은 1995년에는 35~40세, 2000년에는 40~45세, 2005년에는 45~50세, 2010년에는 50~55세의 집단이 된다는 가정하에 해당 집단의 지출액 추이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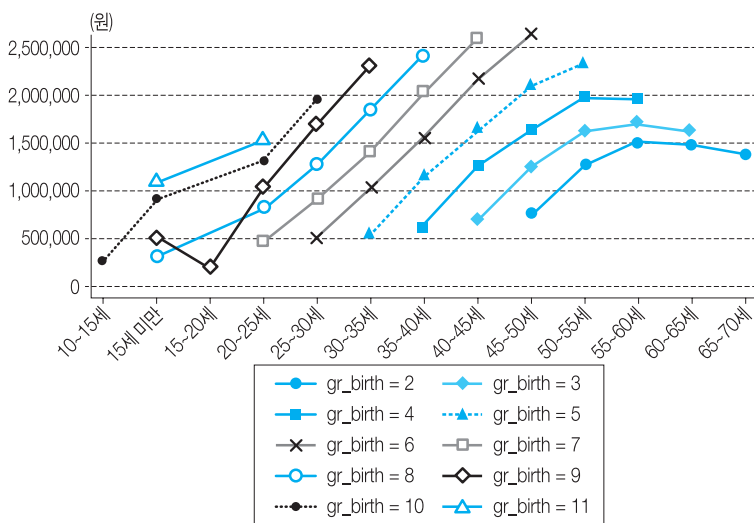
가구주 출생연도에 따른 연령별 소비지출패턴을 살펴보면, 50대 후반까지는 지출이 증가하다 은퇴 이후 소득이 감소함에 따라 지출이 감소하는 역 U자형 생애주기패턴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위에서 제시된 가계소비지출패턴은 연령별 효과 이외에 세대효과(net

28)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정우·이정립(2001)을 참조.

cohort effect)와 연도효과(net year effect)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연령별 지출패턴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즉, 같은 연령대에서도 어느 시기에 출생하였는가에 따라 가계지출규모는 상이하게 나타난다. 이는 생애주기의 특정 연령대에 속한 개인(혹은 가구)은 평균적으로 봤을 때 과거(예를 들어 10년 전)의 동일 연령대의 개인(혹은 가구)보다 소득수준이 높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비지출 역시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평균적으로 봤을 때 현재의 30대 연령층은 현재의 40~50대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지만, 현재의 40~50대가 30대일 때에 비해서는 소득수준이 높아 소비지출 역시 그 당시의 30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세대효과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발생할 수 있다. 첫째는 경제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경우 젊은 세대일수록 이전세대보다 높아

〈그림 5-16〉 연령별 가계소비지출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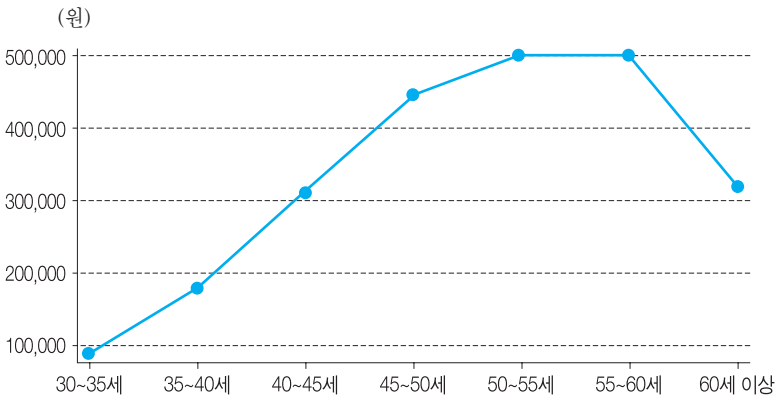
진 소득수준으로 인해 동일한 연령대에서 이전 세대와는 다른 소비패턴을 보일 수 있다. 둘째로, 젊은 세대일수록 이전 세대에 비해 정보의 접근성이 높고 평균적인 교육수준 역시 높기 때문에 소비와 관련된 정보의 양과 질에서 이전 세대에 비해 월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는 세대간 소비의 이질성을 유발할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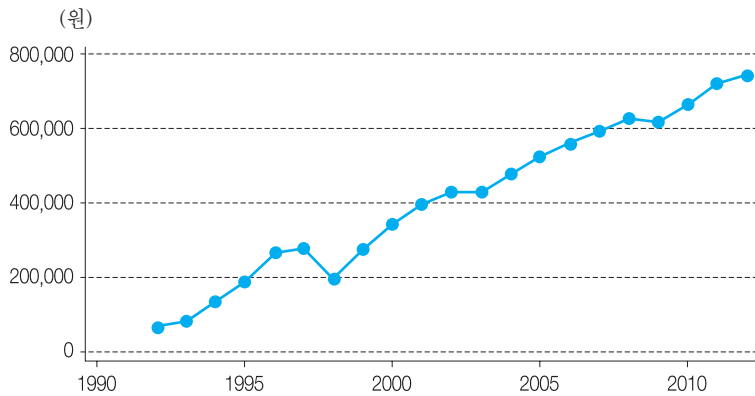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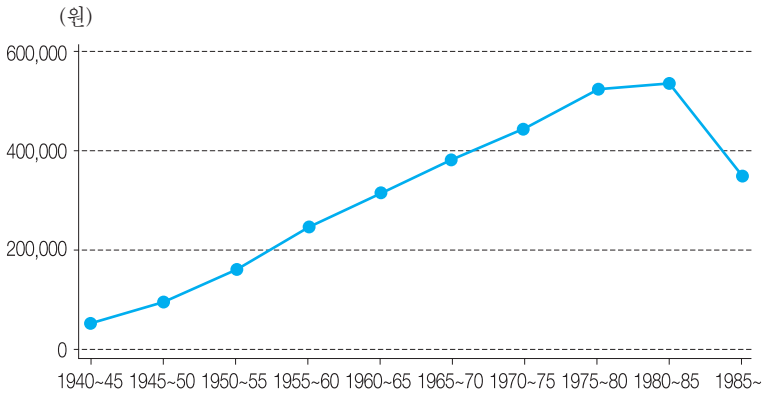
2) 가계 총소비지출 분해 결과

식 <5-1>을 이용하여 가구의 총지출을 추정한 결과, 연령효과, 세대효과 및 연도효과에 대응하는 더미변수 추정계수는 5% 이하의 수준에서 모두 유의하여 연령-세대-연도효과가 가계지출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그림 5-17>에는 가계 총소비지출을 연령-세대-연도효과로 분해한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먼저 연령효과는 55~59세 연령대까지는 연령

<그림 5-17> 가계 총소비지출의 연령-세대-연도효과 분해





이 증가함에 따라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60세 이상 연령대에서
는 감소하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효과
의 경우 1940년 이전 출생세대 대비 1940~1985년 출생세대의 가계 총소
비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가 젊어질수
록 가계 총지출은 늘어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연도효과는 전체
적인 가구소득 증가로 1990, 1991년 대비 가구의 총소비지출은 1998
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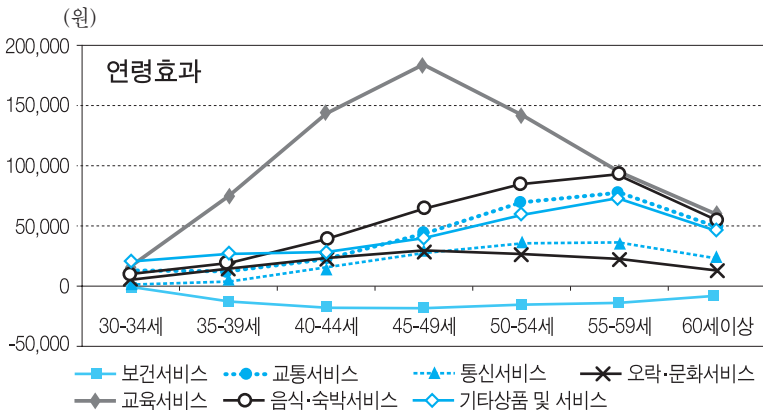
(3) 서비스부문 품목별 소비지출 분해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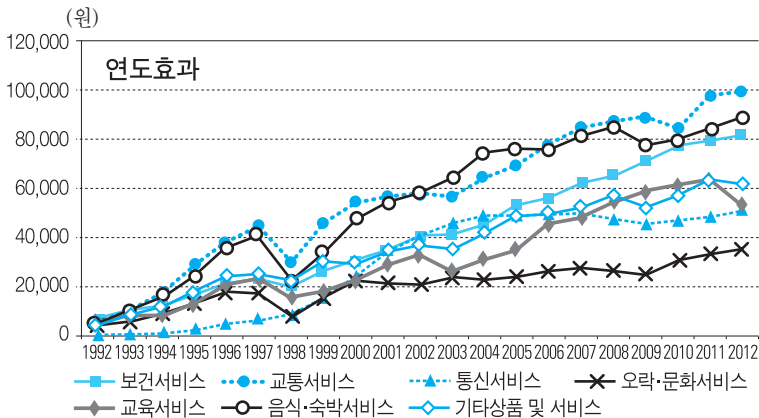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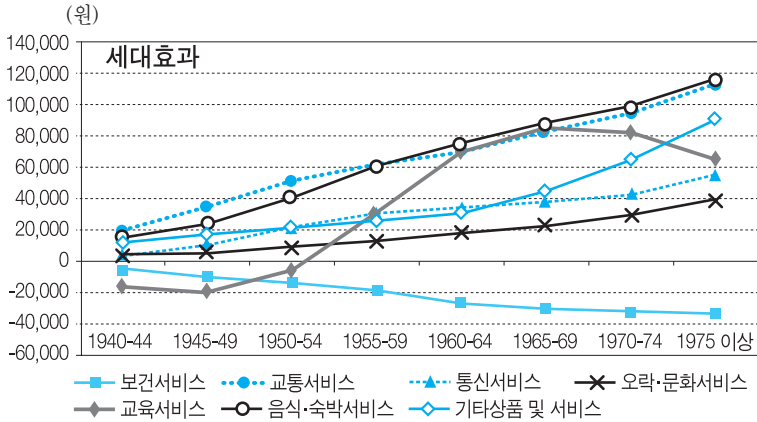
〈그림 5-18〉을 살펴보면 보건서비스의 30~34세 연령더미와 통신서비스의 1992, 1993년의 연도더미를 제외하고는 5% 이내의 유의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한 것으로 나타나 연령-세대-연도효과가 서비스부문의 가계지출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서비스부문별 연령효과는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전반적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50대 후반 연령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품목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역 U자형 패턴이 확인되고 있다. 세대효과와 경우 또한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세대가 젊을수록 품목별 소비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보건서비스의 경우에는 세대가 젊어질수록 보건분야에 대한 지출

〈그림 5-18〉 서비스부문 연령-세대-연도효과 분해





액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육서비스의 경우에는 1955~1959년생 이후 출생세대부터 교육비 지출액이 (+) 수준으로 돌아서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연도효과를 보면, 시간이 지날수록 품목별 지출액 변화의 정도는 다를지라도 1998년을 제외하고 서비스부문 모두에서 1990, 1991년 대비 소비지출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 <5-1>을 이용하여 추정된 품목별 연령-세대-연도효과 분해결과는 <표 5-4>~<표 5-8>에 제시되어 있다.

〈표 5-4〉 Tobit 모형 추정결과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주류 및 담배		의류 및 신발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연령 효과	30~34세	8,971.611***	12.601	365.167**	2.280	5,173.630***	6.922
	35~39세	14,982.781***	17.806	235.961	1.246	10,938.177***	12.383
	40~44세	20,877.315***	20.080	641.894***	2.744	21,984.235***	20.143
	45~49세	23,697.458***	18.706	1,986.418***	6.970	32,512.001***	24.447
	50~54세	26,165.665***	17.331	4,478.501***	13.185	40,033.679***	25.259
	55~59세	35,929.291***	20.438	6,777.883***	17.138	41,602.603***	22.544
	60세 이상	37,045.918***	17.597	4,854.613***	10.250	22,430.882***	10.150
세대 효과	1940~1944년	11,617.603***	14.787	1,787.184***	10.111	7,474.337***	9.062
	1945~1949년	11,301.564***	12.653	3,086.449***	15.360	11,121.705***	11.861
	1950~1954년	11,138.140***	10.242	4,070.338***	16.638	16,035.571***	14.047
	1955~1959년	9,074.190***	7.063	4,799.096***	16.605	22,930.960***	17.004
	1960~1964년	6,135.312***	4.088	4,753.001***	14.077	28,282.699***	17.951
	1965~1969년	3,088.410*	1.774	5,418.223***	13.833	36,340.934***	19.883
	1970~1974년	984.785	0.498	6,127.055***	13.767	44,918.326***	21.629
연도 효과	1975년 이상	-6,380.397***	-2.777	6,896.545***	13.342	57,556.857***	23.863
	1992년	14,712.304***	16.425	469.826**	2.331	6,244.775***	6.641
	1993년	15,534.182***	20.123	602.445***	3.469	6,342.828***	7.827
	1994년	28,956.133***	33.523	1,704.408***	8.771	12,007.910***	13.243
	1995년	32,459.035***	37.126	2,091.454***	10.633	17,852.241***	19.451
	1996년	42,317.804***	47.429	2,887.979***	14.388	23,205.523***	24.775
	1997년	42,198.582***	45.673	3,702.357***	17.812	17,310.354***	17.847
	1998년	30,686.005***	33.359	3,744.726***	18.096	877.028	0.908
	1999년	42,252.358***	44.473	5,033.324***	23.549	6,671.504***	6.689
	2000년	44,046.905***	40.399	5,516.406***	22.490	11,887.960***	10.387
	2001년	46,166.099***	41.180	6,383.586***	25.311	15,060.225***	12.797
	2002년	50,575.949***	43.564	6,173.039***	23.635	17,442.191***	14.312
	2003년	50,608.720***	47.490	6,342.412***	26.455	15,386.770***	13.754
	2004년	60,426.778***	54.610	7,745.280***	31.114	15,516.326***	13.358
	2005년	63,841.502***	58.247	8,586.000***	34.821	19,056.156***	16.562
	2006년	64,430.807***	56.212	8,559.062***	33.193	20,557.796***	17.085
	2007년	66,432.223***	55.183	8,668.467***	32.007	21,611.549***	17.101
	2008년	77,820.411***	63.009	8,489.859***	30.555	22,409.341***	17.284
	2009년	74,455.928***	58.683	7,618.330***	26.690	21,620.317***	16.232
	2010년	84,745.383***	64.912	7,428.029***	25.291	26,360.774***	19.234
	2011년	96,802.724***	72.158	7,731.190***	25.617	32,677.315***	23.203
	2012년	104,524.420***	75.884	7,711.125***	24.885	35,367.516***	24.459
상수항		63,678.182***	37.820	56.862	0.150	597.607	0.338

〈표 5-5〉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주거 및 수도광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연령 효과	30~34세	2,927.970***	2.698	6,021.821***	5.248
	35~39세	6,280.021***	4.895	7,465.846***	5.506
	40~44세	9,755.075***	6.154	5,759.875***	3.438
	45~49세	14,494.429***	7.505	6,426.762***	3.148
	50~54세	17,847.065***	7.754	11,972.39***	4.921
	55~59세	20,530.219***	7.660	13,338.67***	4.708
	60세 이상	20,072.748***	6.254	4,712.901	1.389
세대 효과	1940~1944년	603.628	0.504	815.886	0.644
	1945~1949년	4,126.507***	3.030	124.142	0.086
	1950~1954년	6,377.447***	3.847	-1,185.921	-0.677
	1955~1959년	4,618.248**	2.358	-477.278	-0.231
	1960~1964년	4,993.777**	2.183	-179.455	-0.074
	1965~1969년	3,994.986	1.505	2,496.114	0.890
	1970~1974년	4,258.502	1.412	8,628.896***	2.707
	1975년 이상	5,193.619	1.483	16,411.99***	4.432
연도 효과	1992년	8,119.317***	5.946	3,163.083**	2.191
	1993년	10,642.027***	9.042	2,722.810**	2.189
	1994년	12,673.126***	9.624	6,593.570***	4.737
	1995년	15,839.641***	11.884	7,761.118***	5.508
	1996년	21,910.283***	16.108	14,268.99***	9.924
	1997년	26,087.162***	18.520	8,627.529***	5.794
	1998년	31,383.181***	22.379	2,178.111	1.469
	1999년	36,115.145***	24.934	5,485.382***	3.583
	2000년	44,706.933***	26.897	9,853.701***	5.608
	2001년	54,531.731***	31.906	14,508.99***	8.031
	2002년	54,154.972***	30.597	14,745.95***	7.882
	2003년	52,507.310***	32.319	12,152.53***	7.076
	2004년	56,027.791***	33.213	13,251.98***	7.432
	2005년	62,284.018***	37.275	16,466.99***	9.323
	2006년	68,850.396***	39.401	17,657.48***	9.559
	2007년	69,316.377***	37.768	23,131.35***	11.923
	2008년	73,203.160***	38.878	19,024.35***	9.558
	2009년	73,883.869***	38.196	19,313.96***	9.446
	2010년	83,219.734***	41.812	22,303.91***	10.601
	2011년	90,249.748***	44.127	25,312.99***	11.708
	2012년	94,417.122***	44.962	26,748.14***	12.050
상수항		12,548.378***	4.889	15,341.32***	5.654

〈표 5-6〉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보건서비스		교통서비스		통신서비스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연령 효과	30~34세	-978,918	-0.948	12,388,663***	4.937	1,507,157***	4.984
	35~39세	-11,487,792***	-9.417	12,360,261***	4.168	4,180,653***	11.697
	40~44세	-17,504,338***	-11.613	22,757,766***	6.211	14,434,707***	32.687
	45~49세	-17,957,764***	-9.778	44,813,216***	10.037	28,427,326***	52.831
	50~54세	-14,290,356***	-6.529	68,706,505***	12.912	36,376,715***	56.725
	55~59세	-13,807,760***	-5.418	78,525,844***	12.675	36,069,594***	48.307
	60세 이상	-7,654,745**	-2.508	48,328,259***	6.514	23,249,847***	26.001
세대 효과	1940~1944년	-4,867,228***	-4.273	19,864,746***	7.174	4,542,812***	13.613
	1945~1949년	-9,154,855***	-7.070	34,719,676***	11.029	11,261,367***	29.683
	1950~1954년	-12,716,845***	-8.066	51,733,712***	13.499	22,006,406***	47.644
	1955~1959년	-17,793,021***	-9.553	61,665,419***	13.620	31,098,359***	56.993
	1960~1964년	-25,680,913***	-11.802	70,257,806***	13.283	34,868,160***	54.697
	1965~1969년	-29,790,454***	-11.802	82,450,822***	13.437	37,980,855***	51.359
	1970~1974년	-32,612,298***	-11.371	95,140,849***	13.646	42,935,072***	51.097
연도 효과	1975년 이상	-32,956,467***	-9.894	112,181,246***	13.854	55,185,550***	56.548
	1992년	6,956,011***	5.356	5,568,583*	1.764	38,276	0.101
	1993년	10,424,805***	9.315	9,605,536***	3.531	131,266	0.400
	1994년	12,638,050***	10.092	16,899,383***	5.551	998,732***	2.722
	1995년	16,730,897***	13.200	29,442,503***	9.555	2,182,184***	5.876
	1996년	21,487,064***	16.611	37,641,273***	11.971	4,530,095***	11.954
	1997년	23,269,516***	17.372	44,313,784***	13.609	6,408,395***	16.330
	1998년	19,714,119***	14.783	29,534,952***	9.110	8,384,900***	21.461
	1999년	26,556,306***	19.280	46,087,579***	13.764	14,846,126***	36.790
	2000년	30,475,512***	19.280	53,942,651***	14.038	24,222,292***	52.305
	2001년	34,240,766***	21.067	56,667,265***	14.343	33,731,938***	70.840
	2002년	40,408,708***	24.008	57,635,791***	14.087	40,671,427***	82.479
	2003년	41,214,968***	26.677	56,746,283***	15.109	45,996,468***	101.619
	2004년	45,716,729***	28.498	64,661,008***	16.581	49,348,636***	105.000
	2005년	52,906,914***	33.295	69,326,155***	17.947	48,735,325***	104.686
	2006년	56,329,553***	33.898	77,498,020***	19.185	49,075,567***	100.803
	2007년	62,384,548***	35.744	85,122,912***	20.063	49,492,790***	96.793
	2008년	65,621,126***	36.648	87,429,905***	20.086	47,603,773***	90.745
	2009년	71,115,070***	38.661	89,368,731***	19.986	45,554,904***	84.531
	2010년	77,775,689***	41.092	83,881,984***	18.231	46,775,638***	84.353
	2011년	79,283,774***	40.764	98,107,768***	20.750	48,372,975***	84.893
	2012년	82,011,597***	41.068	99,366,579***	20.469	51,022,581***	87.210
상수항		44,708,317***	18.315	-41,364,263***	-6.971	-25,263,716***	-35.326

〈표 5-7〉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오락·문화서비스		교육서비스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연령 효과	30~34세	6,031.464***	7.388	15,309.640***	10.408
	35~39세	15,513.831***	16.079	74,841.394***	43.049
	40~44세	22,967.069***	19.265	143,946.919***	67.013
	45~49세	28,174.637***	19.396	183,643.213***	70.164
	50~54세	26,908.197***	15.543	142,150.221***	45.571
	55~59세	23,702.535***	11.759	94,566.153***	26.037
	60세 이상	13,181.239***	5.460	59,169.144***	13.603
세대 효과	1940~1944년	4,423.298***	4.910	-15,569.769***	-9.592
	1945~1949년	6,146.365***	6.001	-19,213.838***	-10.412
	1950~1954년	9,164.542***	7.350	-4,764.568**	-2.121
	1955~1959년	13,169.401***	8.940	30,010.171***	11.307
	1960~1964년	18,808.698***	10.929	70,130.985***	22.617
	1965~1969년	23,507.044***	11.775	86,561.360***	24.064
	1970~1974년	29,497.269***	13.004	82,174.030***	20.105
	1975년 이상	39,795.428***	15.105	65,517.122***	13.802
연도 효과	1992년	4,485.252***	4.367	6,587.654***	3.560
	1993년	5,615.951***	6.344	8,128.088***	5.096
	1994년	8,895.604***	8.981	7,074.886***	3.964
	1995년	13,537.775***	13.504	13,534.842***	7.493
	1996년	17,816.463***	17.415	20,260.668***	10.991
	1997년	17,529.714***	16.547	23,412.678***	12.265
	1998년	7,389.006***	7.005	14,878.321***	7.829
	1999년	14,842.304***	13.624	17,505.321***	8.918
	2000년	22,215.180***	17.770	22,336.943***	9.916
	2001년	21,557.971***	16.770	28,452.968***	12.284
	2002년	20,850.030***	15.662	32,964.904***	13.743
	2003년	23,556.609***	19.278	25,477.671***	11.572
	2004년	22,663.533***	17.862	31,009.849***	13.564
	2005년	23,805.561***	18.942	34,864.976***	15.396
	2006년	25,955.155***	19.748	44,981.454***	18.995
	2007년	27,291.023***	19.771	47,451.570***	19.078
	2008년	26,604.689***	18.786	54,441.824***	21.335
	2009년	25,186.709***	17.312	58,949.544***	22.488
	2010년	31,059.926***	20.748	61,105.785***	22.654
	2011년	33,304.937***	21.651	62,984.596***	22.724
	2012년	35,525.793***	22.493	52,371.550***	18.403
상수항		-3,404.987*	-1.764	-69,715.806***	-20.041

〈표 5-8〉 Tobit 모형 추정결과 (계속)

		음식·숙박서비스		기타상품 및 서비스	
		계수 값	t-값	계수 값	t-값
연령 효과	30~34세	10,444.084***	11.832	22,079.098***	15.349
	35~39세	19,596.921***	18.784	26,417.461***	15.538
	40~44세	39,494.807***	30.638	27,792.225***	13.230
	45~49세	64,611.547***	41.136	39,407.301***	15.396
	50~54세	84,895.861***	45.352	59,439.043***	19.485
	55~59세	92,763.659***	42.560	74,004.012***	20.835
	60세 이상	54,394.195***	20.839	45,897.490***	10.790
세대 효과	1940~1944년	15,257.014***	15.662	12,636.423***	7.960
	1945~1949년	24,911.741***	22.495	18,678.809***	10.350
	1950~1954년	41,072.624***	30.463	21,567.995***	9.816
	1955~1959년	59,846.889***	37.574	26,569.413***	10.236
	1960~1964년	75,607.602***	40.631	31,401.110***	10.355
	1965~1969년	88,317.814***	40.913	44,376.286***	12.615
	1970~1974년	99,494.701***	40.564	64,581.762***	16.157
	1975년 이상	116,277.412***	40.817	91,136.812***	19.632
연도 효과	1992년	5,752.242***	5.179	5,187.294***	2.866
	1993년	8,089.848***	8.452	8,112.592***	5.201
	1994년	16,079.738***	15.014	12,901.499***	7.392
	1995년	23,965.654***	22.109	16,971.388***	9.607
	1996년	35,024.076***	31.661	25,238.897***	14.000
	1997년	41,012.680***	35.802	25,131.569***	13.463
	1998년	22,054.773***	19.338	22,030.903***	11.854
	1999년	33,975.836***	28.843	30,285.814***	15.777
	2000년	48,097.314***	35.580	28,589.250***	12.978
	2001년	53,674.988***	38.616	35,755.288***	15.785
	2002년	58,208.169***	40.439	36,731.387***	15.659
	2003년	63,806.348***	48.291	35,167.255***	16.333
	2004년	74,380.709***	54.216	41,310.568***	18.478
	2005년	75,976.495***	55.909	48,243.413***	21.785
	2006년	75,866.620***	53.384	50,210.983***	21.681
	2007년	81,541.481***	54.631	51,583.652***	21.207
	2008년	84,678.379***	55.298	57,266.648***	22.949
	2009년	77,317.107***	49.149	51,678.271***	20.159
	2010년	79,938.108***	49.385	57,225.166***	21.694
	2011년	83,931.463***	50.460	62,712.293***	23.136
	2012년	88,641.822***	51.904	61,531.365***	22.109
상수항		-47,123.077***	-22.573	-25,949.949***	-7.628

1) 보건서비스

먼저 보건서비스의 세대효과를 살펴보면, 1940년 이전 출생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연령이 젊어질수록 보건서비스 지출액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출생연도가 1950~1954년인 세대는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보건관련 지출액이 17,793원 덜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젊은 그룹인 1975년생 이상 출생세대는 32,956원 지출을 덜 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세대효과를 제거한 후 순수한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대비 전 연령대에서 지출액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5~49세의 보건서비스 지출액은 17,957원 적은 것으로 나타나 가장 큰 차이를 보였으며, 60대 이상은 그 차이가 7,654원 적은 수준으로 줄어드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실제 소득은 40대 후반에 가장 높지만 교육비, 통신비와 같은 보건서비스 이외의 지출이 많이 발생하므로 보건비에 대한 지출은 30대 이하에 비해 오히려 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연도효과를 보면 보건부문의 소비지출은 1990, 1991년 대비 1997년에 23,269원까지 늘어났으나 1998년에는 전년에 비해 3,555원 줄어든 19,714원 늘어나는 데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 교통서비스

교통서비스의 세대효과를 살펴보면, 1940년 이전 출생세대 대비 출생이 늦은 세대일수록 교통비 지출액이 크게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출생연도가 1950~1954년인 세대는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이 51,733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975년생 이상 출생세대는 112,181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교통서비스에 대한 지출에 있어 세대간 차이가 상당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순수한 연령효과와 경우에는, 30대 이하 대비 전 연령대에서 통신 지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55~59세의 연령대의 경우에 최대 78,525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통서비스의 연도효과와 경우는 지출액은 다소간의 증감은 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통신서비스

통신서비스의 세대효과를 살펴보면, 1940년 이전 출생세대를 기준으로 볼 때 연령이 젊어질수록 통신서비스 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연도가 1950~1954년인 세대는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이 4,542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젊은 그룹인 1975년생 이상 출생세대는 55,185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지출패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음이 확인되고 있다.

세대효과를 제거한 후 순수한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대비 전 연령대에서 통신지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50~54세의 연령대의 경우에는 36,376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효과를 보면 통신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1990, 1991년 대비 최근으로 올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오락·문화서비스

오락·문화서비스의 세대효과를 살펴보면, 1940년 이전 출생세대를 대비 젊은 연령층에서의 지출액이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출생연도가 1960~1964년인 세대는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오락·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이 18,808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젊은 그룹인 1975년생 이상 출생세대는 39,795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세대간 지출패턴에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오락·문화서비스에 대한 순수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대비 전 연령대에서 오락·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더 크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그 증가 추이는 45~50세에 가장 절정을 이뤄 28,174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이후 연령대에서는 지출액을 점차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효과와 경우 오락·문화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1990, 1991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경기 상황에 따라 전년 대비 감소하는 구간도 확인되고 있다.

5) 교육서비스

교육서비스의 세대효과를 살펴보면, 1940년대 및 1950년대 초반 출

생세대까지는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교육비 지출액이 더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1950년대 후반 출생세대를 기점으로 늘어나기 시작하여 1960년대 출생세대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1960~1964년 출생세대는 70,130원, 1965~1969년 출생세대는 86,561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교육비의 순수한 연령효과를 보면, 30대 이하 대비 전 연령대에서 지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40대 초반은 14만 3,946원, 40대 후반은 18만 3,643원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된다.

연도효과를 보면 교육부문의 지출액은 시점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1990, 1991년 대비 지속적으로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6) 음식·숙박서비스

음식·숙박서비스의 세대효과는, 1940년 이전 출생세대 대비 연령이 젊어질수록 지출액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1950~1954년 인 출생세대는 1940년 이전 출생세대에 비해 음식·숙박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이 41,072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가장 젊은 그룹인 1975년생 이상 출생세대는 116,277원 더 지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효과를 제거한 후 순수한 연령효과를 살펴보면, 30대 이하 대비 전 연령대에서 음식·숙박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60세 이후 연령대에서는 55~59세 연령대에 비해 크게 줄어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효과를 보면 음식·숙박서비스에 대한 지출액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꾸준히 늘어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부록의 〈그림 1〉~〈그림 12〉에는 「가계동향조사」에서 분류하고 있는 12개 품목별 연령-세대-연도효과와 결과의 결과가 제시되어 있다.

제6장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수요측면의 관점에서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소비구조 변화의 행태에 관한 종합적인 실증분석 결과를 제시하고, 이러한 소비구조의 변화가 우리나라 서비스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향후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 제시를 목표로 하였다. 이를 위해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구의 소비지출 품목별 소비에 어떤 특성(차이)이 있는지, 더불어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가구 소비지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살펴보았다.

또한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기반으로 가구의 소비지출에 관한 동태적 변화를 가상코호트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소비지출이 연령별, 세대별로 어떠한 변화행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주요 분석내용에 대한 결과 및 시사점에 관한 사항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우리나라 가계의 서비스 소비지출 구조

본 연구의 제4장에서는 Price-Scaling AIDS 모형을 이용하여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에 어떤 특성(차이)이 있는지, 더불어 가구주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가구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2000~2012년까지 13년간 통계청의 가계소비지출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된 주요 연구결과를 서비스 지출품목별 탄력성 추정치를 기준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 평균에서 구한 소득탄력성은 모든 품목에서 양의 값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고려된 모든 품목이 정상재(normal good)임이 확인되었다. 전반적으로는 서비스 품목들이 비서비스 품목들에 비해 소득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나 소득 변화에 보다 민감하며, 앞으로 소득 증가 시 더 큰 수요 증가가 예상되었다. 특히, 교육의 경우 소득탄력성이 1.546으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교통, 오락·문화,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가 1보다 큰 소득탄력성이 나타나, 소득 변화에 매우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가격탄력성의 경우에는 주거 및 수도·광열을 제외한 모든 품목들의 자체 가격탄력성 값이 음(-)의 값을 가져 이론과 부합한 결과를 보였다. 특히, 보건, 통신,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교육에 대한 탄력성의 절대값이 1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가격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품목임이 확인되었다.

이어서 가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이 소득탄력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결과를 보면, 먼저 연령대별 소득탄력성의 경우 비서비스 품

목들이 대부분 연령별 소득탄력성 변화의 폭이 그리 크지 않은 것과 달리 서비스 품목들은 연령별 소득탄력성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크며, 비서비스 품목들에 비해 전체 연령대에서 전반적으로 소득탄력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지출의 경우 가구주 30세 미만인 경우를 제외하면 모든 연령대에서, 모든 품목 중에서 가장 큰 소득탄력성 값을 가지며,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그 탄력성 또한 지속적으로 커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세대별 소득탄력성의 경우를 보면 대부분의 비서비스 품목들의 세대별 소득탄력성 변화폭은 그리 크지 않은 것과 달리 서비스 품목들의 세대별 소득탄력성은 그 변화의 폭이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건과 통신을 제외한 나머지 서비스 품목들의 세대별 소득탄력성은 대부분 1 이상으로 나타나 소득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보건과 교육에 대한 소득탄력성은 연령대별로 뚜렷하게 반대의 방향으로 대응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취학 자녀를 둔 30대 후반에서 50대 가구주 가구의 지출구조는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할 경우 소득의 상당부분을 여타 품목에 대한 지출을 유보한 채 교육을 위해 지출하고 있으며, 유보 지출 중 보건에 대한 지출 유보의 정도가 가장 크게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소득수준별로는 전반적으로 비서비스, 서비스 품목 모두 소득이 증가할수록, 즉 소득 1분위에서 소득 5분위로 갈수록 소득탄력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비스 품목들은 보건과 통신을 제외하면 모든 소득 분위에서 공통적으로 높은 소득탄력성을 유지하였으며, 특히 교육은 모든 소득분위에서 매우 높은 소득탄력성을 가져 소득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넷째, 가구구성원 수별로 보면 서비스 품목의 탄력성이 비서비스 품목에 비해 전반적으로 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비서비스와 서비스 품목 모두에서 가구구성원 수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학령구성원 수의 경우에도 가구구성원 수에서의 소득탄력성의 변화와 거의 유사한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교육에 대한 탄력성은 구성원 수가 늘수록 그 크기는 증가하여 3명 이상인 경우의 탄력성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교통, 음식·숙박, 기타상품 및 서비스의 소득탄력성은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취학자녀가 많을수록 추가소득의 상당부분을 교육비에 지출함을 보여준다.

여섯째, 가구주 성별 및 맞벌이 여부에 따른 소득탄력성을 살펴보면, 소득의 크기 및 성별 특성에 따른 소득탄력성의 크기의 차이가 비서비스 품목과 서비스품목 모두에서 뚜렷하게 구분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은 그룹의 탄력성이 대부분의 품목에서 덜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대신 음식·숙박의 탄력성의 경우에는 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을 맞벌이가구와 남성가구주의 경우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구구조의 변화에 따른 품목별 지출변화의 양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가구구조 변화를 유발하는 다양한 특성들은 가계지출행태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가구 소득의 증가와 더불어 노령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한 연령구조의 변화, 여성의 경제활동 확대에 의한 맞벌이 및 여성가구 주가구의 증가, 출산율 저하로 인한 학령인구의 감소 등 다양한 인구통계학적 요인들의 변화는 의·식·주와 관련된 비서비스 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전통적인 가계지출구조에서 보건, 교육 등과 같은 서비스품목에 대한 지출비중이 높은 구조로의 전환을 촉진하고 있다. 더불어 이러한 소비지출의 구조변화는 가구구조 변화의 흐름에 따라 더욱 더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하겠다.

이와 같이 서비스품목에 대한 수요 증가로 인한 가계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는 관련 서비스 시장의 확대와 더불어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특히, 분석결과에서도 확인된 바와 같이 자녀 수 감소와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교육에 대한 지출은 가구의 소득 및 가구주 연령대와 크게 상관없이 매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보건에 대한 지출 역시 인구의 고령화와 맞물려 가계지출에 있어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낮은 출산율로 인한 자녀 수 감소, 이로 인한 전형적인 4인가구 형태에서 2인가구로의 빠른 전환, 이혼율 및 독신인구 증가로 인한 1인가구의 증가 등은 과거에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여겨졌던 외식 관련 서비스, 오락·문화와 관련된 서비스 또는 여행과 관련된 서비스 지출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며 향후에는 이에 대한 수요가 더 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분야에 대한 잠재수요 및 성장가능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더불어 해당 서비스 시장의 형성 및 확대와 관련한 공급측의 적절한 대응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연령구조 변화에 따른 서비스 수요변화

본 연구의 5장에서는 통계청의 1990~2012년까지 23년간의 가계소

비지출자료인 「가계동향조사」를 이용하여 연령변화에 따른 가구의 서비스소비지출 구조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생애주기 소비모형을 기반으로 한 가상코호트 방법을 이용하여 다양한 서비스 소비지출이 연령별, 세대별로 어떠한 변화행태를 보이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기본적으로 가구의 총지출을 추정한 결과 연령-세대-연도효과가 가계지출 변화를 설명하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세대효과 또는 연령효과에 의한 가계소비지출 패턴의 변화에 대한 설명력이 연도효과의 그것에 비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서비스부문별 연령효과는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는 50대 후반 연령대까지는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각 품목별 지출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역 U자형 패턴이 확인되었다.

셋째, 세대효과의 경우 또한 보건 및 교육서비스를 제외한 나머지 품목에서 세대가 젊을수록 품목별 소비지출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연령효과의 경우 대부분의 서비스지출 품목에서 55~59세 연령대까지는 지출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나, 6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감소하는 역 U자형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지출의 변화는 소득변화에 직접적으로 연동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섯째, 연도효과는 전체적인 가구소득 증가로 1990, 1991년 대비 가구의 서비스부문의 소비지출은 1998년을 제외하고는 증가하는 패턴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먼저 연령별로 가구의 품목별 소비지출 비중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고 있어, 특정 연령대의 가계에서 부담이 확대되고 있는 부분에 대한 차별화된 대책이 필요하다. 가장 특징적인 품목별 지출비중의 차이는 40대 가구의 교육비 비중을 들 수가 있으며, 더불어 60세 이상 고령가구의 경우 보건서비스(의료비 등)에 대한 지출비중이 다른 품목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향후의 정책 방향은 연령대별 특수성에 기반을 두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우선 40대 가계의 경우 교육비 부담으로 인한 여타 지출의 여력이 줄어든 상황하에서 교육비 지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2011년 말 기준 40대 가구주 가계의 소비지출 중 교육비 비중은 19.3%로 전체 가구 평균인 12.3%에 비해 7.1% 포인트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교육비의 비중은 전체 가계 소비지출의 13.8%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나 2000년의 8.8%에 비해 무려 5% 포인트 이상 증가한 반면 동 기간 중 공교육비는 6.3%에서 5.5%로 감소하였다. 이처럼 40대 가구주 가계의 소비지출에서 사교육비가 차지하는 과도한 비중을 줄이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학원비 책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시행에 중점을 둔 정책마련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더불어 중·장기적으로는 교육개혁을 통한 공교육 경쟁력 강화를 통해 사교육비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이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60대 고령층에서의 보건서비스 지출 증가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는 예방중심 의료정책의 도입이 필요하다 하겠다. 즉, 의료서비스 수요자와 공급자 모두를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의료문화 정착을

유도하여 빠르게 증가하는 노인 보건의료비 지출에 적절히 대응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노인 관련 질병의 경우 의료기관과 수요자 간 진료의 연계성을 강화하여 보건 및 의료관련 지출을 억제하고 의료자원의 효율적 이용 방안을 모색하여 의사와 환자가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서비스 구축에도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기존의 내수시장의 양적 성장은 인구증가를 담보로 한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주로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 감소 및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 나라 소비시장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며 결국에는 경제 규모 자체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의 인구구조 변화 양상이 지속된다면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체질개선, 이와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서비스부문으로 확인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에 대한 시장 확대는 내수시장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부문과 관련된 산업의 확대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 부담률 및 창출능력이 월등히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소비주체인 가계의 소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의 확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구구

조 변화로 인한 내수시장 위축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서비스 업종의 해외진출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3. 종합적 시사점

한 나라 경제의 양적 성장은 주로 인구증가를 담보로 한 제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통해 이뤄져 왔다. 하지만 저출산에 따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의 감소는 한 나라의 소비시장의 증가율을 둔화시키며 결국에는 경제 규모 자체의 감소를 초래하게 된다. 우리나라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현재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가 지속된다면 이를 피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제2장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선진국에서 65세 이상 인구의 비율이 15% 수준에 이르기까지는 거의 50년 이상이 소요되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20년이 채 걸리지 않을 정도로 빠르게 고령화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은퇴 이후 소득수준 및 증가율이 낮은 고령인구의 증가는 소비계층의 전반적인 평균소비성향을 낮게 만들며, 만약 이러한 상황이 해결되지 않고 지속될 경우에는 향후 우리경제의 역동성을 저하시켜 결국에는 경제의 성장잠재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지금 현재 이미 고령화 시대에 접어든 선진국의 경우에는 장기간에 걸쳐 국가적 부의 축적을 이뤄왔으며 이러한 부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 및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준비가 마련되어 있기에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국가적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다 할 수 있다. 하

지만 압축적인 성장을 통해 발전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고령화와 같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선진국의 경우와는 달리 고령화 자체가 경제성장의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산업의 체질개선, 이와 더불어 관련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신중히 이뤄져야 한다. 이는 본 연구의 분석 결과에서도 제시된 바와 같이 인구구조 변화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부문은 서비스 관련 지출임이 확인되고 있으며, 서비스부문에 대한 시장 확대는 내수시장 감소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경기 위축의 부작용을 상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서비스부문과 관련된 산업의 확대는 제조업에 비해 고용 부담률 및 창출능력이 월등히 높은 서비스업종의 특성상 소비주체인 가계의 소득과도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경제의 선순환 구조를 확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

결국 관련 서비스산업의 성장 잠재력과 시장의 확장성을 담보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식별하고 그에 걸맞은 대응방안 마련을 통해 서비스부문에 대한 경쟁력 향상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내수 시장위축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작동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이들 서비스 업종의 해외진출을 자극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내문헌

- 김원규(2012a), “중소기업 비중과 산업성장·고용증가를 간의 관계분석과 시사점”, 『e-KIET 산업경제정보』, 제529호, 산업연구원.
- 김기태·박봉길(2000), “독거노인의 생활만족도와 사회 지지망 : 지역복지관의 서비스를 제공받고 있는 노인을 중심으로”, 『노년학연구』, 20권 1호, pp.153~168.
- 김동석(2009), “소비구조 장기전망: 인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중심으로”, 『한국개발연구』, 28권 2호, pp.1~49.
- 김숙향·김혜선(2004), “소비자물가변화에 따른 비목별 소비지출의 상호작용 - 준이상수요체계(LA/AIDS) 모델로 추정”, 『소비문화연구』, 17호 4권, pp.129~145.
- 김태우(2009), “소득수준별 농식품 수요함수 추정: 중도절단회귀모형을 이용한 미시적 접근”, 『농촌경제』, 특집호, pp.125~154.
- 남옥진·박은경·양일우·신정현·이서영·임수빈·윤선영·하재성(2012), “가구유형변화와 소비재산업”, 삼성증권.
- 박선옥·최현자(2008), “미혼독신가구의 소비지출과 저축행태 및 유형화 연구”, 『소비자정책교육연구』, 4권 2호, pp.33~52.
- 박시내(2011), 『한국중고령자의 소득·소비 분석-생애소득가설을 중심으로』, 통계청 연구보고서.
- 변미리·신상영·조권중(2009), “1인가구, 서울을 변화시킨다”, 『정책리포트』 제30호, pp.1~18.
- 변성수·홍영림(1995), “도시가구 세대별 소비행태 다양한 패턴 보여”, 『월간 마케팅』, 29권 6호, pp.71~73.
- 석상훈·장선구(2009), “은퇴 전후의 소득 및 소비 비교: 성장곡선모형을 통한 분석”, 제10회 노동패널학술대회 발표 논문.
- 심영(2002), “독신가구의 경제생활에 대한 탐색적 연구”, 『한국가정관리학회

- 지」, 20권 6호, pp.197~208.
- 안중범·전승훈(2004), “은퇴결정과 은퇴 전후 소비의 상호작용”, 「노동경제」, 27권 3호, pp.1~23.
 - 여윤경(2003), “노인부부가계와 노인독신가계의 소비패턴 비교”, 「한국가정관리학회지」, 21권 5호, pp.1~12.
 - 윤재호(2002), “전국 도시근로가구의 집계교통수요함수 분석”, 「국토계획」, 37권 4호, pp.157~171.
 - 윤재호·김현정(2011), “은퇴와 가계소비간 관계 분석”, 「경제분석」, 17권 1호, 한국은행, pp.1~44.
 - 이용호·한정민(2013), “1인 가구 증가가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KIET 산업 경제」, 6월호.
 - 이은미(2012), “연령별 소비구조 변화의 특징과 시사점”, SERI경제포커스, 제 394호.
 - 이정우·이성림(2001), “경제위기와 빈부격차: 1997년 위기 전후의 소득분배와 빈곤”, 「국제경제연구」, 7권 2호, pp.79~108.
 - 이진면·민성환·정윤선·김바우·김재진·이용호·한정민(2012), “고령화를 고려한 중장기 산업구조 전망”, 산업연구원.
 - 이희연·노승철·최은영(2011), “1인 가구의 인구, 경제, 사회학적 특성에 따른 성장패턴과 공간분포”, 「대한지리학회지」, 46권 4호, pp.480~500.
 - 정명생·임정희(2004), “주요 어류의 소비구조 분석에 관한 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pp.1~171.
 - 조주현·김주원(2010), “1인 가구의 주택수요 특성에 관한 연구: 서울시를 중심으로”, 「부동산학연구」, 16권 4호, pp.33~52.
 - 통계청(2010), 인구주택총조사.
 - _____(2012), 장래가구추계: 2010~2035년.
 - 황덕순(2001), “경제위기 이후의 빈곤에 관한 동태분석”, 「노동정책연구」, 가을호, 한국노동연구원.
 - 황수경(2011), “가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효과 분석”, 「한국개

발연구」, 33권 3호.

- UN(2012), 세계인구전망 2012년판.
- _____(2013), 2013 세계인구현황 보고서.

2. 해외문헌

- Aguiar, Mark and Erik Hurst(2008), “Deconstructing Life-cycle Expenditure”,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3893.
- Alfons, Palangkaraya and Jongsay Yong(2009), “Population ageing and its implications on aggregate health care demand: Empirical evidence from 22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Care Finance and Economics*, Vol. 9, No. 4, pp.391-402.
- Ando, Albert and Franco Modigliani(1963), “The “Life Cycle” Hypothesis of Saving: Aggregate Implications and Tests”,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53, No. 1, pp.55-84.
- Angus, Deaton and John Muellbauer(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Th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0, No. 3, pp.312-326.
- Attnasio, O. P.(1998), “Cohort Analysis of Saving Behavior by U.S. Households”,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33, No.3, pp.575-609.
- Banks, James, Richard Blundell and Sarah Tanner(1998), “Is There a Retirement-Savings Puzzl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8, No.4, pp.769-788.
- Barrett, Garry F., Crossley Thomas F. and Worswick Christopher(2000), “Consumption and Income Inequality in Australia”, *The Economic Record, The Economic Society of Australia*, Vol. 76, No.233, pp.116-38.
- Berbheim, B. D., J. Skinner and S. Weinberg(2001), “What Account for the Variation in Retirement Wealth Among US Houshold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91, No.4, pp.832-857.
- Browing, Martin, Pierre-Andre Chiappori and Arthur Lewbel(2006), “Estimat-

- ing Consumption Economies of Scale, Adult Equivalence Scales, and Household Bargaining Power”, *University of Oxford*, pp.1-46.
- Browning, Martin and Thomas F. Crossley(2001), “The Life-Cycle Hypothesis and the Consumption and Saving”,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15, No.3, pp.3-22.
 - Danziger, Sheldon, Jacques Van Der Gaag, Eugene Smolensky and Michael K. Taussing(1983), “The Life-Cycle Hypothesis and the Consumption Behavior of the Elderly”, *Journal of Post Keynesian Economics*, Vol.5, No.2, pp.208-227.
 - Deaton, A. and Muellbauer, J.(1980), “An Almost Ideal Demand System,”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70, No. 3, pp.312-327.
 - Deaton, A.(1997), *The Analysis of Household Surveys: A Microeconomic Approach to Development Policy*, The John Hopkins Univ. Press, Baltimore, USA.
 - _____(1985), “Panel data from time series of cross-section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30, No.1, pp.109-126.
 - Dudek, H.(2010), “The Importance of Demographic Variables in the Modeling of Food Demand,” *Quantitative Methods in Economics*, Vol. 11, No. 1, pp.60-69.
 - Erlandsen, Solveig and Ragner Nymoen(2008), “Consumption and Population Age Structure”, *Journal of Population Economics*, Vol.31, No.3, pp.505-520.
 - Fisher, Jonathan, David Johnson, Joseph Marchand, Timothy Smeeding & Barbara Boyle(2008), “The retirement consumption conundrum: Evidence from a consumption survey”, *Economic Letters*, Vol. 99, No. 3, pp.482-485.
 - Haider, Steven J. and Melvin Stephens(2007), “Is There a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Evidence Using Subjective Retirement Expectations”,

- The Review of Economic and Statistics*, Vol. 89, No. 2, pp.247-264.
- Harris, J. M., and N. Blisard(2001), “Analyzing the Impacts of Generational Effects on Consumer Expenditure for Meats: A Cohort Approach”, *Journal of Food Distribution Research*, Vol. 32, No.1, pp.64-73.
 - Hashimoto, Noriko(2006), “A Preliminary Note on Expenditure Patterns of One-Person Household in Japan”, *Kansai University review of economics*.
 - Hurd, Micheal D. and Susann Rohwedder(2008), “The Retirement Consumption Puzzle: Actual Spending Change in Panel Data”,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3929.
 - Hurst, Erik(2008), “The Retirement of A Consumption Puzzle”,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3789.
 - Kalwij, Adriaan and Wiemer Salverda(2007), “The Effect of Changes in Household Demographics and Employment on Consumer Demand Patterns”, *Applied Economics*, Vol. 39, No. 11, pp.1447-1460.
 - Labcaster, Kelvin(1975), “The Theory of Household Behavior: Some Foundations”, *Annals of Economic and Social Measurement*, Vol.4, No.1, pp.5-21.
 - Laitner, John and D. Silverman(2005), “Estimating life-cycle parameters from consumption behavior at retirement”, *th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NBER Working Paper Series*, No. 11163.
 - Luhmann, Melanie(2005), “Population aging and the Demand for Goods and Services”, *Munich Center for the Economics of Aging*, Paper Series, No. 05095.
 - _____(2008), “Effects of Population Ageing on Aggregated UK Consumer Demand”, presented at IFS and CEMMAP.
 - Modigliani, F., and Brumberg, R. E.(1954), *Utility Analysis and the C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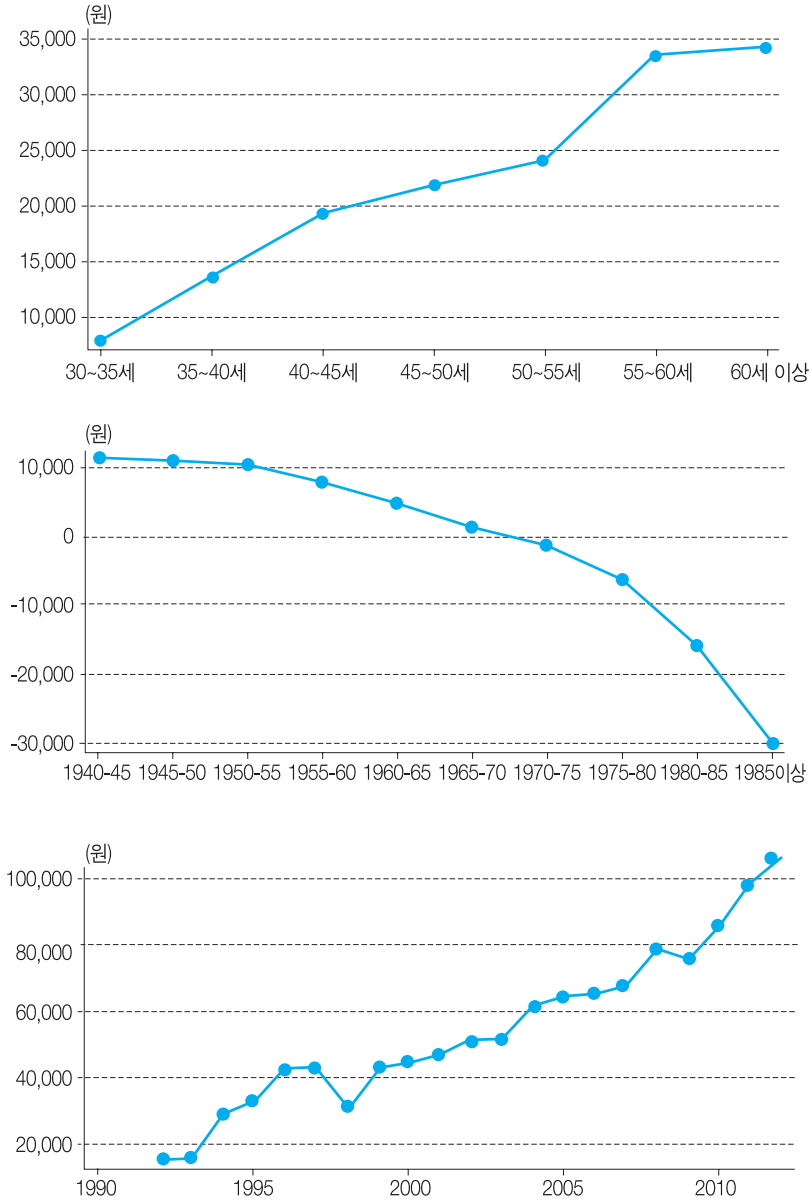
umption Function, Post-Keynesian Economics, Ed. N. J.: Rutgers University Press,

- Pollak, R. A. and Wales, T. J.(1981), “Demographic Variables in Demand Analysis,” *Econometrica*, Vol. 49, No.6, pp.1533-1551.
- Propper, C., H. Rees and K. Green(2001), “The Demand for Private Medical Insurance in the UK: A Cohort Analysis”, *Economic Journal*, Vol. 111, No. 471, pp.180-200.
- Ray, R.(1983), “Measuring the Cost of children: an Alternative Approach,”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 22, No.1, pp.89-102.
- Richard Blundell, Martin Browning and Costas Meghir(1994), “Consumer Demand and the Life-Cycle Allocation of Household Expenditures”, *Review of Economic Studies*, Vol.61, No.1, pp.57-80.
- Smith, S.(2006), “The Retirement-Consumption Puzzle & Involuntary Early Retirement: Evidence from the British Household Panel Survey,” *The Economic Journal: the Quarterly Journal of the Royal Economic Society*, Vol. 116, No. 510, pp.130~148.
- US Census Bureau(2011), “Consumer Expenditure Survey”.
- Uusitalo, L.(1980), “Identification of Consumer Style Segments on the Basis of Household Budget Allocation,”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Proceedings of the Association for Consumer Research*, Vol. 7, No.1, pp.451-4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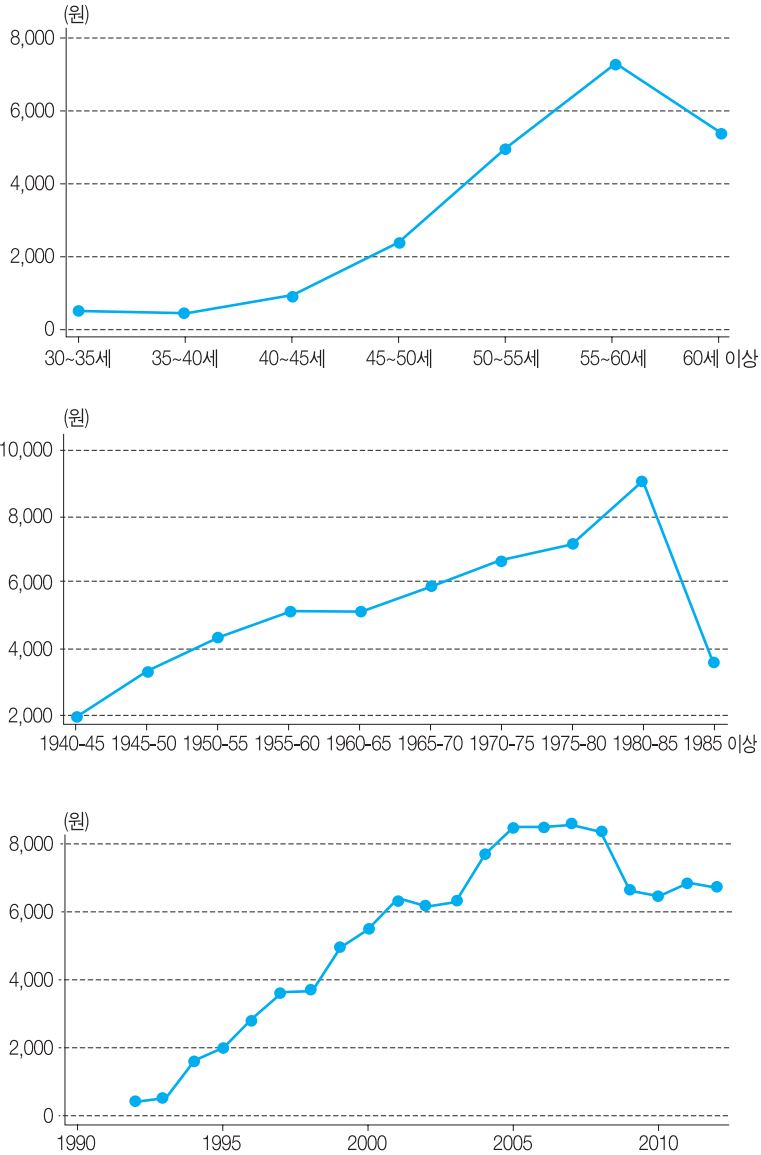
부 록

품목별 연령-세대-연도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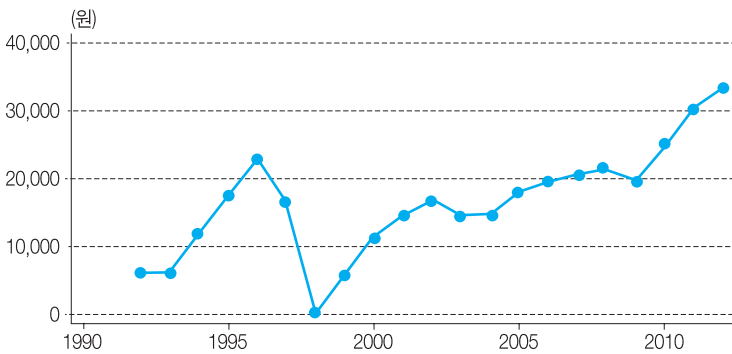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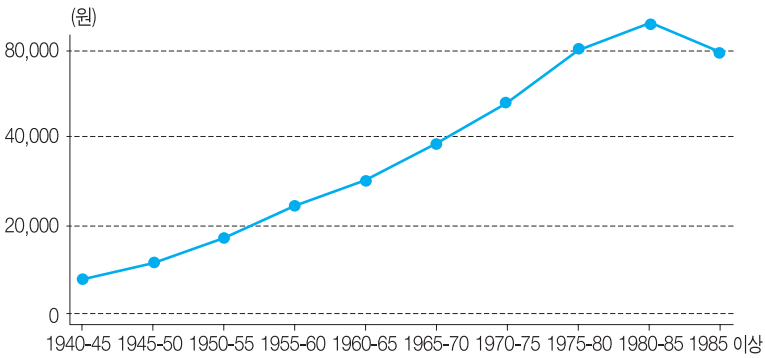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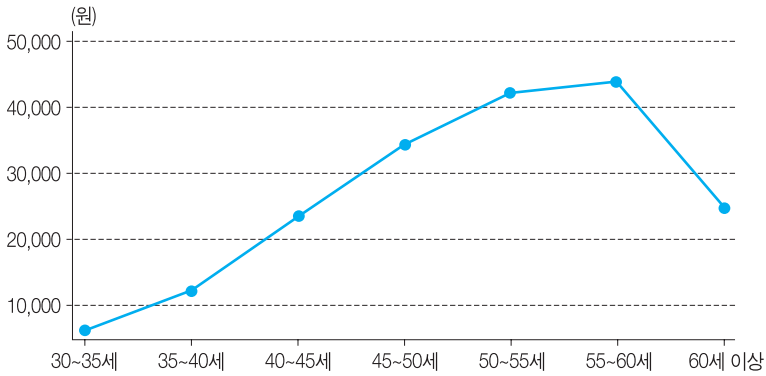
〈그림 A-1〉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 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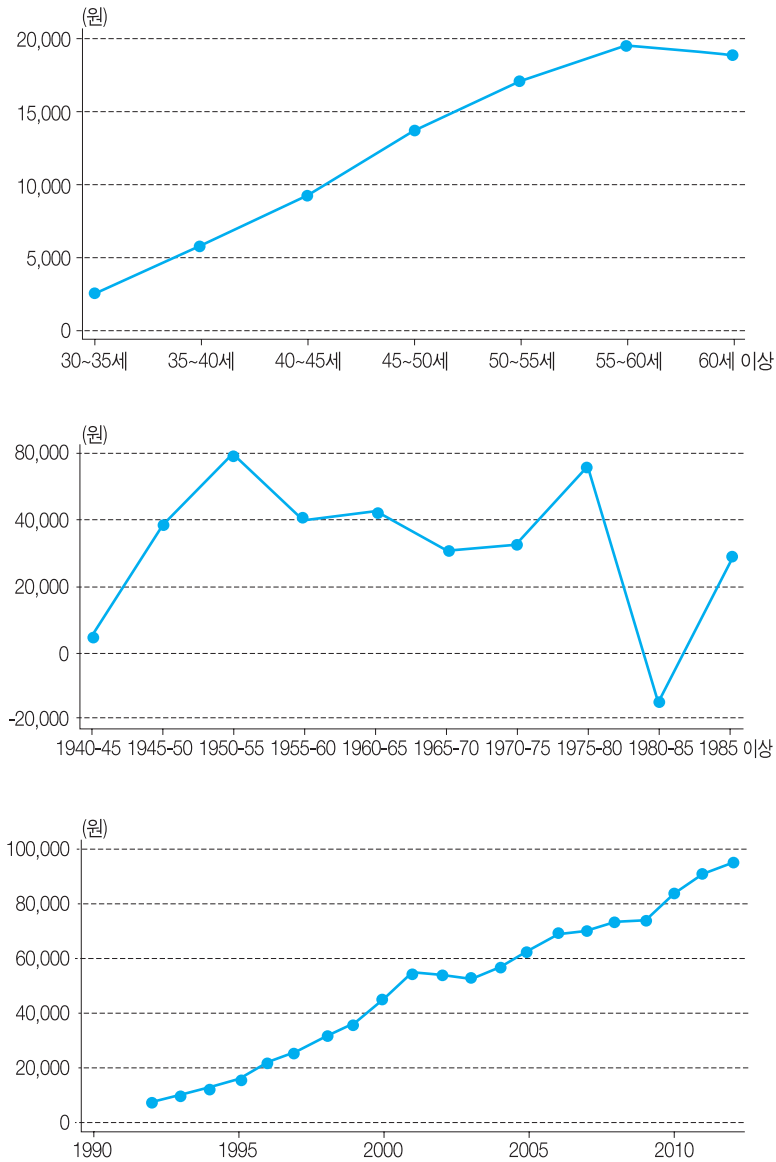
〈그림 A-2〉 주류 및 담배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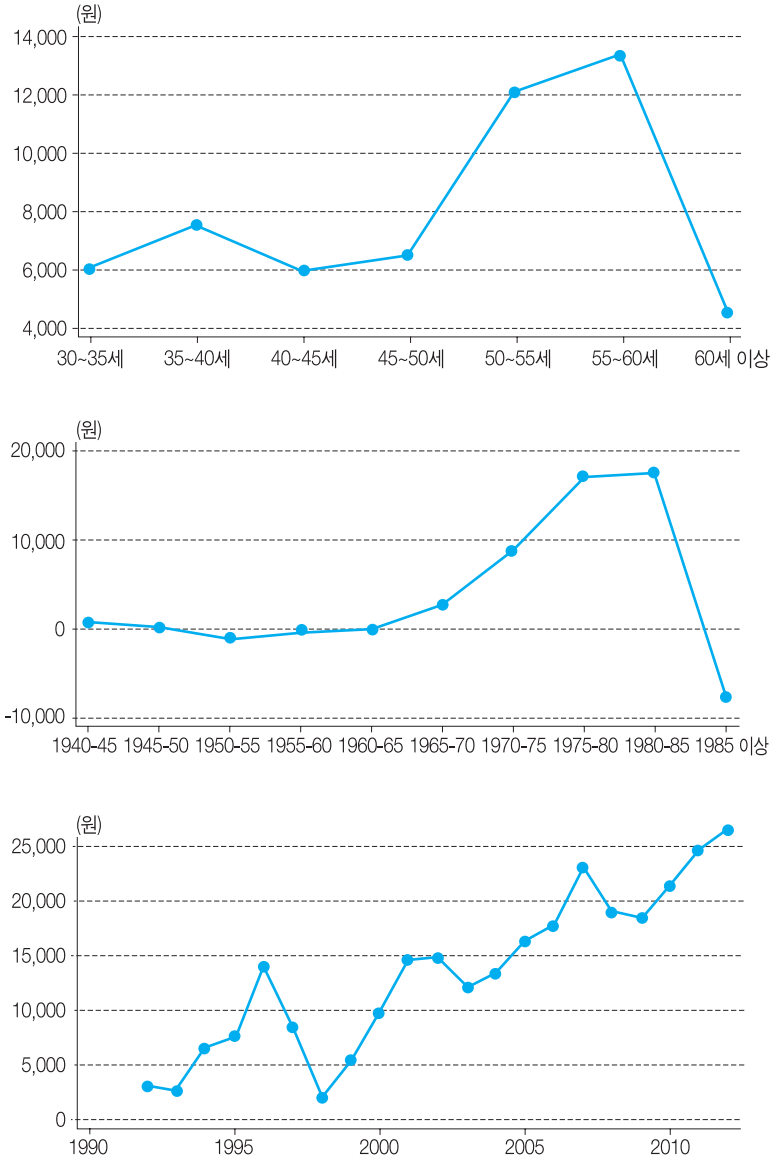
〈그림 A-3〉 의류 및 신발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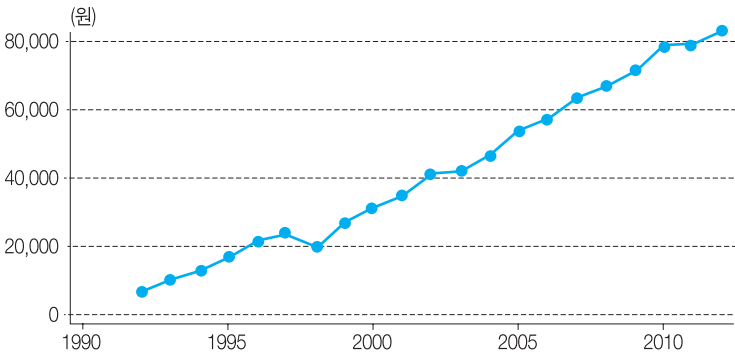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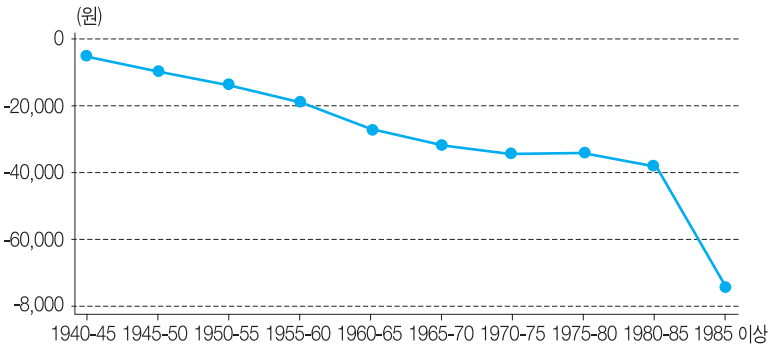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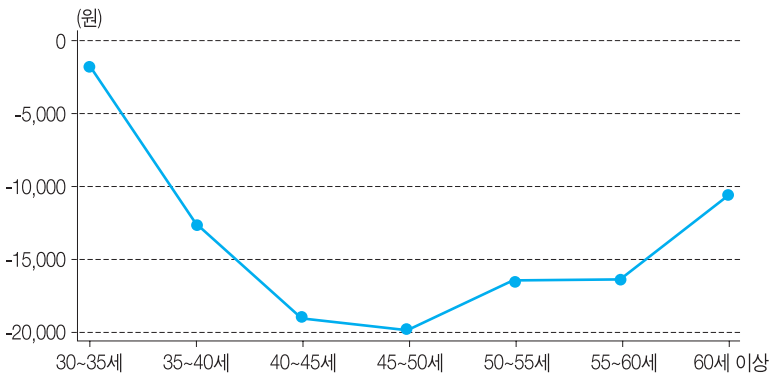
〈그림 A-4〉 주거 및 수도광열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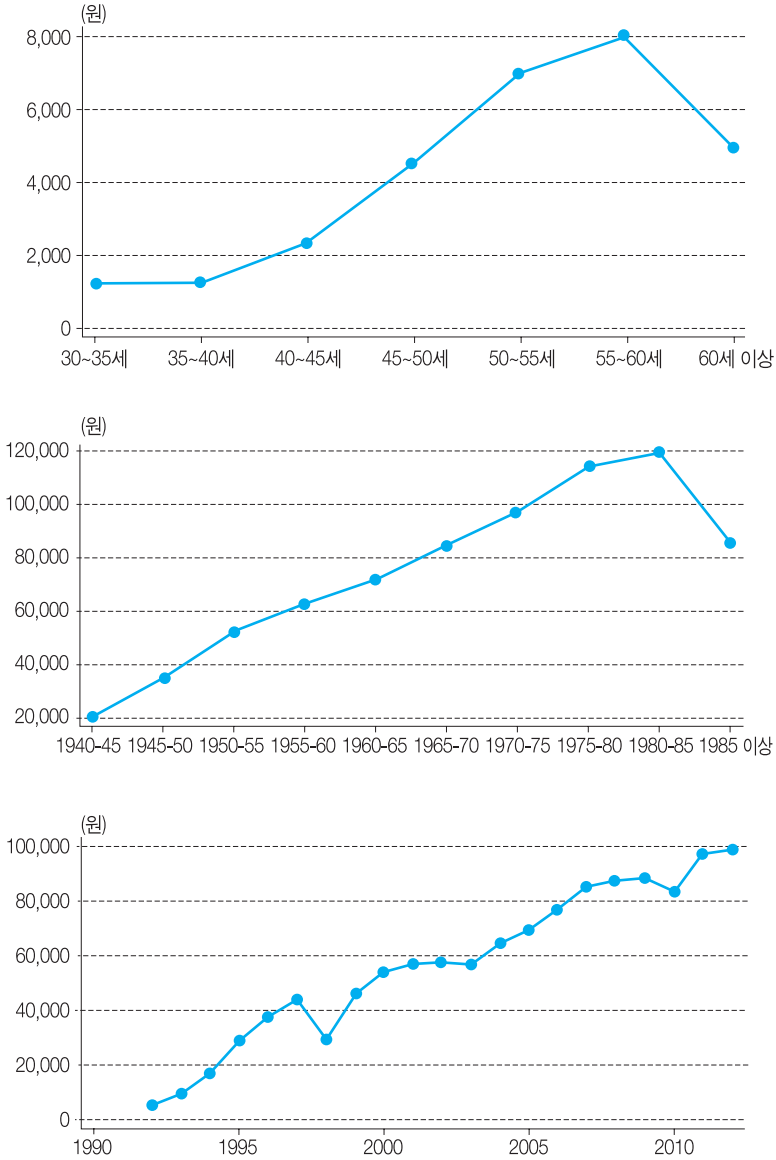
〈그림 A-5〉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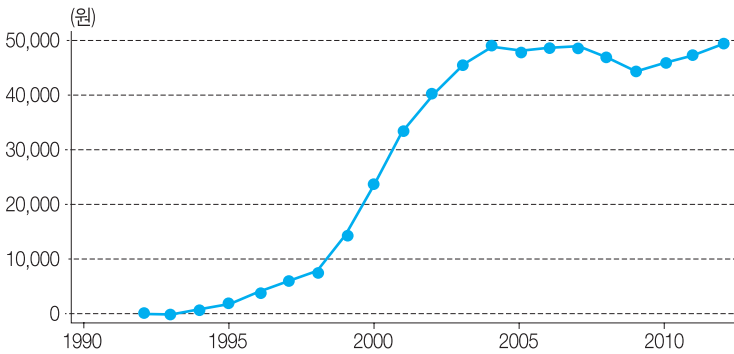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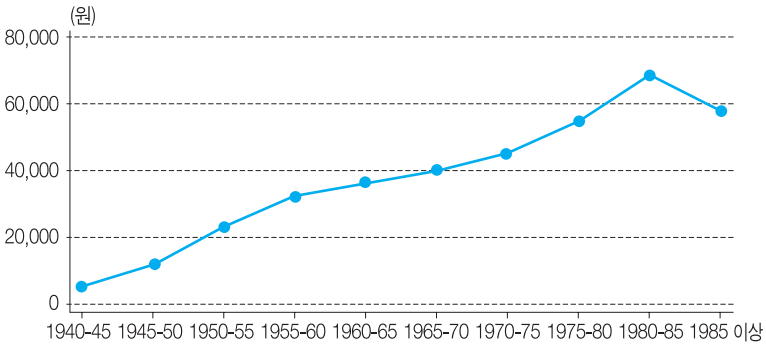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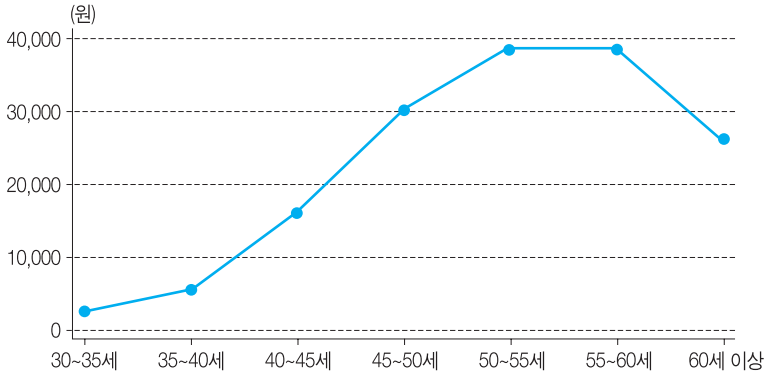
〈그림 A-6〉 보건의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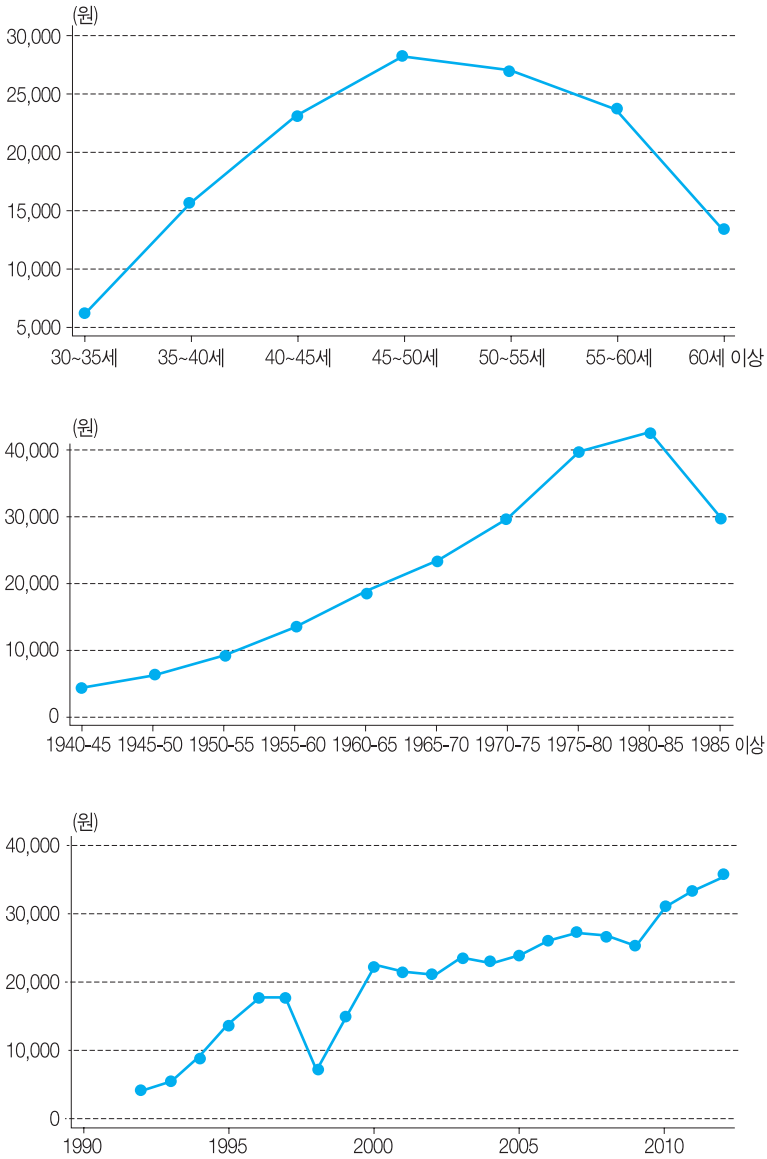
〈그림 A-7〉 교통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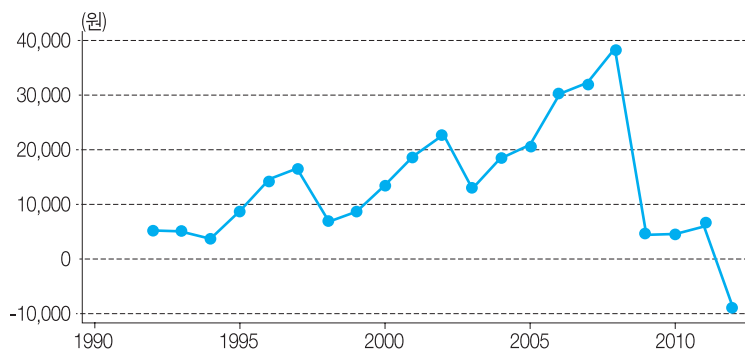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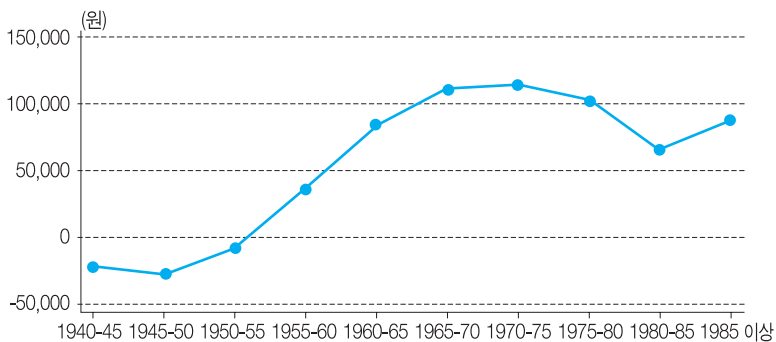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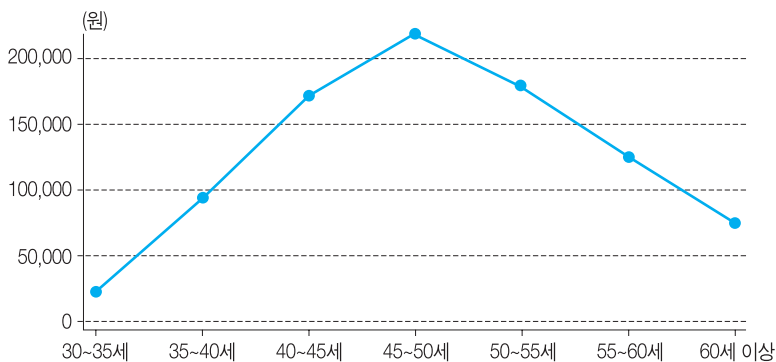
〈그림 A-8〉 통신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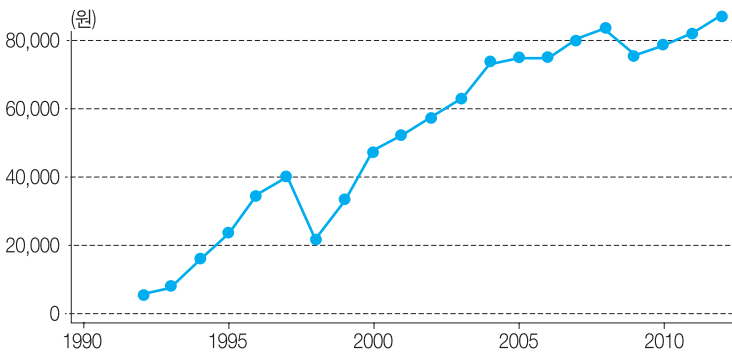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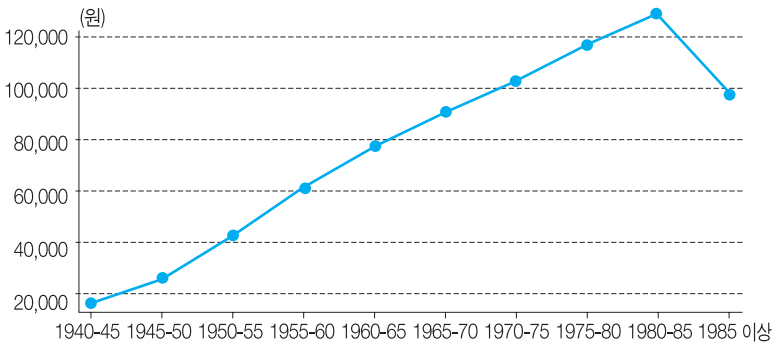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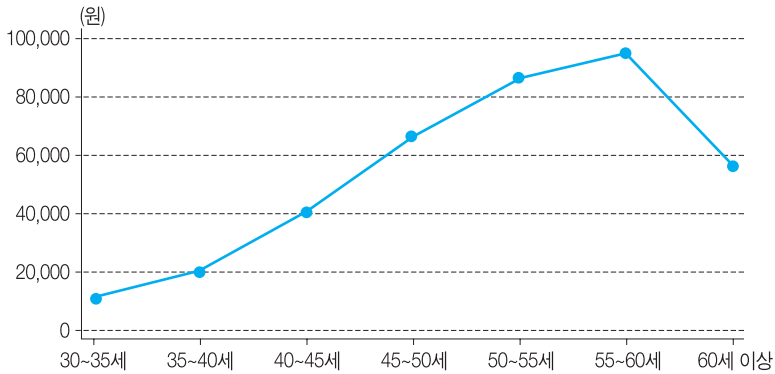
〈그림 A-9〉 오락·문화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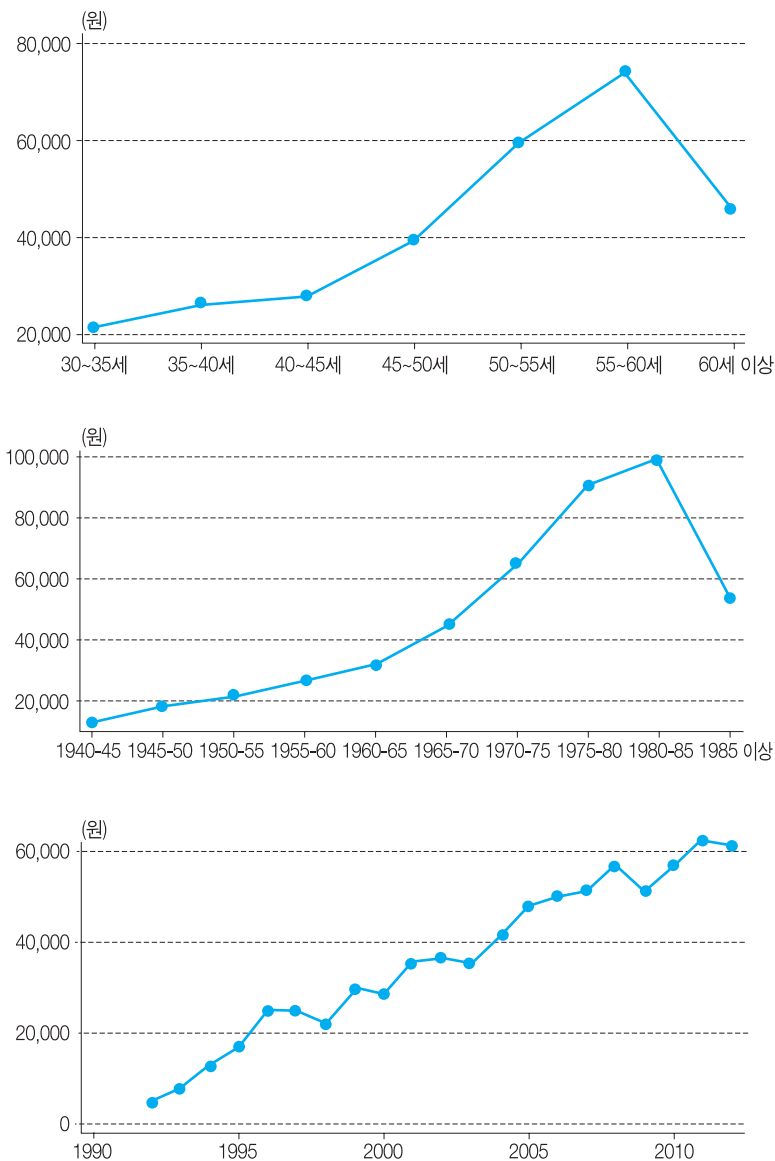
〈그림 A-10〉 교육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그림 11〉 음식·숙박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그림 A-12〉 기타상품 및 서비스 소비지출 연령-세대-연도 효과



Abstract

Analysis of the Effects of Structural Demographic Changes on the Demand for Services

Moonsoo Park *et al.* (mspark@kiet.re.kr)

This study aims to obtain empirical results on the changes in the demands for services caused by structural demographic changes, analyze the effects of such changes on the service industries in Korea, and finally draw policy implications for coping with the rapid demographic changes.

For these purposes, we first examine the features of and differences between household expenditures in various categories using household survey data from Statistics Korea, followed by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s of households or heads of households on household expenditures in various categories. As part of this pro-

cess, instead of analyzing the demand for each specific category separately, we use the systematic approach of the Almost Ideal Demand System (AIDS). Using this approach, expenditures in various categories are modelled simultaneously in order to empirically analyze the effects of the characteristics of households or heads of households as well as their structural changes on overall consumption patterns and demands for specific services more realistically. In particular, as opposed to the traditional approach of the AIDS model, we use the AIDS model with Price-Scaling approach (PS-AIDS) to model the effects of the demographics. Using the PS-AIDS model, we consider the effects of various structural demographic changes at the same time, such as changes in the share of each age group, family size or number of family members in school, and shares of the female household heads and dual-income families. Additionally, using the pseudo-cohort methodology based on the life-cycle consumption model, we analyze how household expenditures on various services vary dynamically depending on the ages and generations of household heads.

From the empirical results, it was found that recent demographic changes considerably affect household expenditures, hence shifting the structures of household expenditures into ones in which larger proportions of the total expenditure are allocated for services such as medical and educational services. Also, it was found that there are some expenditure categories in which shares are on the rise for only

specific age groups of the household head, thus increasing the level of burden for those households. These results imply that differentiated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for each age group and service category.

연구보고서 2013-668

인구구조 변화가 서비스 수요에 미치는 영향

인쇄일 2013년 12월 24일

발행일 2013년 12월 27일

발행인 김도훈

발행처 산업연구원

등 록 1983년 7월 7일 제6-0001호

주 소 130-74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회기로 66

전 화 02-3299-3114

팩 스 02-963-8540

문 의 자료·편집팀 02-3299-3151 93320

인쇄처 KAWPH 인쇄사업부

값 10,000원

ISBN 978-89-5992-633-6 93320

내용의 무단복제와 전재 및 역재를 금합니다.